2000년대 군대개혁과

군복무 중 ‘자기계발’을 통한 계급재생산

* 엘리트 남성들의 군복무 경험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협동과정

문화학전공

양 승 훈

2000년대 군대개혁과

군복무중 ‘자기계발’을 통한 계급재생산

: 엘리트 남성들의 군복무 경험을 중심으로

지도 조 혜 정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협동과정

문화학전공

양 승 훈

양승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1년 12월 일

**목차**

목차 i

표차례 iii

그림차례 iii

우리말 줄임글 iv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9

1.2.1. 군대사회학과 비판적 군대연구 9

1.2.2. 군대개혁과 자기계발하는 군인 19

제3절 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 29

1.3.1. 연구 방법 29

1.3.2. 연구 참여자 30

제2장 2000년대 한국군 개혁의 맥락과 전개 36

제1절 사회적 맥락 36

2.1.1. 민주화 이후, 군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확산 36

2.1.2. 군인 주체성 재현의 변화 42

제2절 군대 내부의 맥락 56

2.2.1. 국가발전의 선도적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56

2.2.2. 전면적 개혁의 계기: 2005년의 GP 총기 난사 사건 67

제3절 2000년대 군대개혁의 전개 71

2.3.1. ‘병영문화개선’과 ‘군 인적자원개발’의 전개 71

2.3.2. ‘자기계발하는 군인’ 79

제3장 엘리트 남성의 군생활로 본 2000년대의 군복무 83

제1절 엘리트 남성들의 입대준비 83

3.1.1. 병무환경의 전환과 엘리트 남성들의 전략 83

3.1.2. 군대 족보와 입대 루트 86

3.1.3. 입대준비 커뮤니티와 입대 학원 97

제2절 엘리트 남성들의 군생활 105

3.2.1. 훈련소 풍경 105

3.2.2. 군대에서 ‘스펙 쌓기’ 111

3.2.3. 공부할 수 있는 ‘짬밥’ 119

3.2.4. 학습시간의 확보와 협상 126

제3절 엘리트 남성의 제대 이후: 군생활의 재현 133

제4장 엘리트 남성의 군복무와 2000년대 군대개혁 140

제1절 자기계발하는 군대와 엘리트 남성들의 군복무 전략 140

4.1.1. 엘리트 남성의 전략과 계급재생산 140

4.1.2. 형성되지 않는 ‘학습조직’과 자기계발의 어려움 147

제2절 병영문화개선과 자기계발의 관계 150

4.2.1. 인권으로 등장한 자기계발 150

4.2.2. 비가시화된 인권의 문제 153

제3절 2000년대 표류하는 군대개혁과 홍보물로서의 자기계발 159

제5장 결론 165

<부록 1> 한국군 개혁 일지 179

<부록 2> 육군 표준 일과표 180

<부록 3> 군대 자기계발 블로그 181

<부록 4> 아들의 편지와 '엄마'의 답장 182

<부록 5> '엄마'의 커뮤니티 게시물 185

참고문헌 171

Abstract 187

**표차례**

<표 1> 연구 참여자 31

<표 2> 병역기피자 단속 통계 37

<표 3> 신문의 1980∼90년대 병역문제 관련 보도 40

<표 4> 시대별 헤게모니적 군인 주체성 43

<표 5> 군대개혁과 군인 주체화의 구조적 맥락 61

<표 6> C의 군대 족보 88

**그림차례**

<그림 1> '엄마'의 질의와 부대의 답변 54

<그림 2> 군대개혁의 구조화 : 국가/자본/시민사회의 영향 59

<그림 3> 병영문화개선 추진방향 73

<그림 4> <메가스터디> 카투사 현장특강 배너 101

<그림 5> 의무소방 수강 패키니 배너 102

<그림 6> 통역병 학원 커뮤니티 104

<그림 7> 2000년대 남성들의 입대 준비 구조화 142

**우리말 줄임글**

이 논문은 엘리트 남성들의 군복무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2000년대 이후 진행되었던 한국군의 개혁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어떠한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살핀다. 1980년대 민주화가 진행되고(정치적 전환), ‘신세대 병사’라는 자유로운 군인주체들의 등장(사회문화적 전환),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산업화 경제의 한계(사회경제적 전환) 등에 봉착한 상황에서 한국군은 획일적이고 통제일변도의 폭력적이고 낙후된 조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도 변화하기 시작한다. 1990년대 ‘신세대 병사’ 담론의 대두와 군인을 ‘아이’로 위치시키게 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한 몫의 ‘성인 남자’가 아니라 국가가 돌봐야 하는 ‘군인 아이’ 혹은 ‘군인 아들’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군인은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지켜야 할 존재’가 되었다.

2000년대 초중반 ‘GP 총기난사사건’등이 벌어지자 노무현 정부는 광범위한 군대의 개혁을 전개했다. 군대개혁의 주된 목표는 ‘병영문화개선’과 ‘군 인적자원개발’이었다. ‘병영문화개선’이 겨냥한 것은 병영 환경의 개선과 인권 교육, 병사들의 자율적 권리 증진 등을 통하여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또한 ‘군 인적자원개발계획’은 군을 이전의 산업화 경제가 아닌 지식기반경제에 걸맞은 인력을 편성할 수 있는 조직 개혁을 겨냥하였다. 하지만 안보를 강조하는 흐름으로 인한 예산제약, 변하지 않은 지휘부의 인식, 여전히 상명하복과 보고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선의 업무 처리방식에서 ‘100일 작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개혁은 정착되지 않았다. ‘병영문화개선’과 관련하여 필수적이었던 제도(‘군경감독관제’, ‘상설 인권 상담관’)들은 자리를 잡지 못하였다. 또한 전면적으로 ‘학습조직’으로 재편하려던 시도 역시 정착하지 못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으로 변한 사회에서 남성들의 군복무에 대한 대응이 변화했다. 바로 ‘다른 방식의 군복무’의 목표는 ‘스펙쌓기’ 등으로 대표되는 자기계발이다. ‘명문대생’들과 소수의 유학파 출신 남성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돌고 있는 ‘족보’와 ‘루트’ 등의 정보를 확보하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온라인 커뮤니티, 학원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카투사, 의무소방, 공군통역장교, 통역병 등에 응시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2000년대 중반부터는 통역병 학원 등의 사교육이 입대시장에 진출하여 남성들에게 ‘족집게 전략’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엘리트 남성들은 이러한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입대준비’를 실천한다. 입대후의 과정에서도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영리함’) 등을 활용하고 ‘스펙을 쌓기’위해 공부할 수 있는 ‘자기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투한다. 엘리트 남성들은 성적순으로 특수병과 대체복무요원을 선발하는 메커니즘과, 일선부대의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적인 ‘영리함’에 대한 판단으로 ‘명문대생’ 및 유학생을 선호하는 메커니즘을 간파하고 있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의 확보와 학습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자기계발하는 군대와 엘리트 남성의 관계다. 병무청과 국방부, 그리고 각 군은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보도함을 통해 ‘가고 싶은 군대’가 만들어졌음을 홍보하려 한다. 하지만 ‘스펙 쌓기’하는 자기계발을 군복무 동안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남성들은 이미 입대 이전부터 경쟁 게임에서 승리해온 극소수 엘리트 남성들뿐이다. 두 번째로 군대 인권과 자기계발의 관계이다. 애초 문제제기 되었던 군 민주화와 병영 악습의 문제는 부차화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개혁의 목표와 달리 신자유주의적 흐름 안에서 인권 문제가 학습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으로 좁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간부들은 상층부에서의 개혁방향의 혼선 때문에 매번 ‘paper-work’으로서 업무를 판단할 뿐 실질적인 병영문화개선에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졌던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사건 이후 급증한 각종 구타가혹행위와 사망·자살 사건의 증가가 벌어졌다. ‘병영문화개선’과 인권 문제가 여전히 군대 내에서 개혁을 통하여 제도화되어 풀리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 군대개혁은 애초에 사회에서 제기되었던 과제에 응답하지 못하고, 소수의 엘리트 남성들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생존전략으로 군생활에서의 자기계발을 성취하려 분투하며, 군대는 이들을 통해 군대개혁을 성취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대다수의 남성들은 점차 ‘탈락’의 공포를 징병제 군대의 복무를 통해서도 느끼게 되었다. 군대는 여전히 징병제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하고 동일한 군생활을 역설한다. 이는 ‘자기계발하는 군대’라는 말로 통합되지만, 결과적으로 군대에서의 자기계발의 수행의 서로 다른 조건들은 계급재생산을 만들어내고 있다.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 질문

1.1.1. 문제제기

근대국가는 무력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며, 이러한 무력의 독점은 군대를 통해서 운영되었다. 이러한 군대의 유지를 위하여 근대국가는 국가의 탄생의 초기부터 장기간 젊은 남성들을 국민개병제 혹은 징병제의 이름으로 모아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의 기간 동안 군인[[1]](#footnote-0)으로서 키워졌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1949년부터 국가는 국민개병제를 통해 남성들을 군대 제도로 진입시켰다. 60년이 넘게 운용되어온 한국의 군대는 한국전쟁(1950∼1953)과 군사독재시기(1961∼1992)를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군사문화와 군사주의를 양산했다. 엄격한 규율과 상명하복의 질서, 냉전기를 거치면서 생성된 반공주의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작동해왔다. ‘자유민주주의’를 헌법 전문에 명시했지만 ‘안보적 상황’ 논리는 수시로 그것을 압도했다. 한국사회에서 반공주의·군사주의·군국주의 국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4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 군대는 전사회적인 이데올로기와 훈육기제를 만들어내며 ‘정상’ 남성들을 양산해 냈다(기든스, 1991; 박상섭, 1996; 알튀세르, 2007; 푸코, 2003).

이러한 군대는 국민개병제를 통하여 ‘예외’를 제외한 모든 남성들을 징집했다.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남성들 일부와 여성을 제외하면 ‘신체 건강한 대한의 아들들’은 모두 훈련소로 직행해야 했다. 한국의 20대 남성이 성인으로서 겪는 공통된 경험에는 ‘신체검사’와 ‘입영 영장’, 그리고 ‘훈련소 입소’가 있다. 대중가요 중 군복무와 관련된 모든 가요의 가사들이 발라드 조에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젊은 날의 2년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통제당하고 사회와 고립되어 지내야하는 것과 일정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대부분 남성들은 군대에 대한 기억을 각인하고 있다. 사회에서 ‘군인’으로 호명되어 군복무를 2년간 마친 후, 사회로 배출되는 남성들의 경험은 군사주의·군사문화를 사회전반에 재생산 했다. 사회에서 군사주의·군사문화의 양태가 강력하게 남아있는 것은 먼저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이 전체 남성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 의해서 파악된다. 하지만 다른 한 편 국가가 군필자들에게 문화적인 의미부여를 하고 노동시장에서 우대했음에도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군복무에서 배제되어있는 여성에 대한 젠더 정치학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일차적으로 이른바 한국의 ‘민주화 세력’들과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은 건국 이래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을 지속해왔다. 강력한 병영 국가이자 군사주의를 실천하는 국가에 대해서 1970년대 리영희를 위시한 지식인들은 지속적으로 비판적 지식 생산을 멈추지 않았다. 초기의 비판은 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라는 측면, 그리고 파시즘적 독재체제을 겨냥했다. 즉 기존의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구상과 맞물려 있었으며 논의의 구도는 거시적인 것이었다. 그 중 일부는 군부 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 또는 보수파 정치 세력에서 개혁파 혹은 진보파로의 투표를 통한 평화적 정권 이양하는 정치적 목표 안에서 군대의 문제들을 파악했다. 다른 한 편 급진적인 세력들은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맥락에서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나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의 ‘식민지’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군사주의를 비판했다. 하지만 일상적 차원에서의 군사주의에 대한 언급은 부재했다.

그렇지만 군부독재체제가 붕괴하고 민주화가 전개되는 두 번째 시기에 심화된 비판이 이어진다. 1999년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과 2001년의 ‘월장 파동’ 등이 벌어지고, 임지현의 ‘일상적 파시즘’(임지현 외, 2000)에 대한 주장과 여성주의자들의 문제제기를 통하여 군사주의 사회에 대한 세밀하고 미시적인 일상적 차원에 대한 비판들이 시작되었다.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군대를 통하여 양산되는 주체와 사회에서의 군사주의 재생산에 대해서 날카롭게 문제가 제기되면서 군사주의는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성별 위계를 강화하고 직간접적인 폭력을 재생산하는 기제인 군대를 통해 만들어지는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군사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비판은 한국사회에서 풍부한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냈다.

다른 한 편 2001년 오태양 등과 같은 비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하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도 ‘여호와의 증인’과 소수파 ‘제칠일 안식일교회’의 신도들이 병역거부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지만, 한국의 군사주의와 평화에 대해서 발본적인 문제제기한 것은 아니었다. 2000년대의 비종교적 연유의 병역거부자들이 제기한 병역거부 운동은 개인의 ‘신념’, 그리고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발본적인 비판을 제기하며 징병제를 비판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국방부는 2007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성주의자들의 군사주의 비판과 2001년 시작된 병역거부자들을 위시한 평화운동가들의 군대에 대한 발본적인 문제제기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언급한 두 시기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전히 병역거부자들은 18개월 남짓의 징역을 선고 받고 있고, 일상에서의 군사주의와 군사문화는 해체되지 않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강화되기 시작한 예비역을 위시한 남성들의 ‘사이버 테러’의 흐름들은 2010년 ‘군살녀(장희진) 파동[[2]](#footnote-1)’ 때처럼 드러나듯이 여성주의자들의 군사주의 비판에 대해 적의를 드러내는 등의 강력한 반동(backlash)을 드러낸다. 지속적으로 비판적 지식인들과 평화운동, 그리고 여성주의 운동에서 만들어내고자 했던 인권에 대한 감수성, 젠더에 대한 감수성은 사회적인 흐름이 되지 않고, 군사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들은 공회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정부’ 10년이 지나고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을 거치면서 안보 이데올로기는 더욱 더 강화되고 있고, 잠시 다른 국면으로 진행할 것 같았던 한국의 군대의 모습은 병영문화의 상황으로 볼 때 다시금 냉전기의 군대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듯 보인다.

2004년 이후 2010년까지 총 884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다. 평균 3일에 1명씩 병사들이 생과 사의 길을 갈아탄다. 2010년 21사단 소속 오모(22)병장은 결핵을 앓고 있었는데도 군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방치된 끝에 의식불명상태가 되었다. 2011년 2월에는 육군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정모(21) 훈련병이 중이염을 호소했으나 훈련소측이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3]](#footnote-2). 2011년 4월 24일에는 뇌수막염을 앓던 육군 훈련소의 노모(23) 훈련병이 사망하고, 같은 달 27일에는 육군 7사단 공병대대의 김모(20) 일병이 돌연사 했다[[4]](#footnote-3). 2011년 5월 30일에는 전방 사단에서 GOP 초소 바깥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최모 이병이 자살을 했다[[5]](#footnote-4) 2011년 6월 15일에는 ‘스타 배우’ 현빈과 같이 복무하는 해병대 2사단의 이모(20) 상병이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숨졌다[[6]](#footnote-5). 2011년 7월 4일 해병대 2사단에서는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져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일까지 발생했다[[7]](#footnote-6). 2011년 8월 10일에는 같은 해병대 2사단에서 단기 장교(소위)가 자살을 했다[[8]](#footnote-7).

한동안 사라졌다던 ‘가혹행위’가 다시 속출했다. 2005년에도 ‘알몸신고식’으로 화제가 되었던 강원경찰청의 307부대는 2011년 초 6명의 이경(군대에서는 이병)들이 이탈하고 조사결과 구타와 갖가지 가혹행위가 벌어졌음이 밝혀졌다. 2007년 2월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에 전의경 인권개선안을 권고했고, 2007년 10월 경찰청을 이를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었으나 그런 ‘권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이 명확해졌다. 2010년 6월에 백혈병으로 사망했던 의경도 선임들에 의해 구타당했던 사실도 밝혀졌다[[9]](#footnote-8). 군대는 남자들을 잘 ‘길러내지’도 못하고 동시에 사회에 조응하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도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대는 각종 미봉책들을 내놓고 있다[[10]](#footnote-9).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군가산점제를 부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하는 것으로 남성들의 지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11]](#footnote-10). 근 30년간 제기되어왔던 군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적절한 대응을 해내지 못하고, ‘민주 정부’ 10년간 진행되었던 개혁과제들은 미봉책에 밀려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와중에 한국군은 전후 50년간 역사적으로 구축된 군인의 전통적 이미지를 사회적으로 재조명하면서 홍보하기 시작했다. 다시금 ‘개혁’적이고 ‘민주’적으로 변해왔던 군대의 모습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 논문은 기존부터 제기되었던 ‘군대개혁론’(군대개혁의 공고화)과 ‘퇴보론’ 및 비판론(이명박 정권 이후 군대개혁의 퇴보, 군사주의 비판) 중 어떠한 한 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군대연구에 있어 새로운 분석범주(계급)를 검토하고, 새로운 사회적 환경의 변화(신자유주의)를 함께 살펴야 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군대연구가 필요한 지점을 정확히 드러내는 이들이 바로 엘리트 남성[[12]](#footnote-11)들이다.

우선 계급을 보자. 그간 징병제에 의해 평등한 군복무가 이루어진다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남성들의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계급적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군복무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군대에서 배웠다』(박수왕 외, 2010), 『밀리던트 스타일』(박찬영, 2011)과 같은 엘리트 남성들의 자기-서술은 이러한 상황을 잘 드러낸다. 엘리트 남성들은 학습하는 군인의 모습, 자기계발에 동분서주하는 군인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전까지는 ‘공식 담론’ 안에 편입되지 않았던 군인의 모습이다. 엘리트 남성들의 군생활과 지금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태는 서로 모순적인 이미지를 드러낸다. 여러 자료들이 밝혀주듯이 엘리트 남성들은 기존의 군사주의를 추동했던 메커니즘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거부한다. 그들의 문화적 취향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군대는 ‘시간낭비’이고 최소 손실의 군복무가 목표가 된다[[13]](#footnote-12). 학습하는 군인으로서 집요하게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고 남성들이 선호하는 ‘편한’ 군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남성들의 군대와, 폭력이 난무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복무할 수밖에 없는 남성들의 군대는 동일한 공간으로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로 이러한 남성들의 실천[[14]](#footnote-13)이 신자유주의라는 전사회적 이데올로기-담론, 제도를 포괄하는 통치성/통치전략(Foucault, 1998; 지주형, 2010)과 포개어진다는 것이다.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강권하고, 그것들을 보조하는 자기계발 시장(에런라이크, 2011)과 입대 사교육 시장이 창출되고 있다. 거기에 ‘매니저 엄마’(박소진, 2009, 2011)의 호위를 받고 있는 지금의 청년세대 엘리트 남성들의 자기계발과 ‘스펙-쌓기’의 강박은 단순히 징병제 군대로 인해 남성들 모두가 동질적인 방식으로 사회화된다는 주장의 한계를 드러낸다. 선명하게 계급적으로 다른 군생활이 만들어지고, 계급재생산의 기제로 군복무가 활용된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상황과 자기계발을 권하는 남성들, 계급적 차이 이면에서 군의 관계자들은 군대의 자기계발 권하는 조직문화에 대해서 홍보하고 전혀 다른 군생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김정필, 2010). 병무청 홈페이지에는 자기계발과 군생활을 연동하는 광고배너를 부착해 두었다. 각 군(육·해·공·해병대)은 모두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군생활을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군대개혁과 군대문화와 관련된 논의는 다른 방향으로 견인될 필요가 있다. 새로이 전개된 사회적 상황인 전사회적인 신자유주의 통치전략을 함께 염두에 두면서 군대개혁, 군대문화와 관련된 논의를 함께 살펴야 하는 것이다.

1.1.2. 연구 질문

이 논문은 엘리트 남성들의 2000년대 군복무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논문이 주되게 질문하는 바는 그들의 군복무 경험 중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병사와 장교로서 경험한 군대개혁의 의미이다. 논문이 문제제기하는 질문의 쟁점은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명문대생’으로 대표되는 엘리트 남성들의 자기계발로 대표되는 경험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남성들의 경험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사회구조적 맥락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 엘리트 남성들의 경험은 어떠한 사회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며, 이는 국민개병제가 가지고 있는 남성들 간의 평등의 측면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가?

- 군대에서의 엘리트 남성들의 자기계발 경험과 2000년대 ‘민주정부’ 하에서 진행했던 일련의 군대개혁(병영문화개선, 군인적자원개발)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 병영생활과 관련된 측면에서 군은 과연 시민들의 요구에 걸맞게 응답하면서 개혁되고 있는가? 군대개혁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즉, 이 논문은 병영문화개선과 같은 병영 개혁(민주화)과정을 자신들의 군생활로 체험했던 엘리트 남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점검한다. 그리고 그 의미가 미치는 파장과 효과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러한 질문들을 남성들의 경험을 통하여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함의들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되는 한국 사회에서 군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기존의 군대 경험에 대한 인식틀은 다시 어떻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인가?

상기한 문제의식과 염두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다. 먼저 1장 2절에서는 군대, 군인, 군대문화, 군사주의 등에 대한 일련의 연구(군대사회학과 비판적 군대연구)를 검토하고, 신자유주의적 통치전략이 구현되고 있는 최근의 연구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신자유주의 주체화와 계급적 실천의 문제)과 방법론(인터뷰, 미디어 담론 분석)을 탐색한다.

2장에서는 2000년대 군대개혁이 전개되었던 맥락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군대 바깥, 즉 사회적으로 제기되었던 군대개혁의 요구와 군대문화에 대한 비판적 움직임을 탐색한다. 두 번째로 군대내부에서 개혁을 진행하게 된 흐름을 살핀다. 이러한 두 가지의 흐름은 2005년 GP 총기난사사건이라는 결정적 국면을 맞이하면서 ‘정치적 흐름’을 통하여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전개된 개혁의 내용을 파악한다. 특히 개혁은 본 연구의 중심화두인 의무복무중인 남성들과 직결되는 차원(병영문화개선, 군인적자원개발과 자기계발)의 차원에서 살펴진다.

3장에서는 논문의 주(主)연구 참여자 집단인 자기계발하는 엘리트 남성의 경험을 살핀다. 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한 편에서 군대개혁의 맥락과 결부되어 있고, 다른 한 편에는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전략과 그에 따르는 매개자(intermediary)로서의 가족과, 사교육 시장, 학벌 등의 사회적 네트워크 자원이 결합되어 있다.

4장에서는 이러한 엘리트 남성들의 경험과 군대개혁 과정을 통해 드러내는 현상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 중점적으로 도입되었던 ‘병영문화개선’ 정책과 ‘군인적자원개발’ 정책 안에서 진행된 ‘자기계발하는 군대’ 기획 간의 관계와 그 사회적 효과를 엘리트 남성들의 군대 경험의 해석을 통해 살핀다. 마지막으로 ‘자기계발하는 군대’를 홍보하는 국방부의 홍보전을 살펴본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본 논문의 목적은 2000년대 자기계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엘리트 남성들의 경험을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행되었던 군대의 개혁과정, 특히 2005년 이후 급격하게 전개되었던 ‘병영문화개선’의 과정 속에서 살피는 것에 있다.

2절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쟁점을 다룬다. 우선적으로 기존에 진행되었던 군대와 군인에 관한 연구의 지형(군대사회학, 비판적 군대연구)을 살피고(1.2.1) 새로운 논의 방식을 위한 두 가지의 쟁점을 검토한다(1.2.2). 먼저 군대개혁의 과정을 조직론의 차원에서 검토하고(1.2.2.1), 다른 한 편 새로운 엘리트 남성들의 행위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주체화가 유발하는 쟁점과 관련된 논의를 검토하는 것(1.2.2.2)이다.

**1.2.1. 군대사회학과 비판적 군대연구**

한국에서 전통적인 군대 연구는 주로 세 가지 경향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민군관계(civil-military relations)를 광의로 해석하고 군대와 사회와의 관계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는 군대사회학의 분야이며, 두 번째는 민군관계를 협의로 파악하고 군대와 정치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정치학적 민군관계론의 분야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제분쟁 또는 전쟁과 평화와 관련된 분야로, 즉 군사력과 안보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가 주로 진행된다. 이는 대체로 정치학 내부의 국제정치학자 혹은 국제관계학자들이 주로 연구를 해왔고, 그들은 현대전의 양상과 국제질서의 동학, 그리고 군비통제와 군비축소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백종천 외, 1994: 14; 홍두승, 1996: 16; 함택영·박영준 편, 2010: 193, 308; 김종하, 2010).

상기한 군대 연구의 경향 중 논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앞서 언급한 후자의 두 경향보다는 군대와 사회와의 관계를 다룬 첫 번째 경향, 즉 군대사회학이다. 그 이유는 군대사회학이 군대문화, 군사주의, 군사문화를 포괄하여 연구해 왔으며, 동시에 군인에 대한 경험 연구 역시 군대사회학의 범주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 논문이 수행하는 연구 역시 외연을 넓혔을 경우 군대사회학 혹은 군대인류학 등 군대에 관한 사회과학적 경험연구의 범주에 포괄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1.1. 군대사회학의 관점에서 본 군대

군대사회학은 실제로 사회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군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군대와 연관되어있는 사회적 관계들을 조명한다. 따라서 이 항에서는 기존의 군대사회학의 논자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와 군복무에 관한 해석, 그리고 군인들의 경험에 관한 해석을 주로 살핀다.

군대사회학의 초창기 저작인 백종천 등의 『한국의 군대와 사회』(1994)에서는 “군복무는 집단생활과 내무생활을 통해 개인들에게 단체생활에 필요한 예의범절, 협동정신, 조직생활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일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준다고 판단하고(백종천 외, 1994: 192) “군복무 기간은 국가의식을 고취하고 국민적 일체감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판단한다(백종천 외, 1994: 280). 결국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 즉 성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백종천 외, 1994: 278-279)한다는 한국에서의 평균적인 ‘상식’과 큰 차이가 없다. 즉 사회과학적 분석에서 필수적인 그들의 가치 규범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지, 그리고 복무가 어떠한 동의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질문은 부재하다.

이러한 난점 때문에 가장 최근의 군대사회학 논자인 온만금(2006)의 경우는 그러한 군복무에 대한 규범적 논의를 수행한다. 온만금은 ‘신세대 장병’의 성장배경과 그들이 살아온 사회적 맥락이 존재함에도 지금의 군복무 환경 자체가 ‘기술지체’로 인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온만금, 2006: 184). 군대사회학에서 군복무에 대한 규범적 판단은 점차 민주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군대의 재편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대응하는 군대의 문화를 살필 수 있는 군대문화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게 된다.

홍두승은 “긍정적인 관점에서건 부정적인 관점에서건 지금까지 군사문화와 관련된 논의들은 군사문화가 사회 일반에 미친 영향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을 뿐 사회 환경의 변화가 군조직의 인적 구성을 중심으로 한 내적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홍두승, 1996: 118)고 본다. 이러한 인식은 “군사문화 역시 일반문화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되고 재구조화되고 있”(홍두승, 1996: 124-125)는 현실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홍두승의 관점은 온만금(2006)의 언급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문화에 군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해야 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군대의 문화에 관한 연구를 살필 때에는 현재적인 ‘군대 바깥’의 문화와 ‘군대 안’의 문화의 역동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군대사회학이 다루는 군복무에 관한 논의, 군대문화에 관한 논의는 그 자체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먼저 기존의 군대사회학은 경험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증주의에 입각하여 통계적 연구의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의 문화와 그 사회화의 양상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입체적 논의를 어렵게 한다. 백종천 외(1994) · 홍두승(1996) · 온만금(2006)의 경우 모두 통계적 방법에 의해 군인들의 설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경험연구를 진행한다. 그들이 다루는 주제는 다양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지만 군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배경이 소거되어 입체적인 분석을 어렵게 한다[[15]](#footnote-14).

둘째로 주된 연구들은 연구 프레임의 관점에서 볼 때, 구조-기능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조-기능주의는 현 사회구조라는 것을 ‘영속’적으로 판단하고[[16]](#footnote-15), 그 안에서 (근대) 국가 안의 각 부문들이 각자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진단하며, 특별한 규범적 질문이나 갈등의 요소를 드러내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17]](#footnote-16). 이러한 연구 프레임 하에서 전개된 군대사회학의 연구들은 대체로 군대에 대한 권위주의적 입장, 군사문화에 대한 규범적 혹은 정치적 판단을 분석하지 않고, 제도적 결함 수준에서 인지한다. 또한 현 체제의 구조의 변동이나 내부의 균열들에 대해서 인지하기 쉽지 않고, 변동과 균열이 명백할 경우에도 이를 ‘일탈적’ 상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카치아피카스, 2009). 즉 이러한 논의 프레임 안에서는 구조변동을 요구하는 군대개혁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적 편향도 존재한다. 기존의 구조에서 지배 구조와 지배 이데올로기가 조형하는 군대, 그리고 군인에 대한 정상화의 효과를 은폐하기 쉽다. 초기의 군대사회학이 조명하(려)는 군인 남성은 달리 언급하자면 늠름하고, 다부지며, 애국심 있고 책임감 있는 균질한 ‘씩씩한’ 남성이다. 이는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어 기존의 군대문화 자체를 영속적인 것으로 정당화시킨다.

1.2.1.2. 군대에 관한 비판적 사회과학 연구

기존의 군대사회학에 대한 대안적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먼저 군대가 제기하는 군복무와 군인의 정상성 뒤의 (억압되고) 비가시화된 주체들의 맥락을 드러내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정상성의 범주 바깥에서 새로 부상하고 있는 주체(emerging subjects)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주로 군대에 관한 비판적 사회과학 연구를 통하여 진행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민주화가 전개되면서 의심을 받지 않아왔던 군대와 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남성-군인-시민으로 전개되는 논리가 가지고 있는 젠더 정치학의 함의와 그것이 구체적으로 일상의 맥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여성주의적인 비판들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핵심 개념은 ‘군사주의’였다[[18]](#footnote-17). 여성주의의 군사주의 비판을 통해 군대 연구는 젠더화된 시민권의 재생산 메커니즘과 군대, 군인, 남성과 관련된 논의들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여성주의가 제기한 문제제기는 크게 두 가지 층위에서 다룰 수 있다. 첫 째는 **시민권의 차원**에서 여성배제가 일어나는 맥락에서의 군대, 군사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두 번째는 군대를 매개로 하여 군사주의가 양산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문제이다.

이를 좀 더 세분화 해보자면, 첫 번째는 징병제 바깥에 위치한 존재들의 시민권 배제 혹은 박탈, 두 번째는 군사주의가 만드는 평화적 운동과 평화적 담론에 대한 억압, 세 번째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군대 내부에서 어떠한 기제로 작동하고, 그러한 군사주의 아비투스를 습득한 남성들이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검토할 것은 시민권의 차원에서의 군대의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징병된 남성들이 수행하는 전쟁에서 여성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므로 군인으로 참전하는 것이 금기가 되었고, 전쟁에서의 전쟁 수행원으로서의 군인 역할을 여성들이 수행하지 않는 것은 여성들의 ‘시민적’ 지휘를 격하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징병제의 탄생과 그 운용은 원초적으로 성역할 분리와 젠더 위계를 만들어내는 젠더 정치학의 맥락과 맞닿아 있다[[19]](#footnote-18)(Enloe, 1983; 하승우, 2008: 29-30). 군사정권기를 통해 확장된 군사주의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부문에서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군대문화를 확산시키고(권인숙, 2005a: 24),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성별화, 남성적 가부장적 지배력의 강화, 여성적 역할의 낮은 가치 평가 혹은 비가시화를 낳는다(2005a: 21). 이러한 구도 안에서 은폐되고 있는 여성은 시민권의 맥락에서 볼 때 여성의 부차화와 (가부장적) 젠더 위계 안에서의 하위 주체로 편입된다(권오분, 2000). 더불어서 법적-정치적 시민권의 측면에서의 문제도 발생한다. 양현아(2009)는 헌법 제 39조 1항의 병역의 의무와 헌법 제 11조 1항 2문의 조문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즉 헌법의 평등권의 조항과 현행 병역법 39조의 1항의 남성을 징병하는 것으로 정해놓은 조항이 상호 배치됨을 지적한다.[[20]](#footnote-19) 헌법에서는 병역의 의무가 젠더와 상관없이 ‘국민’의 의무로서 다루어지는데, 하위법인 병역법에서 (징병제) 병역의 실제적인 대상으로 남성만을 산출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으며, 시민권의 양성평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즉 군대조직에 전투수행에 적절한 신체로서 남성을 상정하는 것은 ‘문화적 관념’에 불과함에도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고, 법적-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때 실질적인 시민권에서도 배제 당한다는 것이다[[21]](#footnote-20)(2009: 87-88).

‘시민권’ 차원에서 여성의 지휘 격하와 관련된 논점들은 동시에 양성징병과 여성의 병역 참여와 관련된 논쟁을 야기한다.[[22]](#footnote-21) 이러한 양성징병, 여성의 병역 참여와 관련된 논의는 단순히 여성도 함께 군대에 가야한다는 주장과 같다고 환원할 수 없다[[23]](#footnote-22). 이미 ‘돌봄 공익’ 같은 방식으로 양성 공히 ‘공공적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징집’을 재편하자는 논의가 존재한다(조한혜정, 2010). 따라서 양성징병과 시민권에 관련해 남는 문제는 양성징병의 내용과 구성, 그리고 그 내부 구조의 위계관계에 대한 재편이 될 것이다[[24]](#footnote-23).

두 번째로 살필 것은 군사주의에 의한 평화 운동과 평화적 담론에 대한 억압이라 말할 수 있다. 평화 운동 진영은 전통적으로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을 수행해왔다. 군사주의와 현대사회의 관계, 그리고 ‘사회의 군사화’와 인권의 측면이 그들의 주요 언급이다(홍성태, 2005: 114-115).

먼저 군사주의와 현대사회의 관계에 대한 분석(김진균 편, 1996)은 실질적으로 군산복합체와 패권주의에 포섭되어 있었던 냉전구도하의 한국의 정치경제적 맥락에 대한 비판을 수행했고, 여성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내부에 있는 군사주의의 잔재에 대한 비판을 수행했으며, 마지막으로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군사문제가 가지고 있는 폭력의 측면을 재조명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과 맞물려서 병역거부와 징병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두되었다. 병역에 대한 문제제기들은 징병제하의 한국군대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김두식, 이남식 등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조명함으로써 현재의 군대가 폭력적인 주체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재의 군대에 대한 시선을 징병되는 대다수 남성들의 시선이 아닌 소수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함을 역설한다. 동시에 정책적인 실천으로서의 ‘대체복무제’를 제안한다[[25]](#footnote-24)(김두식, 2002; 김두식, 2007; 이남석, 2004; 서울대BK21 공익인권법센터, 2002). 한국 징병제의 역사를 재구성했던 임재성(2010)의 논의는 좀 더 급진적 입장을 취한다. 한국의 ‘정상적 제도’로 간주되는 징병제라는 것이 사실은 국가의 훈육적 권력을 통한 ‘본원적 축적’을 통해 완성된 것이었으며 여전히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임재성, 2010).

세 번째 쟁점은 군사주의가, 그리고 그 매개항인 군대가 양산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형성 과정과, 그러한 남성성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효과에 관한 것들이다.

우선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형성 과정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군대가 조형하는 남성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다. 김현영(2001)의 논의는 입대 전 10대 사춘기 중등 교육 내부에서의 젠더화된 인식체계로 시작하여 군생활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군사화(militarization) 양상을 살피고, 어떠한 남성주체가 군복무를 통해 만들어내는 지에 대한 경험연구를 진행했다. 군복무는 먼저 남성들 간의 차이를 삭제하고 **동질화된 군인을 양산**하며, 신체적 우열은 군복무 기간에 위계로 작동하게 된다. 여기에는 또한 (성)폭력과 이 섹슈얼리티의 ‘정상성’ 논리가 개입한다[[26]](#footnote-25)(윤민재, 2008; 권인숙, 2009). 둘째로 동시에 획일적으로 집단화된 남성은 **남자다움의 정의**를 **독점**하면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구축**하고 ‘남성 연대’로 표상된다. 마지막으로 병역의무에 기반을 둔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성중립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국민정체성을 전유하면서 국민을 대표**한다(김현영, 2001: 125-127). 이영자(2005)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후기-구조주의의 ‘주체생산이론’들의 검토를 통하여 미시적으로 살핀다.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호명 메커니즘이 개별 남성을 ‘군인’으로, 그리고 ‘국민’으로 부르며, 이러한 호명 메커니즘은 푸코의 ‘훈육적 권력’에 의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다(이영자, 2005: 87). 이러한 남성 주체들은 일상의 차원에서도 가부장제 메커니즘에 따른 ‘남성 지배’ 실천을 하게 된다. 그리고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사회에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나임윤경(2007)은 남녀공학 성악과의 예를 들어 군사문화가 일상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성애의 관리, 신체의 규율, 제도를 통한 공동체의 재생산, 폭력을 통한 ‘남성적’ 의미화 등이 진행되는 과정이 펼쳐진다. 더불어 이동흔은 군의 경험이 “성차별성을 일반사회에서 재생산해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남녀평등적인 군대문화를 만들” 필요를 주장한다(이동흔, 2002).

그런데 본 논문의 초점과 관련하여서 크게 두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먼저 남성들 간의 차이와 계급,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표상은 국가의 통치전략에 의해서, 그리고 가부장제 시스템(사회경제-문화정치)에 의해서 재생산되기 마련이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언제나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남성들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구현과 탈구를 반복하며,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국면적으로 접합되어있는 것이다[[27]](#footnote-26). 또한 이러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내용도 따져봐야 한다. 신체를 통하여 위계를 작동시키고, 훈련을 통하여 잘 단련된 몸과 훈육에 잘 적응된 몸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몸이 헤게모니를 지닌다는 주장은 남성들 간의 계급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28]](#footnote-27). 이러한 지점은 오히려 좀 더 발본적인 성찰을 할 때 ‘남성성’의 형성의 ‘과정’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가능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29]](#footnote-28).

두 번째로 기존 연구들이 보여주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현재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박노자(2009)의 논의들은 근대 초기에 한국에서의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군인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준다. “훈육되고 군사화된 남성이라는 새로운 모델은 태평양전쟁의 "총동원" 기간 중에 그리고 1945년 이후 남한과 북한의 권위주의적 병영국가들에 의해 겨우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박노자, 2009: 179). 전쟁의 경험들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씩씩한 남자’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30]](#footnote-29). 게다가 ‘교련’으로 대표되는 군사화된 남성을 양산하는 기제는 군사독재 시절에 강하게 관철되었다. 만성화된 정치-테러와 폭력-진압의 양상은 한국에서 군사화된 헤게모니적 남성이 강경하게 알튀세르의 ‘억압적 국가기구’가 직접 개입하는 장에서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31]](#footnote-30). 하지만 지금의 대표적인 군인의 모습은 기존 연구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모습과 다르다. 우선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가 드러내려는 군인의 모습이 다르다. 호전성의 차원만 따지더라도 단적으로 육군 병과 공군 병이 구현해야 하는 몸은 다르다. 또한 최근의 특수한 군대에서 복무했던 예비역들은 권인숙의 연구(2005b)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군생활을 재현하지 않는다. 최근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호전적인 남성성의 구현이 아니라 ‘스펙’을 쌓는 수단으로서의 군대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 여성주의자들의 논의 틀은 현재의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군사주의의 향배를 파악하기에는 미비한 점들이 있다. 첫 째로 이러한 헤게모니적 남성성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남성간의 차이’에 대한 간과이다. 두 번째로 앞서 언급된 균질화된 남성들 간의 ‘평등주의’로 기능했던 ‘남성연대’는 신자유주의적 양상 안에서 양극화된 남성들의 계급 분화로 인해 실질적인 힘을 잃고 있다. 학력, 학벌로 표상되는 청년 세대의 계급 균열은 군생활의 측면에서도 양극화된 맥락을 양산하고 있다(정진성, 2001). 물론 표면적으로 ‘군가산점제 논란’이나 ‘병역 거부’ 등의 문제에 대한 일부 남성들의 사이버테러나 ‘신상털기’ 등은 예전과 다름없거나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단순한 양성간의 이원화된 젠더 정치학의 이슈로 다룰 수 있는 속성만은 아니다(엄기호, 2011). 동년배 집단 남성의 상층부, 즉 고학벌의 남성들은 이러한 이슈에서 오히려 ‘온건’한 입장을 취하거나 ‘진보적’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입장은 남성들의 진보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군대 경험 자체에 대한 계급 간 감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전개되고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조형과 군사주의에 대한 판단은 역사적 맥락과 남성간의 차이를,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동인을 함께 고려하여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32]](#footnote-31).

**1.2.2. 군대개혁과 자기계발하는 군인**

**1.2.2.1. 조직의 관점에서 본 군대개혁**

이 논문은 군대개혁을 한편에서 조직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조직으로서의 군대의 메커니즘과 군인의 경험연구 사이의 매개가 같은 지평에서 함께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대개혁의 논의와, 군인 및 군대 연구는 같은 지평에서 분석되지 않아 왔다.

크게 보아 한국에서 군대개혁은 3가지 차원에서 활용된다. 그것은 군대의 민주화(사회적 요구), 군대의 국방개혁(군대 내부의 요구), 군대와 인적자본개발(국가적 축적 및 교육 전략)에 관한 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군대의 ‘민주화’이다. 베버와 기든스의 논의를 참고할 때 근대국가는 ‘강제력의 독점’이라는 축을 통해서 전개되었다[[33]](#footnote-32). 하지만 징병제에 대한 동의가 그대로 도출되었던 것은 아니다. 어느 국가에서든 주민들은 이러한 징병제의 징집 자체에 동의를 표하지 않았고, 이에 저항하는 투쟁은 일상적이었다(유타카, 2005; 신병식, 2006; 임재성, 2010). 국가는 먼저 이러한 저항에 맞서서 행정체제를 조밀하게 만드는 방식(관료제)을 통해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듦으로써 주민 개개인들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훈육적 권력’(disciplinary power)을 통해 근대적 주체를 조형했다(고든, 1991: 136). 다른 한 편으로는 근대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방식, 즉 징병제를 통한 시민권 획득이라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냈다. 18세기 이후 확장되던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매개된 ‘애국주의’의 신념과 ‘조국방어’이라는 관념은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징병제를 통한 군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명제를 만들어냈다(신병식, 2006: 151). 능동적인 ‘복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법적’이고 ‘강제적’인 폭력을 독점하되 동시에 그것의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당성’의 확보는 합리적인 관료들에 의한 통치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선거 등을 통한 ‘민주적’인 기제를 통해 획득하는 것을 통해 완성된다(베버, 1981: 33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종자 혹은 국민/시민의 능동적인 ‘복종’을 형성할 수 있었다(기든스, 1991: 18). 그리고 그러한 동의는 군복무의 ‘의미화’와도 연동이 된다. ‘의미화’의 차원에는 군대 내부에서의 담론구조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에서 교환되는 ‘상식[[34]](#footnote-33)’의 차원이 또한 중요하다. 예컨대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라는 식의 ‘상식’들이 작동해야만 한다.

2000년대 진행되었던 ‘병영문화개선’이라는 개혁의 목표는 이러한 준거에 기대어 살펴볼 수 있다. 군대의 민주화 논의와 병영문화개선이라는 정책목표는 일차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사회에서 제기된 군대 병사 인권의 문제와 사회적 동의기반의 형성과 결부되기도 하지만, 군대 조직 내부의 민주화 논의와도 결부된다고 볼 수 있다. 표명렬(2003)은 현재의 한국군이 ‘노예 같은 복종’을 요구하고, ‘자발적 동기부여’가 불가능한 조직이라고 설명한다. 한국군대의 역사가 독립군의 전통이 아니라, 만주군과 일본 육사 출신이라는 ‘역사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표명렬은 군대의 ‘독립군적 전통’을 다시 세우고, 냉전적인 방식으로 설정되어있는 ‘주적’ 개념들을 다시금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동흔(2002)은 양성불평등적인 조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양성평등’적이며 의사소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군대 민주화의 핵심으로 설명한다.

두 번째는 군대의 인적자본개발을 중심으로 한 논의이다(박효선, 2010). 인적자본개발과 관련된 논의들은 동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국가인적자본개발의 견지에서 군대를 ‘**학습조직**’으로 재편하는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 기반을 인프라 구조에서 갖추는 문제와 조직에서 어떻게 학습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함께 아우르고 있다. 또한 군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논의는 징병제의 사회경제적 동의기반을 만들어내는 것과도 연동이 된다. 징병제의 동의기반은 정치적, 헌법적 합의에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사회경제적 층위에서의 광범위한 축적 시스템과도 연동이 되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정치적 층위와 그리고 사법적 층위에서의 ‘시민권’ 합의에 의해서만 징병제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태의 사회경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징병제에 참여하고 동의한 것이다(김동춘, 2000: 46-47).

이러한 사회경제적 동의는 두 가지 방식에서 구축된다. 첫 째는 군복무후 그에 대한 보상이다. 이는 군대에서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제대 후에 물질적으로 해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한국의 군가산점제가 그러한 보상 제도였다[[35]](#footnote-34). 하지만 이러한 방식만을 운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질적 보상과 개개인의 남성들이 군복무를 통해 느끼게 되는 ‘손실’은 다른 층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며 1:1 대응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보상만으로는 군대에서의 교육-훈련에 의한 성과를 가치절하하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군복무 자체를 사회적인 노동시장의 직업교육 시스템과 호환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군복무의 훈련-교육 시스템을 통해 남성들이 획득하게 되는 지식(형식지(explicit knowledge), 암묵지(tacit knowledge))(김영걸, 2003)[[36]](#footnote-35)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인준해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형식지의 차원에서 군대 교육의 성과(국가공인자격증 등)와 노동시장의 고용시스템을 연동함으로써 군복무 자체가 ‘손실’로 환산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회경제적 동의를 구축하는 과정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전략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문승숙, 2007; 조희연, 2010).

마지막 세 번째는 ‘국방개혁’에 관한 논의이다. 국방개혁의 논의는 대체로 작전능력 수행에 적절한 형태로 군이 개편되는 것과 혁신적인 무기체계의 도입에 관한 논의들이 주가 되며, 이러한 논의의 전개는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선진국’의 국방개혁모델의 도입 논의와 연쇄되어 진행된다. 요컨대 이들의 국방개혁의 구상은 직업적인 ‘프로페셔널 군인’의 군대이면서 ‘첨단무기’체제를 갖춘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지만원, 1992; 이선호, 1992; 민진 외, 2005; 홍성표 외, 2006; 김종하, 2010).

군대개혁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2000년대에 전개된 한국의 군대개혁에 있어서 이 세 가지 과정 모두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즉 군대개혁이 쟁점이 되던 민주화 이후의 시기에는 한 편에서 군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대응들(병영문화개선)이 진행되었지만, 동시에 다른 한 편에서는 군의 합리화를 통한 작전능력의 향상과 안보역량의 증진 및 첨단화(국방개혁 2020)에 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또한 국가적으로 진행되던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프로젝트 안에서 군대(국방부)는 예외가 아니었다.

한정된 자원의 측면과 각각의 목표가 제기하는 방향자체가 충돌할 수 있고, 최종적인 군대의 조율역량(capacity of coordination)에 따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군대의 근원적 목표와 관련된 층위에서 각각의 목표 간에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군대개혁에 관한 논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논점은 상부의 목표(구상)와 일선 부대에서의 실천, 개별 군인들의 실천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료제에 관한 조직 이론의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조직 목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성되지 않을 수 있고,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특히 미시적 조직행태론(OB: Organizational Behavior)의 접근에 따르자면 조직 목표 달성, 군대개혁의 달성은 그 자체로 부단한 일선 부대와 상부와의 상호과정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일사분란하게 한 번에 완성될 수 없다. 또한 상부에서 개혁의 달성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하부 조직에 기대하지 않은 방향의 영향(자기충족적 예언)을 미칠 수도 있고, 구성원들은 이에 대해서 표면상 드러나는 태도와 실질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화의 과정의 이중 잣대를 드러낼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검토할 때 군인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개혁의 맥락을 드러내는 것은 군대의 개혁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석이라 볼 수 있다.

실제 신윤호(1994)는 항공대학교 학군단 문화를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연구함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군대(조직)문화와 그에 통합되지 않고 분화되어 있는 하위문화의 복잡성을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통하여 드러낸 바 있다. 한 명의 장교후보생으로 학군단원들은 정체성을 부여받지만, 실제로는 학과별로 다른 정향을 가지고, 부여받는 병과의 차이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문화를 만들어 낸다. 또한 학군단원들은 상관인 훈육관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순하고 잘 훈련된 장교 후보생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자신들만의 문화를 통하여 그러한 지침들을 무력화하는 다양한 하위문화적 기제를 작동시킨다. 실제 장교가 되는 순간에 자신들의 선임이자 상관인 훈육관에 대해 ‘형’ 같은 호칭을 쓰면서 비공식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는 군대문화와 군대에서 벌어지는 개혁 과정 등이 공식적 목표와 달리 실천의 장에서는 왜곡되거나 변형될 수 있음을 잘 드러낸다.

이 논문에서는 역시 엘리트 남성들의 경험을 통해 군대의 개혁을 살피기 때문에 경험연구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군대의 개혁의 3가지 과정 중 병영문화개선(인권)의 측면과 군 인적자원개발(자기계발)의 진행에 초점을 맞춘다. 엘리트 남성들의 군대 경험이 인권의 문제(전반적인 병영문화와 자기 시간확보 및 인신구속 문제로부터의 자유)와 군 인적자원개발 실현(학습조직으로서의 군대)이라는 측면의 군대개혁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37]](#footnote-36).

**1.2.2.2. 군인의 자기계발 –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자기계발 전략의 배경**

본 논문의 연구 참여자 집단인 소수의 유학생 그룹과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남성들은 애초에 신자유주의적 경쟁 논리를 아비투스로 각인하고 있는 세대의 남성들이다. 이들의 자기계발하는 군생활에 대해 살펴보려면 신자유주의 주체화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신자유주의 주체화를 추동하는 구조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헤게모니 구성에 있어서는 산업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 규제하고 있었던 금융에 대한 규제의 해체와 금융 자본주의의 헤게모니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전개되기 시작했다(스트레인지, 2000: 16, 63). 이러한 헤게모니 이행에 따라서 기업의 의미는 변화하게 된다. 기업은 더 이상 사회에서의 의미 있는 생산[[38]](#footnote-37)을 하는 기능, 즉 폴라니의 언급처럼 ‘사회에 착근한(socially embedded)’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폴라니, 2009). 기업의 의미는 반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금융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전환된다. 이는 동시에 사회적 효과를 만든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사회구성원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다. 반복되는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 그를 통한 실직 사태. 다른 한 편에서는 노동의 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의 양산이 연이어서 진행되고 이러한 상황들은 ‘쇼크’를 전 사회적으로 만들어냈다(클라인, 2008). 산업 자본주의 헤게모니하의 ‘무거운’ 노동은 유연화된 금융 경제에 적절한 ‘유연한’ 노동으로 전환되고, ‘무거운 근대성’의 상황은 후기 근대적 ‘유동적인 액체 근대’ 상황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바우만, 2000: 45-47).

다른 한 편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재조정된다[[39]](#footnote-38).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낙오자’는 ‘쓰레기’로 분류되어 버려져도 되는 존재로 분류되어 표류하게 되며, 국가의 역할은 이들을 다시 사회로 진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외’로 규정하게 되고 ‘잉여인간’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것이 되었다(바우만, 2008: 32). 그리고 모든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의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된다(바우만, 2010:11).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상황에서 조직 논리 역시 변하게 된다[[40]](#footnote-39). 기존의 관료제는 전반적인 조직모델의 롤 모델에서 이탈하고, 대신 ‘팀제 노동’을 통한 ‘MP3형 조직’이나 ‘애드호크라시(adhocracy)’(세넷, 2006:62; 토플러, 1989) 등의 조직으로 변형된다. 모든 조직에서 위계보다는 ‘능력주의’가 관철된다. 젠더, 연령 등은 중요하지 않은 요인이 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인재들에 대한 요청이 동시에 늘어나게 된다.

두 번째로 이러한 상황에서 전개된 신자유주의 ‘문화 논리’이다. 신자유주의 ‘문화 논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전개된다. 첫 번째 측면은 ‘강제’의 측면이다. 모든 개인은(기존의 ‘사회 구성원’)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정언명령’ 속에서 살게 되며, 자기를 ‘기업가정신’을 가진 주체로 만들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서동진, 2009a: 49). 두 번째 측면은 ‘자유’다. 신자유주의 논리는 단순히 사회경제적 상황을 통한 ‘압박’만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주체들을 만들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문화 논리는 개인의 ‘자유’를 주창한다. 개인의 ‘선택’의 자유, 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추구할 자유를 주창한다(김현미·김고연주 외, 2010: 8). 그러한 ‘기업가정신’과 ‘자유’를 몸으로 구현하는(해야 하는) 주체가 바로 “브랜드-유”, “나-주식회사”의 기업가인 신자유주의 자기계발하는 주체인 것이다(서동진, 2009a: 300-301). ‘자유주의적 정신(a liberal ethos)’과 ‘더 나은 삶에 대한 비전’이 역사적 뿌리가 있고 이것들이 한국인들의 일상과 정치적 삶으로부터 설명력을 지녔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문화 논리가 관철되고 국가의 강력한 신자유주의 드라이브가 가능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Song, 2006: 55-56; 알프레두 사드-필류·데버러 존스틴 편, 2009: 114).

현재 20대 남성들은 10대의 한복판에서 1997년의 ‘IMF 구제금융 사태’를 접하고 한국사회가 급격하게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세대를 ‘신자유주의의 자식들’(우석훈, 2009: 57)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들은 6차 교육과정 후반과 7차 교육과정을 거친 세대이며 ‘열린 교육’의 대상이기도 했고, 다른 한 편에서는 ‘사교육 시장’의 활황기에서 입시 전쟁을 겪은 주체들이다. 게다가 ‘명문대’ 출신인 이 남성들은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상황 속에서 매 상황 처하게 되는 ‘경쟁’의 구도 안에서 ‘승리자’로서 자리매김해온 존재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높은 학습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자발적으로 입시 공부에 전력을 다 하고 자신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학원에 보내달라고 부모를 조르기도 해보았던 세대이다(조한혜정, 2009).

이 논문의 연구방향에서 다시 이들을 해석하자면, 입시 경쟁의 메커니즘이 그대로 ‘입대 경쟁’의 메커니즘으로 전이(transition)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입시 경쟁에서 승리를 했던 노하우는 점차 ‘예외’로 간주되었던 입대와 군복무라는 상황에도 적응하면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틈새를 만들고 있다.

세 번째, 학벌로 표상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계급(class), 가족 전략의 차원이다. 이 논문에서는 엘리트 남성들의 조건의 변화와 전략적 실천이 어떻게 지금의 자신들의 입대준비와 군복무 전략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지 탐색한다. 단순히 자기계발을 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하는지를 포괄하는 경험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전략적 실천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통치성’이다. 통치성은 “개인이 행하는 것과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책임지는 지도의 권위에 개인을 종속시킴으로써, 개인 삶의 전면에 걸쳐 개인을 통솔하는 임무를 띤 활동[[41]](#footnote-40)”이라 할 수 있다. 서동진의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2009)는 통치성 연구의 스타일로 한국사회에서의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을 탐구한 적이 있다. 서동진은 ‘담론’, ‘테크놀로지’, ‘주체화’라는 기준을 분석적 개념으로 벼려내어 이를 토대로 실제 비평 혹은 분석을 해내었다. 푸코의 통치성 연구 방식은 실제 남성들의 군대에 대한 경험 분석을 할 때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통한 분석에 대해 여러 가지 난점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통치성에 기반을 둔 연구들이 구체적인 ‘경험’의 문제에서 취약하다는 것이다. 곽중현은 “통치양식 연구의 대부분이 담론과 프로그램 분석에 집중함으로써 구체적인 경험적 실천[[42]](#footnote-41)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곽중현, 2009:p.8)과 “기존의 통치양식 연구들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대상의 특수성을 무시해왔다는 점”(곽중현, 2009:p.9), 그리고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의 부재”라는 난점을 가진다고 주장한다(곽중현, 2009:p.10)[[43]](#footnote-42). 두 번째로 이러한 엘리트 남성들의 ‘승리’를 개별적 주체로서의 현재의 청년세대 내부의 ‘개인’들만의 전략의 결과로 환원할 수 없다. 자기계발하는 군인들의 배경에는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엄마 조력군’이 버티고 있다. ‘엄마’는 단순히 아이에 대한 의식주의 조력자인 것이 아니라, 아이를 ‘인적자원’으로 만드는 투자자이며 경영자, 그리고 ‘가족 기획자’이다(Foucault, 2008:229-230; 박소진, 2009:25-26; 박혜경, 2008:128-137). 자기계발 담론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문화 논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문제화하고, 자신의 ‘기업가적 자아’를 통해서 자유로이 선택하고 그 책임을 지라고 명령하지만, 실제로 아무런 ‘보호망’조차 없이 ‘쓰레기’로 전락될 수 있는 상황을 엘리트 남성들, 그리고 그들의 '엄마'들 역시 간파하고 있기에 신자유주의 세계에서 생존 전략은 결과적으로 ‘가족전략’이 되고 그 기획자로서 '엄마'가 대두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남성들의 자기계발이 드러나지만, 그 심층에는 가족의 계급-재생산 혹은 사회적 지위에서 탈락하는 것으로부터의 회피 전략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략실천의 층위에서도 청년세대 남성들 간의 개체화된 경쟁이 벌어진다고 전제할 수 없다. 동질화된 계급이나 집단 안에서 전개되는 한국사회에 고유한 남성들의 인맥 혹은 학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엘리트 남성의 표상이라는 문화적 기호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엘리트 네트워크 내부의 결속, 그리고 군대의 인력 분류가 빚어내는 ‘할당 효과’(부르디외, 2005:60)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결속력 역시 발견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작동하는 ‘학벌사회’(김상봉, 2004)의 경향은 단순히 개체화된 존재로 엘리트 남성들을 엮어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하나의 ‘집단’으로서 엘리트 남성의 파악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 엘리트 남성들은 대학-군대, 다시 대학-취업으로 이어지는 20대 생애주기의 ‘커리어-패스’(career-path) 안에서 자신의 삶을 기획해야 하고, 어떠한 고리에서도 경쟁에 방해가 되는 상황은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계급재생산(윌리스, 2004)이라는 ‘가족 전략’의 자장 안에서 그러한 개별적 전략을 수행한다. 또한 자신들과 동질적인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결속력 있는 연고 집단 내부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부르디외, 2005: 270)를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서 군대가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개별화된 방식의 자기계발이 어떠한 맥락에서 작동하는지는 입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제3절 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

**1.3.1. 연구 방법**

이 논문은 자기계발하고 있는 새로운 군인들에 대한 탐색을 위하여 2000년대 이후 군생활을 했던 남성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기본적으로 문화연구-인류학적 연구에서의 질적 연구방법론은 참여관찰과 심층면접 등을 활용한 현장연구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곤 한다. 하지만 분단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층위의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는 비밀을 유지하고, 공개적인 관찰을 허가하지 않는 한국군의 현재 상황 때문[[44]](#footnote-43)에 참여관찰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여 수행하지만 참여관찰은 연구 기간 동안 수행하지 않았다.

심층면접의 경우 눈덩이표집(snowballing)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한 편 군대의 인사장교와 홍보를 맡았던 예비역 장교출신들을 SNS와 주변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았다. 심층면접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총 21명이다. 심층면접을 진행할 때 1:1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몇 가지의 제약 때문에 1:1의 심층면접의 수행이 어려울 때는 1:2로 함께 면접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심층면접은 대체로 1회당 1시간 30분∼2시간 정도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을 진행할 때 연구자는 두 가지 방식의 질문을 던졌다. 먼저 몇 가지의 구조화된 연구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연구 참여자가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수행했고, 이는 구조화된 질문이 연구의 필요상 가장 긴요하다고 연구자가 파악했기 때문이다. 질문을 할 때 필요할 경우에는 그 질문에 대한 부연설명을 했다(<부록1>). 두 번째로, 연구 참여자의 심층면접 도중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을 묻기도 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맥락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대체로 연구자는 구조화된 방식의 질문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였지만, 맥락에 따라서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유도했다. 하지만 초창기 시도했던 심층면접에서 연구자가 심층면접에 숙지되지 않아 조급하고 미숙하여, 질문 거리를 풍부하게 못해 묻지 못했던 부분, 연구 참여자의 맥락을 연구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간과했던 부분, 그리고 시간 부족으로 충분히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고 2011년 3월부터 보강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보강인터뷰는 총 4명에 대해서 진행했다.

다른 한 편 군대에 대한 미디어 담론을 분석하였다. 군대(개혁), 군인과 관련된 미디어 담론의 분석을 위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http://newslibrary.naver.com/>)에서 제공되는 동아일보, 매일경제, 경향신문, 한겨레의 기사(∼1999)를 검색하고, 그 이후시기에 대해선 네이버 뉴스 검색 엔진을 활용했다. 또한 국방일보(<http://kookbang.dema.mil.kr/>)에 등장하는 기사들 역시 분석에 활용했다. 이러한 미디어 담론 분석은 그 자체로 고정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심층면접에 등장한 자료들과의 교차-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의 맥락을 드러내려 했다.

**1.3.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의 기준은 먼저 육군-전투병으로 대표되는 한국사회의 다수를 이루는 군생활을 했던 남성들이 아니라, 공군, 의무소방, 카투사, 통역병 등으로 군생활을 수행했던 엘리트 남성들이다. 이들은 ‘고학벌’의 ‘명문대’ 대학재학생들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에서 군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2000년대 군대를 조망하려 한다.

<표 1> 연구 참여자[[45]](#footnote-44)

|  |  |  |  |  |  |  |
| --- | --- | --- | --- | --- | --- | --- |
|  | **나이** | **출신 대학교 및**  **현재 재학 중인 학교 및 학과** | **거주 지역 및 성장 지역**  **(다를 경우만 표기)** | **군대 경력** | **복무기간** | **특이사항** |
| A | 23 | A대 전자공학과 휴학 중 | 경기도 분당 | 의무소방 현역 | 2010.4~ |  |
| B | 27 | B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기도 남양주시(서울시 종로구에서 성장) | 의무소방 전역 | 2006.5~2008.5 | 대학원 진학 준비 중 |
| C | 27 | A대 심리학과 재학 중 | 서울시 서대문구(전라북도 전주에서 성장) | 의무소방 전역 | 2007.4~2009.5 |  |
| D | 26 | A대 법학과 휴학 중 | 울산광역시 동구 | 카투사 전역 | 2009.11~2011.9 |  |
| E | 26 | A대 사회학과 재학중 | 서울시 서대문구(충청남도 천안에서 성장) | 카투사 전역 | 2008.2~2009.12 |  |
| F | 31 | A대 사회학과 졸업 | 경기도 용인 수지(전라북도 전주에서 성장) | 카투사 전역 | 2003.9~2005.10. | 외국어 고등학교 졸업 |
| G | 30 | A대 법학과 학부 및 대학원 졸업 | 서울시 마포구(독일에서 성장) | 육군 통역병 전역 | 2003.6~2005.7 | 독일에서 중고등학교 졸업, 현재 자취 |
| H | 27 | A대 대학원 재학 중 | 서울시 서초구 | 육군 행정병 전역 | 2006.8∼2008.8 | A대 졸업 |
| I | 27 | A대 교회음악과 재학 중 | 서울시 서대문구 | 육군 행정병 전역 | 2005.9~2007.9 |  |
| J | 26 | A대 사회학과 재학 중 | 경기도 안산시 | 상근 예비역 전역 | 2007.3~2009.2 |  |
| K | 30 | A대 대학원 재학 중 | 서울시 서대문구(부산광역시에서 성장) | 상근 예비역 전역 | 2002.11~2004.12 |  |
| L | 26 | A대 행정학과 재학 중 | 서울시 서대문구(부산광역시에서 성장) | 공군 헌병 전역 | 2006.2~2008.5 |  |
| M | 29 | C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서울시 강남구 | 공군 전산병 전역 | 2004.12.~2007.3. | 현재 출판사 에디터 |
| N | 29 | A대 대학원 재학 중 | 서울시 동대문구(충청남도 대천에서 성장) | 육군 보병 전역 | 2005.11~2007.11 | B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 O | 25 | B대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 | 서울시 강남구 | 육군 보병 전역 | 2007.12∼2009.11 |  |
| P | 24 | B대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 | 서울시 광진구(부산광역시에서 성장) | 육군 운전병 전역 | 2008.8∼2009.2 | 국가 유공자로 판명되어 조기 전역 |
| Q | 30 | A대 대학원 재학 중 | 서울시 영등포구 | 해군 대위 전역 | 2002.3∼2011.2 | 해군사관학교 제대. 현역 복무시 공보업무. |
| R | 30 | A대 대학원 재학 중 | 서울시 노원구 | 육군 대위 전역 | 2005.3~2009.2 | 현역 복무시 교육 장교 |
| S | 28 | A대 대학원 재학 중 | 서울시 서대문구(제주도에서 성장) | 해병대 중위 전역 | 2007.3~2010.6 | 해병대 2사단 포병 장교 복무 |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대학입학 수학능력평가·고등학교 내신 상위 1% 이내의 성적을 가지고 있을 때 입학할 수 있는 서울 소재 ‘명문대’를 재학하다가 혹은 졸업하고 ‘다른 군생활’을 수행했던 엘리트 남성들이다. 다른 경우 의무소방에서 군생활을 했지만 ‘명문대’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B의 경우)도 심층면접의 풍부함을 위하여 포함했다. 동시에 ‘명문대’생이지만 육군에 입대하거나, 상근 예비역 출신 남성들(J, K의 경우)에 대해서도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또한 ‘명문대’가 아닌 학교를 나와 육군-전투병으로 군생활을 수행한 남성들(N, O, P의 경우)이 있다. 이들의 경험은 ‘다른 군생활’을 수행한 남성들과의 대조군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 중 A의 경우는 현역병이고 나머지는 모두 군생활을 마치고 예비역 혹은 향토방위, 민방위 체제로 편입된 전역한 남성들이다.

심층면접을 하면서 연구 참여자들과 연구자의 관계 형성(rapport)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는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하게 만든다. 우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상호간에 ‘남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심층면접과 상호이해가 수월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들과의 심층면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어떠한 남성성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거나 거북해 했다. 전통적인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간주되는 것들에 대한 판단을 물어볼 때 그들은 한결같이 “마초 새끼들”이나 “요즘에도 그런 남자 애들이 있나요?” 같은 방식으로 그것들을 비난하거나 낯설어하며 자신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른 남성’이라는 연대감으로 관계 형성이 수월했을 수도 있다.

이는 두 가지 준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이 ‘말 통하는 애들’이라고 부르는 집단 안에서 연구자를 인지해서일 수가 있다. 이는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학벌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세대일 수도 있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의 정치적 지향의 유사함일 수도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요소는 아니었고 연구 참여자들의 성향, 관심사 등에 따라서 한두 가지가 중첩되곤 했다. 두 번째로는 군대에 대한 비판적 태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많은 예비역은 ‘의무’와 ‘희생’으로 승화시켜 자신의 군생활을 이야기한다(김현영, 2001). 하지만 연구자가 만났던 연구 참여자들은 그러한 군생활의 ‘의무’와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었다. 이들은 외려 군생활의 피해에 대해서 이전의 연구에서 보여주었던 남성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동시에 국방부 자체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는 데 별로 주저함이 없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주로 ‘민주 정부’ 시기에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녔던 경험과도 연동될 수 있다고 보며, 그 전의 세대였던 ‘신세대’들이 가졌던 가치 정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이미 중등교육의 현장에서도 휴대폰 카메라로 교사의 폭력을 찍어서 UCC로 인터넷에 올리곤 했던 세대 구성원이기도 하다. 다른 한 편 ‘명문대’라는 자원에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연구 참여자 집단은 장교 복무를 했던 남성들이다. 먼저 현역 장교로 군의 공보 업무를 담당했던 Q이 있다. 그는 2008년부터 정훈 장교로 복무하면서 군의 개혁 정책 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참고적인 정보를 들려주었다. 그는 2001년 통상 서울 소재의 ‘비명문대’로 분류되는 한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고등학교 때까지 읽어왔던 전쟁사와 군사정권 군인들의 비망록들의 영향으로 ‘진보적 군인’이 되겠다면서 해군사관학교에 입대했다. 하지만 해군에서는 Q이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을 펼칠 수 없다고 말한다. 일단 해군에서 ‘진보적 군인’으로 자신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려면 장군으로 진급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해군에서 장군 진급을 하려면 가장 많은 장군 보직을 가지고 있는 항해병과를 유지해야한다는 점이었다. 그는 배타는 것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업무보다는 ‘미디어’를 다루거나 ‘사회과학적’인 것을 다루는 업무를 더 하고 싶어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그는 2008년 정훈 장교로 자신의 병과/특기를 바꾸고 업무를 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 지점에서 좌절하게 된다. 그것은 먼저 정훈 업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약 때문이었다. 전투 중심으로 편성되어있는 군의 업무에서 정훈 업무는 ‘보조적’일 수밖에 없었고, 늘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이는 동시에 자원 배분의 문제이자 개인의 진로·생애 설계의 벽이기도 했다. 그는 끊임없는 평생 교육과 민간대학 위탁 교육을 바랬지만 정훈병과로 할당되는 인원은 거의 없었으며, 그나마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그 인원은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두 번째로 바로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Fight Tonight’이나 ‘전투형 부대’ 등이 중심 되는 상황에서 정훈홍보 업무의 초점도 변화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견디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Q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향과 가치관 때문에 군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 그는 2011년 전역을 선택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R의 경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육군 대위로 복무하였다. 일선 부대의 포병 장교로서 병사들의 관리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다른 한 편 대위로 진급하면서 부대의 교육 및 인사담당을 수행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의 경험은 한참 군대개혁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일선 부대에서 발생하였던 일들에 대해 적절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세 번째로 S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병대 중위로 복무하였다. S는 R와 마찬가지로 해병대 포병 장교로 근무하면서 병사들의 관리를 수행했고, 동시에 ‘병영생활 명랑화’(육군과 공군의 경우 ‘병영문화개선’)가 진행되던 2009년의 분위기와 2010년 ‘작전’이 강조되던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차이에 대해 민감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S는 한 명의 ‘자기계발하는 군인’으로서 대학원 입시에 필요한 공부를 수행하고, ‘원서’(영어책)를 읽는 것에 몰두했던 경험이 있다.

제2장 2000년대 한국군 개혁의 맥락과 전개

제1절 사회적 맥락

이 절에서는 한국군 개혁의 사회적 맥락의 두 가지 측면을 검토한다.

먼저 민주화 이후에 벌어졌던 군대에 대한 개혁 운동과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적 운동 흐름이다. 지금까지 ‘성역’으로 사회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군대의 비민주적 행위양식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진행되었고, 동시에 군대가 사회에 끼친 영향(군사주의)에 대한 비판적 운동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군인에 대한 다른 방식의 의미 부여와 군인 주체성 재현의 변화이다. 한 명의 ‘성인 남성’으로 자리매김하던 군인들은 이제 누군가의 아들로, 친구로, 애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스스로 지켜야 하는 ‘책무’에 대한 관점보다 ‘보호의 대상’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의 흐름들은 결합하여 군대에 대한 사회적인 개혁의 요구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요컨대 군대와 군인에 대한 사회적인 ‘상식’이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며, 이러한 ‘상식’의 전환이 군대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2.1.1. 민주화 이후, 군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확산**

한국의 경우 1장에서 언급했던 서구 사례와 같이 합의 혹은 계약을 통한 징병제의 운용을 한 것이 아니었고, 서구에 비해서 훨씬 더 징병제의 사회적 동의기반이 취약했다. 즉 군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틈새가 좀 더 광범위했다. 근대 국가 형성 이전인 일제 말기 태평양 전쟁 시기의 ‘총동원령’에 대한 강한 반감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이러한 징병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나타냈다(임재성, 2010: 396).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이 공포되었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거부감을 달래야 했다(임재성, 2010: 397). 게다가 미군이 동아시아 전략상으로 한국군의 병력은 10만으로 동결되었고 실제로 ‘징집’ 자체는 광범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징병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된 계기는 바로 한국전쟁 때문이었다. ‘가두징집’과 ‘강제징집’이라는 방식들로 한국의 남성들은 곧 바로 폭력적 입영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전쟁 종료 이후 한국의 남성들은 ‘저항’을 하기 시작하였다. 저항은 징병제 자체에 대한 집합적 거부가 아니라 개별적인 ‘병역기피’였다. 실제로 1968년 이전까지는 이러한 병역에 대한 기피는 일상적이었다(신병식, 2006: 157; 임재성, 2010: 400). 다음 <표-2>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표 2> 병역기피자 단속 통계[[46]](#footnote-45)

|  |  |  |  |  |  |
| --- | --- | --- | --- | --- | --- |
| 1950년대 | | 1960년대 | | 1970년대 | |
| 1951 | 175,913(14.5%) | 1959 | 31% | 1970 | 34,004(13.2%) |
| 1952 | 182,166(17.2%) | 1960 | 35% | 1971 | 21,022(7.8%) |
| 1953 | 294,979(21.4%) | 1961 | 27% | 1972 | 12,795(4.4%) |
| 1954 | 114,157(15.1%) | 1962 | 6.9% | 1973 | 3.1이전 7.4(2%) |
| 1955 | 57,825(16.8%) | 1963 | 10.2% | 1973 | 3.1이후 902(0.3%) |
| 1956 | 87,748(15.3%) | 1964 | 14.4% | 1974 | 234(0.1%) |
| 1957 | 138,723(19.7%) | 1965 | 22.9% | 1975 | 53(0.03%) |
| 1958 | 247,259(26.8%) | 1966 | 22.6% | 1976 | 31(0.01%) |
| 1959 | 72,923(15.9%) | 1967 | 19.5% | 1977 | 26(0.008%) |
|  |  | 1968 | 13% | 1978 | 12(0.004%) |
|  |  |  |  | 1979 | 13(0.001%) |

이러한 병역에 대한 기피는 곧 이어 박정희 정부의 통치-테크놀로지와 담론의 유통을 통해서 사그라지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1962년 5월 10일 주민등록법을 공표하고, 1969년 3월 11일에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처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통치-테크놀로지의 작동과 더불어 ‘병역미필자’를 ‘병역기피자’로 명명하고 ‘병무비리’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수행했다. 동시에 1972년의 10월 유신 등이 벌어지면서 사회 전면적으로 억압적인 분위기가 창출되면서 ‘병역기피자’의 수효는 순식간에 줄어들었다(신병식, 2006: 162). 즉 징병제의 ‘정상적’ 운영은 일차적으로 ‘병역제도 외부’을 축소시키고 그 영역을 ‘비정상화’시키는 과정의 ‘억압적 국가기구’의 작동으로 진행되었다[[47]](#footnote-46).

1980년대부터는 민주화 운동[[48]](#footnote-47)의 전개를 통해 군대의 억압적 차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먼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군부 세력에 대한 학생 운동권의 반대가 시초였다. 1980년대 학생운동 진영은 당시 광주 민중항쟁과 그 이후 학살의 책임을 물으면서 군부정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고, 그중 몇몇 분파는 전두환 정권의 성격을 ‘미제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한국군을 ‘미제 파쇼 군대’로 규정하기도 했다. 1986년 민족해방파(NL:National Liberty) 운동권 대학생들에 의해 ‘양키 군대 입대 거부[[49]](#footnote-48)’와 전방부대 입소 교육 거부 투쟁[[50]](#footnote-49)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른 한편에서 반핵운동이 전개되면서 냉전구도하의 패권적 군사운용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기도 했다(리영희, 1988).

그러나 이러한 운동들은 대체로 국가권력 일반에 대한 진단에서 시작되었고, 군대 내부의 문제, 군사화된 사회의 문제(군사주의)를 지적하는 것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일차적으로 이들 학생 운동권과 재야를 포괄하는 ‘민족민주운동[[51]](#footnote-50)’의 목표는 군사독재로 전개되고 있던 전두환 군부정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징병제하의 군대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기보다는 특수한 정치적 국면에서의 군대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1987년 6·29 선언이 발표되고 직선제를 통하여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전두환 정권이 퇴진하면서 군대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함께 사그라졌다[[52]](#footnote-51).

적극적으로 군대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러한 흐름에는 크게 보아 2가지가 존재한다.

먼저 평화운동의 흐름이다. 최초의 평화운동[[53]](#footnote-52) 단체인 1997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발족되고 군대 자체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최초에는 ‘군대 폐기’라는 급진적 논리가 전개되었으나, 차츰 구체적 개입에 따라서 방위비 삭감, 군 예산비리, 군대개혁 등의 이슈 등에 대해 개입이 시작되었다(문소정, 2009: 284). 또한 이들은 ‘인지적 실천’[[54]](#footnote-53)의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유포되어 있는 군사주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더불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1998년), ‘평화네트워크’(1999년),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1999년), ‘평화인권연대’(1999년) 등이 창립되면서 군대에 대해서 발본적인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정욱식, 2004: 221). 평화운동 단체들은 징병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군비축소 운동, 반핵 운동, 대인지뢰제거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운동’의 흐름들은 대중적인 ‘성과’로 잘 나타나지 않았다. 여전히 한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반공주의가 너무 강고하고, 군대의 문제가 ‘전문가’ 중심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보수적인 언론의 풍토가 강했기 때문이다(정욱식, 2004: 225).

두 번째로 군대 내 병영문제의 사회적 재조명이다. 군대에 대한 비판적 흐름은 주로 병무비리와 군대에서 벌어지는 의문사 등이 공개되면서 촉발되었다. 1987년 이전까지 군부독재 치하에서 ‘성역’으로 간주되어 은폐되었던 군대 내부의 문제들과 사건들이 신문과 방송에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표 3> 신문의 1980년대∼90년대 병영문제 관련 보도[[55]](#footnote-54)

|  |
| --- |
| 1988년 12월 31일 한겨레 “아들 · 딸 억울한 죽음 밝혀 달라”  1989년 1월 28일 한겨레 사설 “의문사한 아들과 옥에 갇힌 두 어머니”  1990년 7월 21일 경향신문 사설 “병무행정의 치부”  1991년 10월 2일 한겨레 “차가운 바닥서 고통 나누고자-농성중인 군인·전경 수속·수배자 가족 글”  1991년 11월 6일 한겨레 “군대 사망사고 책임회피만 급급”  1992년 2월 1일 동아일보 “"유전면제-무전현역" 소문 사실로”  1992년 2월 1일 한겨레 “병무청직원 거액 병역부정”  1992년 4월 9일 경향신문 “군의 명예를 지키는 길”  1992년 4월 17일 동아일보 “아들 용기 자랑스럽다”  1993년 4월 18일 동아일보 투고 “지도층자녀 병역비리 철저조사 옥석가려야”  1994년 9월 29일 동아일보 “문민군대 군기 빠졌나? 장교 무장탈영 충격”  1995년 1월 12일 경향신문 “해이해진 군 기강 치유책 서두를 때”  1996년 6월 8일 한겨레 투고 “병사들 잇단 죽음계기 ‘국민의 군대’ 거듭나야”  1996년 7월 28일 한겨레 사설 “군인의 떼죽음과 불안한 부모들”  1996년 10월 3일 경향신문 사설 “군 기강이 이래서야”  1997년 2월 10일 한겨레 “휴가 중 사병 집에서 자살”  1998년 12월 12일 한겨레 사설 “군 의문사 모두 규명해야”  1998년 12월 14일 경향신문 “왜 군 의문사는 모두 '자살인가...''제발 죽음의 진실만이라도...'”  1998년 12월 12일 한겨레 사설 “군 의문사 모두 규명해야”  1998년 12월 14일 경향신문 “왜 군 의문사는 모두 '자살인가...''제발 죽음의 진실만이라도...'” |

80년부터 96년까지 16년간 군복무중인 장병 중 9천명이 사망했다. 하루에 2명꼴이었다. 1996년 7월에 벌어졌던 전방부대의 사격장 총기난사 등 이러한 청춘들의 죽음을 통해 군대는 지속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군인의 인권이 범사회적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했다[[56]](#footnote-55).

또한 1997년의 이회창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병역비리 사건 등이 벌어지면서 군대와 병무행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면제는 신의 아들, 6개월 방위는 장군의 아들, 18개월 방위는 사람의 아들, 현역 복무는 어둠의 자식”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유포되었다[[57]](#footnote-56). 억압되어있는 군대 현장의 보도와 병무비리를 저지르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분노가 여론을 지배하기 시작했다[[58]](#footnote-57). 이러한 운동과 군대의 문제들의 공개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군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점차 강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들은 군대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의 목소리를 만들어냈다.

**2.1.2. 군인 주체성 재현의 변화**

이 항에서는 시대별로 헤게모니적인 군인 주체성을 계보학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자기계발하는 군인인 엘리트 남성들의 등장배경을 추적한다.

자기계발하는 군인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군인 주체성에 대한 재현의 한 단계를 대표한다. 1960년대 개발독재기부터 현재의 2000년대까지 각 시기는 그 시기에 대표적인 군인 주체성을 대중문화, 미디어, 정책의 담론을 통하여 재현해 왔다. 또한 이러한 재현된 군인들의 주체성은 그 시기의 문화적 구조를 드러내어 보여준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주의해야하는 것은 재현되는 군인의 주체성과 실제 군인 주체성의 차이이다. 개발독재기의 군인에 대한 재현부터 신자유주의 시기의 군인에 대한 재현은 모두 실제와는 간극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개발독재기의 모든 군인이 ‘씩씩한 남자’로서 규율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며(1장 2절 참조), ‘신세대 병사’가 1990년대만의 특징은 아니며(그 이전에도 그러한 존재는 있었으나 주목받지 못했을 수 있다), ‘자기계발하는 군인’이 2000년대 군인의 대다수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 주체성의 재현을 살피는 것은 시기적으로 주목하고자 했던 면들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지형-맥락 안에서 헤게모니적으로 구축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군대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의 목소리가 가능했던 이유에도 군인의 주체성 자체가 변했다는 측면이 결부된다.

이러한 군인 이미지의 변화는 요약하자면 ‘어른/사나이/씩씩한’ 군인에서 ‘아이’ 군인으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다음 <표6>과 같다.

<표 4> 시대별 헤게모니적 군인 주체성

|  |  |  |  |
| --- | --- | --- | --- |
|  | **씩씩한 남자** | **신세대 병사** | **자기계발하는 군인** |
| 등장의 시기적 구분 | 개발독재기(~1980s) | 민주화 이후 조정기(1990s) | 신자유주의 민주정부와 군대개혁기(2000s) |
| 집단 구성 | 절대다수 고졸 이하 육체노동자 | 대거 형성되기 시작한 1980~90년대 학번 대학생 남성 | 고학력 엘리트 남성(유학파, 명문대생) |
| 대중문화에서의  재현 | ‘국군 아저씨’(위문 편지).  책임감 있고 절제된 무인.  <우정의 무대> | ‘개인주의자’. ‘서태지 세대’  <이등병의 편지>, <입영열차 안에서> | ‘영리함’. ‘엄친아’  '엄마'와 늘 교감해야하는 군인.  <남녀 탐구생활>. |
| 가족 안에서의 지위 | ‘성인’. 남성-생계부양자.  '엄마'에게는 ‘행방불명자’ | 부모에게 반항하는 독립적 주체.  ‘아이’로서의 군인 조형 시작. | '엄마'와의 동맹.  '엄마'의 적극적 대응(온라인 카페, 학원)과 정보력을 통한 입대와 관리의 대상. |
| 사회적 네트워크 | 혈연관계, 지연관계, 학연관계 | ‘신세대 문화’ 하의 대학, X세대, PC통신, 인터넷 게시판. | 학벌 네트워크, 유학생 네트워크, 입대 준비 온라인 카페, 학원 온라인 카페 |
| 군대에 대한 인식 | 저항할 수 없는 대상. | 문제제기의 대상. 억압적· 폭력적 조직. 감수성의 상처. ‘사회로부터의 단절’ | 개별화된 전략적 대응의 장소.  “군대는 시간 낭비.” “피할 수 없으니까 자기계발 해라.” “자기계발은 인권이다.”  '엄마'의 양육 과정 안에 편성. |
| 군생활의 기획 | 순응을 통해 한 몫의 조직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 스스로 풀어야 할 정치.  하위문화적 대응. | 입시로부터 시작된 가족 계급재생산전략과 연동.  생애기획에 적합한 자기계발 전략. ‘스펙 쌓기’. |

우선 1990년대 이전의 군인 남성의 이미지를 ‘씩씩한 남자’라고 볼 수 있다. ‘씩씩한 남자’는 억압적인 정치체제와 동시에 경제적으로 남성-생계부양자로서 살아가게 될 군인에게 요구되며 국가가 재현하는 주체성이었다. 또한 사적으로 군인에 대해서 ‘함부로’ 발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인은 늘 공적-담론 안에서 ‘국군 아저씨’로 표상되며 책임감 있고 절제된 무인으로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존재로만 재현되었다[[59]](#footnote-58). 또한 그들은 ‘성인’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군인에 대한 공적-담론의 재현과 동시에 그들이 놓여있던 사회경제적 지위(고졸 이하의 임노동자, 농업인, 등)와 결부되어 있었다.

또한 물론 이들에게 부모와 형제자매, 친구, 애인의 존재가 실제로는 있었으나 이들은 ‘행방불명자’로 간주되듯 사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려웠다[[60]](#footnote-59). 이들은 군대에 대해서 이해함에 있어서 입대 이전 현대적인 정보망을 활용하여 징병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혈연, 지연, 학연을 활용하여 ‘알음알음’ 파악할 수 있었다. 상위 계급은 ‘병무 비리’ 등을 통하여 병역에서 면탈되었지만(신병식, 2006; 임재성, 2010), 그와 상관없이 강력한 국가 이데올로기와 담론 장치를 통하여 이러한 정보는 차단되었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대항하는 흐름도 만들어낼 수 없었다. 즉 군대는 ‘저항할 수 없는 대상’이었으며 군생활에 대해서는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씩씩한 남자’로서의 군인에 대한 재현은 미디어 재현에서 가장 익숙한 것이다. 구리 빛의 그을린 얼굴에 위장 크림을 잔뜩 바르고, 방탄모에는 위장 목적으로 잎이 주렁주렁 달린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꽂고, ‘우경계총’이나 ‘좌경계총’ 상태로 휴전선 너머를 바라보는 늠름한 ‘사나이’다. 한 밤 중이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빛이 뿜어져 나오고 수상한 사람의 움직임이 보이거나, 낯선 발자국 소리가 한 번이라도 들리면 바로 응전할 수 있는 태세로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의 모습이다. 또 다른 한 편, ‘유격훈련’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외줄을 타고, 레펠 하강을 하고, 진흙 웅덩이를 건너가는 남자들의 모습이 있다. 옆에서는 BGM(BackGround Music)으로 <진짜 사나이> 가사가 나올 것 같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이러한 ‘씩씩한 남자’의 이미지는 공식적인 군인에 대한 ‘관제(官製) 담론’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전 국방부나 각 군의 홍보물에 등장하는 군인의 모습이 그렇다. 이러한 공식적인 관제 담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지되어 올 수 있었다.

먼저 군인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는 것 자체에 민주화 이전의 억압적 분위기가 제약을 가했기 때문이다[[61]](#footnote-60). 분명 군인들은 누군가의 아들로, 친구로, 애인으로 여타의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이러한 맥락을 공적으로 발화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러한 억압적 분위기만으로 이러한 ‘씩씩한 남자’에 대한 재현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두 번째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것은 군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관한 문제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 대다수의 군인(병사)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즉 노동하는 주체로 성인 1명의 몫의 임노동이나 그에 상응하는 농업이나 자영업 등의 생산을 해내는 ‘어른’이었다[[62]](#footnote-61).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에 대한 재현을 앞서 언급한 ‘씩씩한 남자’로 재현하는 것은 기존의 ‘상식’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를 경유하면서 군인의 이미지가 전환되게 된다. 군인이 ‘어른’이 아닌 ‘아이’의 지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큰 요인은 급격하게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군인 중 대다수가 ‘학생’으로 지위가 전환된 것이다. 1971년의 대학진학률은 7%였다. 1980년의 대학진학률은 27.2%, 1990년의 대학진학률은 33.2%였다. 심지어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33.2%에서 70%까지 폭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군부대에서도 대학생 휴학생, 졸업생 출신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대학생에 대한 사회적 지휘 역시 1980년대 ‘변혁운동의 주체’에서 점차 소비적 주체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은 그들을 ‘금쪽같은 아들’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던 군대에 대한 개혁 요구와 군대의 실상의 공개를 통해 만들어진 틈새 공간의 효과였다. 즉 군인의 일상생활이 공개되고, 군인의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군인에 대해 사회적으로 입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의 사회적 지위가 질적으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내는 문화적 현상이 생겨난다. 정리하자면 ‘신세대 병사’들로부터 ‘아이 병사’로서의 전환이다.

1993년부터 ‘신세대’에 대한 언급이 전사회적인 것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오렌지족’ 등의 소비적인 주체로서의 청년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기존의 가치관과 파격적으로 문화적으로 선을 긋는 ‘X세대’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신세대’는 기존의 전통적인 한국사회의 가치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민주화와 자유주의적 분위기가 만들어낸 시대의 산물이기도 했다[[63]](#footnote-62).

이러한 담론들은 그대로 군인에게도 투영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신세대 병사’이다. 기성사회의 눈으로 볼 때 신세대 병사들은 상명하복의 질서가 엄격한 군대에서 “계급이 낮아도 할 말은 하는” 민주적 의사소통을 바라는 존재들이었으며,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개성 있는 병사”들이었고, 또한 '엄마'에게 전화해서 ‘온라인 송금’을 요청하는 소비적 주체들이기도 했다. ‘단체기합’을 통한 군기잡기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존재들이었다. 기존의 구타가혹 행위 등을 통해서는 ‘통제’되지 않는 존재들이었다.[[64]](#footnote-63) 이들은 또한 PC통신과 인터넷 게시판 등 형성되기 시작한 공간에서 자신들의 하위문화를 구축하고 자신들의 군생활에 대한 서사들을 공유했다[[65]](#footnote-64). 이들은 쉽게 통제되지 않고 개성적인 존재이며 개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존중의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볼 때 신세대 병사들은 1990년대에 대학생의 숫자가 33.2%에서 70%로 증가하는 와중에 형성되었기에 ‘대학생 병사’였으며 1980년대의 민주화의 영향을 받고, ‘서태지 세대’라는 특수한 하위문화적 자원을 토대로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군대문화에 대해서 항의하는 주체들로 조명되었다[[66]](#footnote-65). 이들은 <이등병의 편지>나 <입영열차 안에서>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군대가 주는 ‘감수성의 상처’에 대해서 토로하고, PC통신 등에서 자신들의 군생활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너희가 군대를 아느냐』(이성찬, 1998) 같은 출판물로 엮어내기도 한다[[67]](#footnote-66). 이들은 여성주의자들과 평화운동가들이 제기하는 군사주의의 문제 등에 대한 감각을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수직적인 상명하복 관계에 곧바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할 때 항의하고, 나름의 하위문화들을 통하여 군대 자체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68]](#footnote-67). 또한 1990년대의 경제적 호황과 더불어 소비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신세대 병사들은 씀씀이가 커지고 부모에게 ‘온라인 송금’ 등을 요구하면서 정서적으로는 독립적이되 소비의 맥락에서는 의존적인 상황을 통하여 군대에 있으면서도 부모와 교류를 시작한다.

이 상황에서 신세대 병사들과 더불어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가족, 특히 ‘엄마'이다.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 군인들의 ‘엄마'들은 자신들의 군인 ‘아들’에 대해서 매체에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69]](#footnote-68). 반항적이었던 자녀가 군대에 가서 ‘진짜 사나이’가 되는 것에 흐뭇해하고, 면회를 갔다가 불편을 겪으면 곧바로 신문에 투고를 하여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엄마'들은 여전히 군이 홍보를 위해서 방영했던 <우정의 무대>에서 ‘전통적인 어머니상’을 재현하기 위하여 한복을 차려입고 ‘씩씩한 남자’인 아들을 만나 말없이 눈물지으며 ‘고향 앞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1990년대가 지나면서 ‘문민정부’부터 시작된 군대의 문호개방과 더불어 군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파악하면서 구체적 요구를 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70]](#footnote-69). 이러한 요구들은 대학생의 비중 증가와 더불어 군인들을 ‘아이’로 맥락 짓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남성들에 적응하기 위해 군대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했다. 또한 어느 정도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신세대 병사들을 위치시켜야 했다. 즉 신세대 병사들에 대해 전면적인 통치-테크놀로지를 통한 ‘관리’가 필요했다.

먼저 군 홍보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0년대의 <우정의 무대>이다. 1989년에 시작한 <우정의 무대>는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의 진행으로 일선부대에 매주 방송팀이 찾아가서 연예인, 애인, 부모를 초청해서 위문공연을 하고 방송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우정의 무대>의 한 코너였던 ‘그리운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플 때…”라는 노래를 전국적으로 유행시키기도 했다. 이 중 ‘군인의 이미지’와 관련된 중요한 지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엄마'의 ‘목소리’의 허용수준이었다. 부대에 ‘모범 병사’ 아들을 만나러 찾아온 ‘엄마’는 커튼 뒤에서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설명하고, 철없는 아이가 군대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를 토로한다. 그리고 이어서 ‘엄마'의 목소리를 확인한 ‘아들’ 병사들이 뛰어나오고 최종적으로 ‘엄마'와의 커튼을 경계로 한 대화를 마치고 ‘엄마'와 아들의 재회가 이어진다. 중요한 점은 ‘엄마'와 아들이 만난 이후 모든 발언권이 아들에게 넘어간다는 점이다. '엄마'는 눈물지을 뿐 말할 수 없다. 아들은 ‘엄마'를 업고 ‘뽀빠이 아저씨’의 “고향 앞으로”라는 명령에 따라 ‘엄마'를 엎고 뛰기 시작한다. 아직 ‘철없던 아들’은 커튼을 걷고 등장한 ‘엄마'를 만나는 순간 ‘든든한 군인’이 된다. '엄마'를 통한 통과의례를 통해 ‘신세대 병사’를 ‘대한의 건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라는 말의 유포이다[[71]](#footnote-70).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당시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군대에 대한 관념의 투영이다. 여기에는 군대가 한 몫의 남성구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이라는 관념이 투영되어 있다. 또한 군 복무이전의 남성이 ‘아직 아이’로 간주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라는 말이 관제담론을 통해 유포되는 것을 통해 당시 군대에 대한 불만을 거꾸로 유추해볼 수 있다. 젊은 세대에게 군대에 대한 반감과 불만이 팽배해있고 세대 간 군대에 대한 이해(理解)가 달라졌고 공통감각에 균열이 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발화를 만들어내고, 군대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즉 군대와 기성사회는 신세대 병사 담론을 통하여 조금 더 자유로워진 세대의 군인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문화적인 관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신세대 병사 담론을 통하여 진행되는 90년대의 병영문화 ‘관리’는 지속적인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1차 적인 책임이 나약한 ‘세대의 문제’로 진단되었기 때문이다[[72]](#footnote-71). 개혁의 필요성은 병영문화의 구조적 개선이라는 측면에 적용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군대 바깥에서는 군대의 가혹행위 등 병영문화와 인권문제들이 지적되고, 군인들은 ‘딱한 존재’, ‘보호의 대상’으로 호명되기 시작 한다[[73]](#footnote-72). 병사들의 세대 문제가 아닌 민주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군대의 ‘구조적 문제’라고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군인은 더 이상 한 명의 독립적인 주체가 아닌, 국가에 의해 잠시 청춘의 ‘특권’을 ‘유예’당한 존재이며, 어른이 되는 ‘통과의례’ 과정에 놓인 존재가 되며, ‘불쌍한’ 존재로 불리기 시작했다. ‘신세대 병사’는 기존의 규범으로는 통제되지 않았다. 이제 ‘신세대 병사’들이 사회에서 익혀온 문화에 대해서 군대가 적응해야 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시기인 신자유주의와 민주정부의 군대개혁이 진행되었던 시기인 2000년대의 ‘자기계발하는 군인’이다. 반항적이었던 90년대 ‘신세대’들의 에토스[[74]](#footnote-73)는 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전환되기 시작한다. 청년실업과 부모들의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을 통하여 경제적 ‘쇼크’를 경험했던 이들은 ‘집단적인 저항’을 포기하기 시작한다. 학생운동 진영과 새로 등장한 평화운동의 활동가들이 ‘병역 거부’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이미 예전보다 작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절대 다수의 남성들은 징병제 자체에 대해 ‘순응’을 시작한다. 신자유주의 주체화에 의해 개별적인 대응전략이 대세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며(‘개별화된 공포’), 구조적인 양극화와 청년 실업, 노동의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군인에 대한 재현 역시 바뀔 수밖에 없었다. 자율적이고 ‘개기는’ 행위를 통하여 나름의 하위문화를 만들 줄 알았던 1990년대 신세대 병사들과 달리 ‘자기계발하는 군인’으로 재현되는 이들은 군에서도 ‘모범 병사’로 불리게 되며, 사회에서는 ‘엄친아’로 호명되는 엘리트 남성들이다[[75]](#footnote-74).

이 지점에서 ‘아이’가 되어버린 군인의 위상을 포개어 함께 파악할 수 있다.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대학진학률이 70%가 넘어가기 시작했다. ‘학생’이면서 ‘아이’인 남성들이 입대를 시작한다. 민주화의 영향과 정보통신기술(ICTs)의 발달로 ‘일반 문화’가 ‘군대 문화’에 개입할 지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취업 연령이 늦어지기 시작하고, 여전히 부모의 영향권 하에 경제적인 보조를 받고 있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취업이 절체절명의 ‘미션’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군생활 역시 부모의 관리(양육)의 한 과정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76]](#footnote-75). 이에 따라 부모들(특히 ‘엄마')이 군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곰신’들과 '엄마'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살펴볼 발화자는 ‘곰신’, 즉 군인들의 애인이다. 그러한 변화의 흐름은 <우정의 무대> 이후에 진행되었던 KBS의 <청춘! 신고합니다>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좀 더 잘 드러난다[[77]](#footnote-76).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로 시작되는 <그리운 어머니>라는 ‘슬픈’ 노래를 더 이상 군인들은 부르지 않기 시작했다. <청춘! 신고합니다>는 한 결 ‘발랄’했다. 20∼30대의 젊은 아나운서들이 프로그램을 맡았다. 버라이어티 쇼처럼 병영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청춘! 신고합니다>에서는 군대에 있는 남자가 ‘싱글 남자’ 혹은 ‘솔로 남자’로 불리기 시작했다. “싱글을 찾아라”라는 코너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4명의 여성이 부대를 찾아온다. 이 중에 2명은 싱글, 2명은 부대에 남자친구가 있는 ‘커플녀’였다. 부대의 군인들은 뛰어나와 장기자랑을 한다. ‘연애’를 위해서 하는 ‘유혹’의 몸짓을 하게 된 것이다[[78]](#footnote-77). 군인에게 ‘연애’가 별로 예외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 전에도 ‘고무신(곰신)’ 여자 친구가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 휴가 나올 지도 모르고 그게 언제 잘릴 줄도 모르는 군인의 ‘불안정한 상황’은 늘 슬픈 비극으로 그들의 연애를 조명하곤 했다[[79]](#footnote-78). 이전의 군대에서도 연애와 연애 감정이라는 것은 존재했지만, 늘 억눌려야 하는 것이었다. 또한 연애와 연애 감정을 부대들과 미디어가 권하는 일은 드물었다. 물론 ‘어둠의 장소’(성매매 업소)들에서 병사들에게 성매매를 부추기는 문화는 존재해왔다. 휴가나 외박에 나갔을 때 고참들과 함께 성매매업소에서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화는 ‘일상’으로서의 연애라는 것이 불가능함과 맞물려 있었다.[[80]](#footnote-79) 그러던 남성들이 군대에서 연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청춘 신고합니다!> 같은 TV 병영프로그램은 연애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됨을 보여준다. 남성들의 연애감정은 방송을 통해 ‘시민권’을 얻었다.

더불어 ‘곰신’들은 게시판에서 TV 출연을 의뢰하기 시작하고, 군대 간 ‘남친’들과 자신의 ‘알콩달콩한’ 이야기들을 공유했다. 동시에 ‘곰신 카페’들이 활성화되면서 ‘곰신’들 역시 군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주체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곰신’ 여성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부대의 생활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입대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훈련소에 있는 ‘남친’한테 편지하는 법, 자대배치 알아내기, 자대배치 받은 ‘남친’한테 첫 편지 보낼 때 챙겨야할 것들, 계급이 올라가는 ‘남친’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들이 벌어졌다. 군인 ‘남친’이 하고 있는 훈련이나 근무의 종류들에 대한 정보들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되었다.

동시에 ‘엄마'들이 등장했다. ‘곰신’ 카페는 애초에 군인의 ‘애인’들이 만들어낸 공간이었지만, 점차 군인들의 '엄마'들은 ‘OO맘’ 같은 아이디로 카페에 가입하고 곰신들과 함께 군인들의 일상과 관련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묻고 대답하기 시작했다[[81]](#footnote-80). 어떤 곰신 카페에서는 '엄마'들이 카페의 운영진을 맡기도 했다[[82]](#footnote-81). 군대와 군인에 대한 ‘정보력’을 갖춘 '엄마'들의 증가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엄마'들은 그러한 정보를 통하여 각군 훈련소 게시판이나 국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질의’를 하고,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다(<그림1> 참조).

<그림 > '엄마'의 질의와 부대의 답변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를 ‘신경써달라는’ 표현으로부터 부대에서 아이의 신상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가장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는 주체로 변모하고 있다. 변화된 주체들에게 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들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었다. '엄마'로서의 여성들은 발화의 주체로 강력한 목소리를 웅변하기 시작한다.

2000년대 이후 ‘자기계발하는 군인’들이 보여주는 표면적 능동성과 ‘자기주도학습’을 구현하는 학습 실천의 배경에는 ‘엄마와 늘 교감해야 하는 군인 아들’로서의 '엄마'와의 교류가 존재한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엄마'에게 ‘아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한 '엄마'들은 일단 공적으로 군대의 정보 공개와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방불케 하는 일선 부대의 ‘병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속속들이 그 내부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83]](#footnote-82). 또한 사적으로도 200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한 ‘곰신’ 커뮤니티를 활용하기 시작하고 더불어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군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는 등의 능동적 활동을 한다. 게다가 아들의 군생활을 속속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병영을 체험하길 마다하지 않는다.[[84]](#footnote-83)

군대에 아들을 보낸 '엄마'들은 늘 기민하게 전화를 기다리면서 요구에 대답하고, 적극적으로는 부대의 카페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아이와 소통한다(<부록 4>, <부록 5>참조). 또한 ‘자기계발하는 군인’으로서의 엘리트 남성들은 '엄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대학생의 낮아진 사회문화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아이’로 전락한 군인들의 위치에 대한 합의가 결부된다. 즉 ‘자기계발하는 군인’은 여전히 양육과정 안에 위치한 ‘아이’가 된 것이다[[85]](#footnote-84).

제2절 군대 내부의 맥락

**2.2.1. 국가발전의 선도적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이번 항에서는 군대가 ‘개혁’이라는 맥락 안에서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어 갔던 과정을 살핀다. 먼저 정치적 차원에서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진행했던 하나회 해체, ‘국민의 군대’ 작업과 김대중 정부의 ‘국방 개혁’을 통해서 정치적 사정의 대상이 된 군대의 모습을 살핀다. 두 번째로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만들어내고, 동시에 축적체제에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을 유도했던 집단적 군대교육(일반교육, 직업교육)이 사회적으로 낙후되어 개선되어야 할 또 하나의 개혁과제로 대두되었던 양상을 살핀다.

**2.2.1.1. 개혁되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군대 – 정치적 사정의 대상이 된 군대**

지난 절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군사독재가 끝나기 전까지 한국에서 군은 ‘성역’이었다. 일차적으로 군부 엘리트들이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민주정의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었고, 정권에 대한 반대와 군대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조건이었다. 하지만 87년의 민주화운동 이후 88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군대에 대한 비판이 사회적으로 점차 증가했고, 정부 안에서도 군대(국방부, 각 군)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개혁되어야 할 것은 두 측면으로 제시되었다.

먼저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측면이었다. 노태우 정권 하에서는 ‘국민의 군대’라는 언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민의 군대’는 1장에서 살펴보았던 ‘정치적 민군관계’의 측면에서 ‘중립적’인 위상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즉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군대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었다. 쿠데타를 벌이지 않고 선거 때 중립을 유지하는 군대를 말하는 것이었다.[[86]](#footnote-85) 또한 정치군인들이 누려왔던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대위 출신 장교를 사무관(당시 3급, 현재 5급)으로 채용하던 ‘유신사무관 제도(1977∼1987)’를 혁파하기도 했다.

당시의 군대개혁은 앞서 언급한 운동의 차원에서 ‘내부’의 징병된 군인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미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입장에서도 ‘정치군인’의 문제로 환원되곤 했다. ‘정치적 중립’이 가장 막중한 개혁과제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김영삼 정권에서도 그러한 기조는 마찬가지였다. 노태우 정권에서 진행되었던 ‘국민의 군대’ 만들기가 과제가 되었다. 김영삼 정권은 노태우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인사비리’에 대한 대응으로 육사출신 장교들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한 번에 숙청하기도 했다. 이제 군대는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군사문화’를 전파하거나 쇼비니즘적인 열정이 아닌 ‘프로페셔널’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되었다(지만원, 1991: 5). 하지만 이러한 차원의 군대개혁 논의에는 대체로 병사들의 문제가 누락되어 있었고, 군대개혁 자체를 군의 상부구조와 업무 절차 등에 대한 논의로 한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즉 여전히 군대개혁 논의에서 군인은 엘리트 장교이고, 군대는 군 수뇌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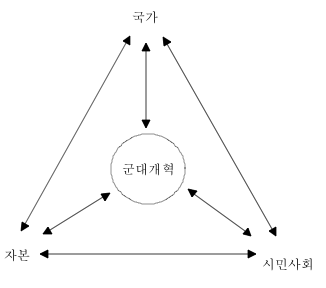
하지만 두 번째로 김영삼 정부에서는 더불어서 ‘제2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개혁이 진행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각종 사건들에 대한 대응이었던 ‘새로운 병영 문화’ 만들기였다[[87]](#footnote-86). 1994년에는 현역 장교가 무장탈영을 시도하고, 전방부대 사격장에서 훈련 중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1996년에는 수해로 인해 수십 명의 병사들이 사망하기도 했다[[88]](#footnote-87). 해병대와 특전사 등 ‘빡센’ 군대에서는 오히려 기강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대응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육군 부대 등에서는 1절에서 언급했던 ‘신세대 병사’들에게 맞추기 위한 개혁방안 등이 모색되곤 했다[[89]](#footnote-88). 그러나 1990년대의 병영문화개선의 시도는 전면적 개혁을 수반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여전히 군대개혁에 있어서 초점이 ‘정치적 중립’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군대의 개혁 아이디어에서 ‘인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의 ‘국민의 군대’, ‘새로운 병영문화’ 등의 개별적인 개혁의 목표들은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국방개혁’이라는 개혁목표로 통합되게 된다.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이 확인된 상황에서 그 이후의 과제로서 군대 전반의 ‘구조개편’을 목표로 하게 된 것이다. 1998년 4월 27일 국방개혁위원회가 설립되고, ‘작지만 강한 군대’를 기조로 “탈냉전, 기술집약형, 미래형 구조”를 목표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90]](#footnote-89). 이 중 탈냉전은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군대 내부의 민주화(병영문화개선), 기술집약형·미래형 구조에는 군사혁신(안보)과 지식 중심의 군대(인적자원개발)로의 재편의 기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치적 중립과, 낙후된 시설과 문화에 대한 개선을 내부적으로도 요구받는 군은 더 이상 국가발전의 선도적 주체나 안보의 든든한 수호자가 아니었다. 군대는 ‘낙후된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한국군으로 하여금 ‘개혁에 대한 강박’을 갖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2.2.1.2. 군대개혁의 정치경제학**

군대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또한 정치경제적 맥락이 연관되어 작용한다. 군대개혁의 계기를 만들어낸 정치경제적 맥락을 살피기 위해서 제시하는 프레임은 아래의 <그림 2>과 같은 국가-자본-시민사회의 영역 범주를 통한 군대개혁의 분석이다.



<그림 2> 군대개혁의 구조화 : 국가/자본/시민사회의 영향

군대개혁을 둘러싼 국가 내부의 각각의 영역에서는 군대개혁과 군인의 특정한 주체화를 요구한다. 세 영역의 위상은 역사적으로 다르고 상호간에 힘의 차이가 있다. 또한 정치적 상황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그 위상 역시 상대적으로 변화한다. 각각의 영역은 나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구조의 제약을 받지만 또한 합의와 파열에 의해 구조를 조형하기도 한다[[91]](#footnote-90). 각 영역의 전략들은 서로 상충되고 합의되기도 하면서 최종적으로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으로 반영되고, 시민사회의 의제로 반영되고, 자본의 의제로 반영되는 어떠한 합의는 군대개혁과 군인의 주체화에 대한 특정한 방식의 국면적 합의를 도출한다.

이러한 프레임에서 볼 때 군대개혁은 1970년대부터 1987년 이전까지 구축되었던 1차적 합의(개발독재기), 민주화기(1987∼1997), 1998년 이후의 2차적 합의(신자유주의 민주 정부와 군대개혁기)라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표5>).

<표 5> 군대개혁과 군인 주체화의 구조적 맥락: 축적체제와 군대의 관점에서

|  |  |  |  |  |
| --- | --- | --- | --- | --- |
|  | **국가의 전략 구도** | **자본의 전략 구도(노자 관계)** | **시민사회 운동과 구도** | **군대와 군인의 위상** |
| **개발독재기(1961∼1987)** | ★ 개발독재   * 엘리트 군인의 쿠데타와 국가 장악(1961)   - 국가주도형 경제 발전 유도(1962**∼**)   * 통치-테크놀로지(주민등록법 등) | ★ 재벌 주도 수출 중심 경제   * 저임금, 노동력 중심 체제 * 병영식 노동통제 * **광범위한 노동 수요** | * 반독재 운동 * 시민사회의 대응 위축 * 탈영 및 병역기피   ★ 민주화 운동   * 학생운동 진영의 병역 거부 운동 | ★ 국가발전의 선도적 주체 군대   * 엘리트 군인들의 요람 * ‘**집단 직업교육**’을 활용한 산업 노동자 충원. 동의 구조의 구축.   ★ 군인   * ‘성인’ 병사. 예비 노동자. |
| **민주화 이후 조정기**  **(1987∼1997)** | **★ 탈냉전** 및 정치적 **민주화**   * 직선제 개헌 및 군부 독재 종식(1987) * ‘국민의 군대’(1988) * **하나회 해체**(1993): 엘리트 군인의 정치개입 차단. | * 국가주도형 발전국가 경제의 해체(**탈산업화**) * 노동운동의 영향력 강화(1987**∼**)에 대한 대응으로 기술력 중심, 탈규제화의 경제로 진입(신자유주의의 태동) | * 군대개혁 운동의 전개   ★ 사회적 양상   * 대학생 비율의 급증(33.2% → 70%) | ★ 개혁의 대상으로서의 군대   * ‘낙후된 군대’(사회경제적) * 집단교육을 통한 노동력 공급 중단(1989)   ★ 신세대 병사   * 대학생 병사: ‘성인’ 병사 모델의 와해기. |
| **신자유주의 민주정부와 군대개혁기**  **(1998∼)** | ★ **민주정부와 신자유주의**   * 민주정부의 수립(김대중, 노무현 정부) *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화‘제3의 길’ 노선의 수용 * 국가인적자원개발 * ‘신지식인’ 운동 | ★ **신자유주의화**   * 금융자본주의 주도 경제 * ‘**인적자본**’에 대한 요구 * 고용 가능성 요구 * 노동의 유연화 전략과 고용 없는 성장 → 청년 실업 유발 및 비정규직의 양산 | ★ 병역에 대한 문제제기 시작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 및 대체복무제 제기 * 모병제 추진 운동 * 반(反)군사주의 운동   ★ 사적 대응의 시작   * 사교육의 활성화(1996**∼**) * 입시 경쟁의 심화 * 자기계발의 확산 | ★ 군대개혁의 전개   * 군가산점제 폐지(1999) * 군대개혁(병영문화개선, 군인적자원개발)의 전개(2003**∼**2007)   ★ 자기계발하는 군인의 출현   * ‘아이’인 병사 * 스펙 쌓(아야 하)는 군인 * 예비 실업자(청년 백수) |

(김병조, 2011; 문승숙, 2007; 박효선, 2010; 서동진, 2009a; 조희연, 2010; 지주형, 2011를 참조하여 작성)

첫 번째 시기인 개발독재기에는 국가 주도하에 모든 의제가 결정되었고, 징병제 군대는 발전국가와 냉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상위 계급의 병무비리가 만연하였고 불만이 상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저항에 봉착하지 않았던 것에는 억압적 통치-테크놀로지의 활용도 있었지만 또한 징병제에 대한 동의기제로서의 군대의 ‘집단 직업교육’과 ‘군사화된 노동시장’(문승숙, 2007)의 상호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만들고, 동시에 국가의 축적전략에 걸맞은 노동하는 주체를 만드는 과정으로서의 군대교육이었다.

군대교육은 징병에 대한 사회적 저항감을 낮추고, 산업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발전전략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즉 군대의 교육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준을 통해 ‘군사화된 노동시장[[92]](#footnote-91)’(문승숙, 2007: 39) 혹은 ‘개발동원체제[[93]](#footnote-92)’(조희연, 2010: 17)을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경제개발을 이루고 징병제를 재생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군대의 교육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일차적으로 일반교육(공민교육)이다. 1955년 8월 20일 이승만 정부는 <교육각서 제24호>를 통하여 군 훈련소에서 국어 220시간, 수학(셈본) 44시간 교육을 실시했다(박효선, 2010: 48). 이러한 교육은 사회적인 문맹퇴치 운동과 결합하여 작동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국어 교육과 수학 교육을 이수한 병사들에게 1954년부터 국민(초등)학교 1∼4학년 과정을 12주간 이수시키는 기본반, 국민(초등)학교 5∼6학년 과정을 12주 동안 교육시키는 국민반을 운영했다. 1955년부터는 중학교 1∼2학년 수준의 15주 중등반을 개설하기도 했다(박효선, 2010: 53). 1960년부터는 국민반은 자율학습으로, 한글반(전 시기의 군 훈련소 교육)[[94]](#footnote-93)과 기본반은 집체교육으로 진행되었고, 동시에 중등반의 경우 통신교육으로 진행되다가 육군 정훈감실에서 나오는 교재를 통해서 집체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교육은 사회적 ‘인증’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즉 한국군은 남성들의 제대 시 학습을 원하지만 아직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 야간 학교 등으로 적극적인 취학 알선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검정고시 등을 통하여서 그들이 받은 교육의 인증을 유도했다[[95]](#footnote-94)(박효선, 2010: 88-89). 이러한 일반교육은 일차적으로는 문맹퇴치라는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계기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 만들기’와 연결되며[[96]](#footnote-95) 동시에 군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훈육을 위한 “사상 무장, 국가관 확립 등 정훈교육을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박효선, 2010: 48). 국민으로서의 ‘호명’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교육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97]](#footnote-96)(알튀세르, 2007: 291).

두 번째로 일반교육을 이수한 남성들에 대해서 실시되었던 ‘기술교육’이다. 기술교육은 “경제 부흥과 근대화 촉진을 위한 농촌 지역사회 개발형 사회교육과 인력 양성형 사회교육 및 학교교육 보완형 사회교육”, “국가정책 지원을 위한 기술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시행되었다(박효선, 2010: 79). 초창기에 기술교육은 농업 중심 사회에 걸맞게 영농 기술을 보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토끼와 오리 그리기, 산양 및 면양 사육법, 꿀벌 기르기, 손쉬운 담수어 기르기’ 등을 기록한 ‘국민 독본 농업 축산 기술 강좌’ 1인 1기 시리즈 교재를 국방부는 배포하기 시작했다. 다른 한 편으로 건설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98]](#footnote-97).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던 1970년대에는 기술교육의 내용이 변화한다. 1970년대에는 1)새마을 교육, 2)직업훈련 - 국가 기능공 양성, 3)학교교육 보완형 사회 교육이 목표가 된다(박효선, 2010: 107-109). 이 중 기술교육의 합리화를 위해 1975년에는 ‘장병 1인 1기 교육 및 기술자격검정제도’가 실시된다. 이 제도의 목표는 “군의 과학화를 위해 각종 장비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켜 장비의 수명을 연장시키며, 군 기술 전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전역 후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었다(박효선, 2010: 120). 국가와 군대, 그리고 자본은 발전국가 동맹을 통해 일체감을 가지고 있었으며(<부록1>) ‘기술교육’, ‘기술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장병 1인 1기 교육 및 기술자격검정제도’는 발전국가 동맹이 어떠한 방식으로 노동 시장을 운용했는지에 대한 규준으로 파악된다[[99]](#footnote-98). 이렇게 군 복무를 통해서 양산되는 남성은 노동 시장의 측면에서 읽을 때 군을 통해 공급된 ‘군인 노동자’라고 볼 수 있다(신병식, 2006: 167). 이러한 군인 노동자의 공급(기술교육)과 문맹률의 퇴치(일반교육)를 통하여 군은 박정희 정권 시기부터 1980년대까지의 발전전략을 선도할 수 있었다[[100]](#footnote-99).

두 번째 시기인 민주화 이후 조정기는 시민사회의 군대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경합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깨져버린 정치경제적 균형에 대한 조정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국제질서가 부과하는 탈냉전기(국가의 전략),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발전주의 전략의 한계였던 탈산업화(자본의 전략), 정치적으로 시민사회의 역량의 향상으로 만들어진 민주화의 시기(시민사회의 민주화 요구)를 겪게 되면서 첫 번째 시기(개발독재기)의 국면적 합의는 깨질 수밖에 없게 된다. 먼저 정치적 측면이다. 민주화 상황에서 여전히 군대는 법-제도와 통치-테크놀로지의 강제를 통해서 징병제를 유지하지만, 사회적인 개선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의 군대’나 하나회 숙청과 같은 정치적 대응은 필연적이었다. 또한 탈산업화의 맥락에 노출되면서 유기적인 ‘군사화된 노동시장’과 ‘개발동원체제’도 1980년대를 경유하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문승숙, 2007: 39). 한국은 1만 불의 경제력으로 성장할 정도로 개발된 나라가 되었고, 더 이상 위계에 입각한 상명하복 방식만으로 경제를 운용할 수가 없었다. 이 문제를 축적체제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자면, 한국의 경제가 더 이상 발전국가의 틀로 유지가 안 되기 시작한 순간, 군대에서 배운 기술들이 노동시장의 편입에 있어 별 쓸모가 없어졌다고 풀이할 수 있다(문승숙, 2007: 39). 이러한 상황에서 군대는 군인 남성들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재조정, 즉 ‘합리화’를 할 필요를 느꼈다. 1988∼9년의 제도 변화는 이러한 맥락을 잘 드러낸다. 1988년 9월 22일 국방부는 ‘1인 1기 교육’과 ‘농수산교육’을 폐지하고, 1989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를 ‘희망자’만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바꿔버린다(박효선, 2010: 122).

이 사건은 몇 가지를 시사한다. 먼저 군대에서의 기술 교육이 사회에서 잘 통용되지 않는 시점에 달했다는 것이다. 군대의 기술이 사회의 기술보다 낙후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군대가 더 이상 병사들의 제대 후의 진로를 총체적으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군대에서의 직업 교육이 ‘기술 교육’의 형태로 실패했을 때 군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교육을 전환하여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각자의 책임’으로 병사들 스스로 제대 후 진로를 기획하라고 한 것이다[[101]](#footnote-100). 달리 말하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용도의 집단‘훈련’은 유지되었지만, 사회와 호환되는 형태로서의 ‘집단교육’은 포기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맞물리면서 1990년대에 군대는 완벽하게 ‘낙후된’ 조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군대는 사회적 발전전략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필요에 봉착하였다.

세 번째 시기인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자본이 규정해놓은 프레임에 따라 국가가 대응을 하고 이것이 군대개혁의 의제로 반영되고(군인적자원개발), 다른 한 편 시민사회의 의제(병영문화개선)에 대해 국가가 대응을 하고 그것이 군대의 정책으로 반영되지만 이 역시 자본의 구속력이 가장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신자유주의) 병영문화개선 역시 그 구도 안에서 전개되게 된다. 국가는 10년간의 조정기를 거치고 ‘민주정부’라는 새로운 정치적 흐름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정치경제적 합의를 도출하려 했고 이러한 맥락 안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구상을 통하여 새로운 축적의 방식(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상하게 된다. 군대의 군인적자원개발 구상 역시 이에 대응하는 기획이었다.

**2.2.2. 전면적 개혁의 계기: 2005년의 GP 총기 난사 사건**

**2.2.2.1. GP 총기 난사 사건과 개혁에의 요구**

2000년대, 군대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군인이 한 명의 ‘어른’에서 ‘아이’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또한 군이 내부적으로도 개혁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전면적인 개혁의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면적인 개혁은 연속적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약간의 전개와 약간의 퇴보를 진행되고 있었다. 지속적인 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러한 점을 반영한다. 군의 전면적인 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맞이한다.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군이 문제적 대상이 되고 일선부대에서의 대형사고가 발발하는 순간 1장에서 언급한 3가지 분야 병영문화개선(인권), 군 인적자원개발(교육 및 사회경제적 축적체제와의 호응), 안보의 측면 중 특히 병영문화개선의 측면으로부터 개혁이 급속도로 요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2003년 7월 9일 육군 일병 한 명이 ‘선임들이 밤마다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져’ 괴롭다는 유서를 쓰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했다. 또한 7월 13일에는 한 육군부대의 대대장이 자신의 당번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가 구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2003년 8월 1일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어서 육군참모총장이 2003년 8월 5일 일반명령으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하달했다. 이 강령은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명령,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성폭력까지 예방하자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발발하던 시기였던 2003년부터 신문과 방송 등에서는 병사들의 잠자리, 즉 내무반에 대한 미디어의 언급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면적으로 등장했던 시작점은 한국일보 장명수 이사의 칼럼이 나왔던 시기로 잡을 수 있다[[102]](#footnote-101). 글의 제목은 “우리 아들 딸 들의 잠자리”이었다. 장명수는 놀랍다고 이야기하지만, 군대 내무반과 관사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이미 많은 남성들이 알고 있는 바였다. 새삼스럽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런데 이 칼럼이 내포하는 함의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건 바로 군대에 대해서 ‘엄마'가 발언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군대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두 남성들만의 이야기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남성들 사이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까지도 '엄마'들은 군대에 아들들을 보냈다. 그런데 이전까지의 '엄마'들의 모습은 앞서 언급한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이 진행하던 <우정의 무대>에서의 모습과 같았다. <우정의 무대>의 '엄마'는 아무 것도 물을 수 없고, ‘벙어리 냉가슴’으로 조마조마하게 매일 밤잠을 설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다(김주영, 2006).

사실 그 전에도 군대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사회는 개입했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몰표로 여당을 찍게 했던 일이 92년에 벌어지고 이에 대해 한명의 중위가 양심선언을 하자 야당과 재야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군대를 규탄하곤 했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도 주도적인 역할들은 남성들의 것이었다. 여성들은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있었지만 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다. 99년의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이 날 때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개입했었다. 하지만 군가산점제의 쟁점은 군인의 생애주기를 보자면 군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 즉 ‘일반사회’의 문제였다. 군생활을 하는 동안 군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일에 대해 여성들은 개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자신의 ‘아들’인 군인 남성의 생활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군대에 대해서 ‘정보력’을 갖추게 된 '엄마'들이 구체적으로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고(행위자의 차원), 민주화된 상황으로 군대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가 가능하도록 언로가 열리고 군대의 구조개혁의 ‘지렛대’가 필요했던 상황[[103]](#footnote-102)(발화 구조)에서 병영문화개선을 필두로 한 군대개혁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적인 영역’으로 간주되기 시작한다.

점차 군대에 대한 ‘구조적 개혁’에 대한 요구가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2005년은 한국의 군대, 그리고 군대 간 남자들의 경험에 있어서 전환적인 해였다. 2005년 1월 10일 육군 훈련소에서 ‘인분사건’이 발생했다. 훈련소에서 용변을 본 훈련병들이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련소 중대장(대위)이 자신의 중대 소속 훈련병 192명에게 대변을 손에 묻혀 2회씩 5초에 걸쳐 입을 벌리고 넣었다 뺐다 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건은 열흘이 지나서 훈련병의 편지로 사회로 전해지게 되었다. 문제는 그 편지가 공개된 20일로부터 4일이 또 지나서야 논산 훈련소가 그 사실을 시인한 것이었다. 정확히는 ‘언급’만 했을 뿐이었다.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 정치인들, 시민사회 단체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들썩거리게 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초대형사건’이 2005년 6월 19일에 벌어졌다. “김일병 총기난사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연천에 있는 GP(Guard Post 전방 초소)에서 근무하던 김 모 일병이 간부와 선임들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투척함으로서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연초부터 발생했던 사건들에 의해 문제제기를 받아왔던 국방부는 6월의 총기난사 사건 때문에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단순히 시민사회 단체와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전사회적으로 군대에 대한 갖가지 문제제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제기는 ‘군대의 기강’을 지적하는 것만은 아니었다[[104]](#footnote-103).

“김일병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진 이후 사회적인 문제제기는 더 근본적인 층위에서 제기되었다. 총체적인 ‘병영문화’ 일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된 것이었다. 매일 TV 뉴스와 신문 기사에는 ‘신세대 장병’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영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언급했던 2003년처럼 병사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30명이 15평의 내무반에 살고 1인당 면적이 0.7평이며 죄수같이 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이제 문제는 ‘군인’들이 아니라, 도무지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군대’의 문제가 되었다. 국회에서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상정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가 이어졌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대통령은 약속했다. 병영문화개선에 대한 요구는 전사회적인 것이 되었고, 군은 개혁과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제3절 2000년대 군대개혁의 전개

**2.3.1. ‘병영문화개선’과 ‘군 인적자원개발’의 전개**

본 항에서는 이러한 노무현 정부시기에 나타났던 ‘병영문화개선’과 ‘자기계발’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교육-자기계발’, 그리고 ‘인권’이 대두되던 주요한 국면이었기 때문이다[[105]](#footnote-104).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던 병영 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1)'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

2)'인간 존중의 신바람 나는 군대'

3)'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가정 같은 군대'

이 중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는 ‘자기계발하는 군대’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언급이다. 2항의 ‘인간 존중의 신바람 나는 군대’와 3항의 ‘전념할 수 있는 가정 같은 군대’는 사실상 인권부문에 대한 ‘관계’와 ‘시설’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국정홍포처, 2008: 206).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은 ‘병영문화개선’이라는 목표로 통합된다.

**2.3.1. 병영문화개선**

노무현 정부의 병영문화개선에 대한 정책은 군대에서 벌어지는 병역악습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군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기본권’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시작했다. “군복 입은 시민”이라는 담론이 국방부에 의해서 채택되기 시작한 것도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다[[106]](#footnote-105). 적극적으로 ‘사회로부터의 단절감을 해소’하겠다 목표로 설정한 첫 정부도 노무현 정부이었다. 참여정부는 2005년 빚어진 사건에 대한 진단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사회와 병영의 문화적 괴리감이 존재. **인권보다는 임무가 우선**되고, 권위주의가 일부 잔존하며,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의식 부조화 및 사회발전 속도 대비 병영 환경이 낙후하였다. 둘째, **국민적 공감대 및 신뢰 확보의 노력이 부족**. 적극적인 군 개방 노력이 미흡하고, 군 복무 간 목표의식이 없으며, 사회와의 단절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 잘못된 관행과 대형사고는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셋째,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의 추진**이 미흡. **의식변화보다는 외형적 제도의 보완에 치중**하였고, 병영 내부의 문제점을 단기적인 현상조치 위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국정브리핑, 2008: 206).

이러한 상황에서 병영문화개선에 대한 해법은 군대 바깥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먼저 2005년 범정부적인 ‘병영문화개선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장병의 인권과 군대의 복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목표였다. 그리고 다음의 <그림 3>과 같은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기도 하였다(국정브리핑, 2007).

<그림 3> 병영문화개선 추진방향



(출처: 국정브리핑, 2007)

국가인권위원회는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에 의뢰하여 군대 내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들을 제출하기도 했다. ‘민간인’들이 군대 내부에 들어가서 샅샅이 병영생활을 살펴보고 그것을 보고서로 제출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이러한 바깥에서의 개입이 가능해졌다는 것의 의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엄마'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곰신들의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한 것이 노무현 정부 초기의 일이었다. 2005년이 지나자 이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바깥의 ‘민간인’들의 개입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제도화라는 쟁점을 제기했다.

그러한 시민사회의 개입을 제도화하기 위한 제도가 ‘군경 감독관(옴부즈만)’제도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원래 국회와 시민사회에 의해 임명된 조사관이 행정부의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나 비리에 대해서 조사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한국의 군경 감독관 제도는 군대/경찰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 임명된 ‘민간인’ 조사관들이 조사 감시하여 현역 군인과 전의경, 예비역, 보충역 등의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든 제도였다(국가인권위원회 편, 2007). 2006년 12월 ‘군경 감독관’제도는 국무총리직속기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군사소위원회 형식으로 설치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이후에 각급 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감독관(옴부즈만) 제도를 언급하면서 합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만, 불합리한 합법적이지 않은 ‘예속’관계에는 저항하라고 이야기하곤 했다[[107]](#footnote-106).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지휘명령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지휘명령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 구분이 아주 중요하다. 합법적으로 지어진 의무를 국가를 대신해서 요구하고, 여러분은 복종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의무는 철저하게 복종하고, 지휘하는 사람들은 개인적 지배가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억압하고 지배해서는 안 된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다 할 것 없고, 지속적으로 국방부 그리고 군은 군 병영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갈 것이다. 군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데, 만들어졌는데, 군부대와 고충처리위원회와 접근성이 어떻게 좀 더 편리하게 될 것이냐가 과제인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군생활 경험 가지고, 아이 군대 보내보고, 생각난 것은 얼추 시작한 것 같다. 다 완결은 못했지만, 시작해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다음에 더 필요한 일은 여러분들이 더 요청하고 하면 또 바뀌어 가겠죠. (노무현 대통령 2007년 1월 29일 맹호부대 오찬 발언)

하지만 사실상 노무현 정부에 의해 제안된 군경 감독관제도는 실질적 영향력이 없었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먼저 **강제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군사소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설치되어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된다. 문제는 이러한 감독관제도에 의한 권고나 의견에 대해 국방부가 ‘존중’하라는 정도로 개입 수준이 법률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제도의 안정성 문제**였다. 군경 감독관 제도가 보통 다른 나라에서 감독관 제도는 위에 언급한대로 ‘의회’에 의해서, 즉 국회에 의해서 선임된 감독관들에 운영된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감독관 제도는 국무총리직속기구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이 말은 정권이 교체되면 손쉽게 제도가 와해되거나 변형되기 쉬운 것이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한 병영문화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실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전반적인 군대의 병영 환경이 개선되고 병사들의 기본권을 영유할 수 있게 하는 시설들에 대한 확충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만약 이 시스템을 조금 더 사회에 ‘뿌리내리려’ 했다면 의회 직속기구로 가거나 아예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컨소시엄 방식을 채택했을 것이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의석은 국회과반수를 점하고 있었고, ‘병영문화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병영문화개선위원회’는 이러한 방식을 제안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여전히 군대 밖에서만 말할 수 있을 뿐 군대 내부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만한 장치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이러한 제도화의 부재는 병사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소지를 내재하고 있었다. 요컨대 군대 내부의 인권을 확보하고 병영문화개선을 사회적 요구와 연동시키기 위한 기구는 제도화되지 않은 채 종결되게 되었다.

**2.3.1.2. 군 인적자원개발**

근대화 시기의 한국군은 일차적으로 냉전구도 하에서 영토방위의 목적을 수행해야 했고, 이를 위해 많은 병력을 운용해야 했고 징병제 시스템을 운용했다. 이러한 징병제의 과정은 그 형성에 있어서 한국전쟁의 발발 등 폭력적인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징병제 군대의 운용은 ‘제3세계’ 국가로서 경제개발을 강하게 견인했던 발전주의 전략, 즉 정치경제적 맥락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한국군은 경제개발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했고, 이러한 측면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노동력으로 남성들을 주체화해야 하는 필요와도 결부되었다.

군 인적자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역사적 전개와 개혁의 필요성을 살피는 과정에서 교육 및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108]](#footnote-107)의 맥락을 확인해야 한다. 군대에서의 교육이 단순히 국가방위의 전투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뿐 아니라, 국가의 정치경제 전략을 운용하기 위해 노동하는 주체를 양산하는 것, 그리고 국가의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과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일반교육, 기술교육). 또한 이는 사회에서의 문화를 구성하는 ‘상식’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으며 단순히 남성들이 징병의 대상으로 수동적인 위치에 처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군생활을 해석하는 주체였음을 상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군 인적자원개발은 앞서 2절에서 언급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축적 및 발전 전략인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계획과 연동되어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계획은 ‘지식기반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축적전략의 일환이었다(대한민국정부, 2006: 79). 개인들의 ‘인적자본’[[109]](#footnote-108)을 극대화하고, 이를 국가, 기업,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식기반 경제에 대응하는 ‘혁신주도형 경제사회발전 패러다임’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획이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1). 군 인적자원개발 역시 이러한 기획 안에 하위 분과로 위치해 있었다. 군 인적자원개발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군내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 증대, 국민들의 군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병영문화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 그리고 군 인적자원이 군내의 자원일 뿐 아니라 군 밖의 자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의 전환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06: 259). ‘첨단 정보화 기술군’이라는 안보의 목표와 ‘병영문화에 대한 신뢰’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모두를 군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진단되었다.

2003년 5월 10일 육군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간의 공동 학술 연구 협약이 체결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가·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각종 연구 사업의 공동 수행, 학술회의 및 세미나 등의 공동 개최, 공동 연구에 필요한 자료, 출판물, 정보 등의 상호 교환,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 등이었다(박효선, 2010: 156). 또한 지속적인 세미나를 실시했다. 제1차 정책 발전 세미나는 ‘국가·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민·군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2차 정책 발전 세미나는 ‘학교·군·직업세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군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주제로 해서 진행되었다(박효선, 2010: 157). 그리고 2004년 2월 육군은 최초의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 기획서인 『21세기 선진정예육군 육성을 위한 육군인적자원개발 추진 방향』을 발간했다. 이는 최초의 군 인적자원개발 기획서로, 주요 내용은 인적자원의 획득 배치 체계 개선, 군 인적자원개발 교육 훈련 발전, 교육 훈련 평가 인증 체계 도입, 군 간부의 전문 학위 교육 확대, 군 현역병의 자기 계발기회 확대, 산·학·연·정부·군 간의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성, 전직 지원 교육의 체계화, 인적자원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이다(박효선, 2010: 158).

육군에서 선도적으로 진행된 인적자원개발계획은 정부의 국가 인적자원개발 계획에 하위 분과로 편입되면서 전 군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4년 12월 22일에는 10개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장이 참여하는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공동 협약식’이 이루어졌다. 이를 계로 2005년 6월까지 공동 연구된 ‘군 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은 4대 영역 10대 과제로 구성되었다(박효선, 2010: 161).

2005년 7월 18일, 제3차 국가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제2차 국가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에 반영되었다(박효선, 2010: 162). 최종적으로 2007년 12월 13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노무현)에 '군 평생학습과 연계한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 상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여가 선용 및 교양 증진형 평생교육, 둘째,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셋째, 인력 양성형 평생교육 등이다(박효선, 2010: 143).

이러한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단순히 ‘인력 양성’을 통한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교육과 ‘여가 선용’ 및 ‘교양 증진’이라는 차원에 대응했다. 즉 인적자원개발의 구상의 차원은 군인들의 일상 전반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부분의 범주를 포괄하고 있었다.

**2.3.2. 자기계발하는 군인**

2005년의 GP 총기난사 사건을 통해 전개되었던 병영문화개선 정책과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합치되기 시작한다. 병영문화개선은 2005년 국면에서 급속히 전개되고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김대중 정부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었지만 두 가지는 점차 수렴되기 시작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방부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참조할 수 있다.

군 인적자원개발을 통해서 이제 군에 가면 속된 말로 ‘썩는 것’이 아닌 정말 군에 가서 가다듬어지고 **부모 입장에서 정말 마음을 놓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군 전체의 사기도 올라가고 국방력도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틀 속에서 군 인적자원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김광조, <국방TV> 토론, 2006. 7. 25)

즉 군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병영문화개선에 대한 요구(“부모 입장에서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는”)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시간을 썩히지 않고 사회로부터의 단절감(경력 단절, 자기계발을 못 하는 환경)을 극복함을 통해 군대가 좋아졌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군 인적자원개발이 병사에게 보장해주는 것(자기계발)이 ‘인권’(병영문화개선)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군대에서의 ‘자기계발 여건’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실현되었다.

먼저 ‘참여 정부’는 군대에서 학점 은행제를 통하여 대학교를 휴학하고 군대에 간 남성들이 공부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군대 안에 ‘진중문고’를 보강하고, 인터넷 사랑방(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확충하여 정보화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즉 ‘참여 정부’의 ‘인력 양성형 평생교육’은 군이 예전처럼 주도하거나 병사 개개인에게 맞춤으로 제공되는 방식이 아닌 ‘자기계발 여건’을 보장하는 방식이었다.[[110]](#footnote-109)

두 번째로 새로 설치된 인터넷 사랑방(사이버 지식 정보방)에는 <해커스 토익> 등을 수강할 수 있는 ‘e-러닝’(전자매체를 이용한 학습)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당시 e-러닝은 교육 방식의 트렌드였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는 상황이었다. 국방부는 2006년 3월 e-러닝 포털 구축 사업자로 군인공제회를 선정해 장비 구입 및 S/W 개발비 등으로 36억 7600만 원의 초기 개발 비용과 10년간 운영 및 유지비용을 무상 지원하도록 했다. 군e-러닝 포털 시스템은 교육 콘텐츠 선정 및 지원 분야와 시스템 개발, 운영 분야의 2개 분야로 구분해 추진했는데, 교육 콘텐츠 선정, 지원은 교육부와 국방부가 담당하고, 포털사이트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은 군인공제회 C&C에서 사이버 지식정보방 관리 시스템과 연동 운영토록 했다[[111]](#footnote-110).

세 번째로 각 부대에 ‘진중도서관’들이 설립되고 ‘진중문고’가 보강되었다[[112]](#footnote-111). 진중문고의 보강은 대부분은 지자체나 민간에서 기증되어 들어오는 것이었다[[113]](#footnote-112). 민간의 경우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가 그러한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했다.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이나, 교보문고나 YBM어학원 등의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후원받아 진중 도서관들을 짓기 시작했다. 이러한 민간/기업에서의 진중 도서관 설립은 보통 전방부대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114]](#footnote-113).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로 전군에 많은 진중문고들이 지자체들과 민간 부문의 노력들로 인해 확충되었다.

다른 한 편 병사들의 생활환경이 변화했다.

먼저 군대의 점호가 끝나고 자야하는 10시 이후의 시간에도 학습을 위한 연등 시간을 확보해주겠다고 했다. 병사들은 12시까지 연장된 연등시간을 활용하여 영어공부나 자격증 공부, 혹은 독서를 하기 시작했다[[115]](#footnote-114).

두 번째로 병사들의 근무와 복귀를 ‘출근’과 ‘퇴근’의 개념으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그 전까지는 내무반으로 ‘복귀’하는 것이고 내무반에서의 생활도 ‘근무’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근무가 끝나고 자기를 위한 시간을 병사들이 쓴다는 것은 ‘근무’에서의 예외적인 상황임을 뜻했다. 그런데 이제 내무반의 이름이 ‘생활관’으로 바뀌었다. 즉 퇴근하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간다는 의미가 새겨진 것이다. ‘퇴근’을 했다고 이름 붙여주는 것은 병사들에게도 퇴근 했으므로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하나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육군 26사단에서는 ‘그린 존’라는 장소가 고안되기도 했다[[116]](#footnote-115).

세 번째는 그 전까지 군대에서 ‘야간점호’가 2005년부터 각 부대에서 폐지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모두 일렬로 모여 당직사관이나 간부들에 의해 검사와 지시사항을 전달했던 야간점호가 폐지되고 병사들의 ‘자율형 점호’로 바뀌기 시작했다. 공군부대들에서는 불침번도 당직과 통합하여 폐지하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자율성이 향상되기 시작했다[[117]](#footnote-116).

네 번째는 주 5일 근무제의 보급이다. 2005년 7월 1일부로 5일 근무제가 보급되고 토요일 근무가 없어졌다[[118]](#footnote-117). GP나 GOP 혹은 해안경계부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대들의 병사들은 토요일에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미실시 부대에는 위로 휴가 10일을 추가로 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위에 말했던 변화들과 더불어 ‘자기 시간’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마지막으로 일선 부대에서는 자격증 시험이나 영어 시험 응시를 위한 휴가, 외박, 외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각 부대들은 자기계발에 매진하는 병사들의 모범사례를 국방일보나 지역 미디어 등을 통해 보여주곤 했다[[119]](#footnote-118).

노무현 정부가 진행했던 일련의 개혁(병영문화개선, 군 인적자원개발)이 전개되면서 병사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게 되고, 동시에 좀 더 나은 자기계발 여건을 보장받게 되었다. 또한 점호 폐지와 생활공간의 확보를 보장받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병영문화개선이 제기되었던 배경(인권 침해)의 부문에 있어서 제도화가 미비했다는 점이고, 군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홍보와 달리 반드시 병영문화개선과 군 인적자원개발이 같은 지향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일치한 지점들을 3장에서 엘리트 남성들의 군생활을 살핌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엘리트 남성의 군생활로 본 2000의 군복무

**3.1.1. 병무환경의 전환과 엘리트 남성들의 전략**

한국 사회에서 ‘병무비리’는 1990년대까지 일상적인 사건이었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던 주민등록제도나 병역 기피자 단속을 통해서 분명 징병률 자체는 비약적으로 상승했지만, 상층 계급 남성들의 ‘병무비리’는 만성적이었다(신병식, 2006: 162). 해외 유학 중에 입영 대상 나이 만31세를 넘겨서 병역 의무 대상에서 빠져나오는 기법, 신체검사를 통하여 6∼7급 면제나 5급 제2 국민역 판정을 받는 방식은 만연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까지의 국가는 이러한 상층 계급 남성들에 대한 특별한 통제를 강구하지는 않았다. 병역기피자 단속은 엄격하게 진행했지만, ‘병무비리’ 자체는 명백한 불법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경계를 묘하게 교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강력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 달리 말하면 국가는 병역회피를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비행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 편에서 상층 계급 남성들의 탈법과 편법에 대해서는 묵인했던 것이다.

오히려 국가는 이들을 병무 제도 안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곤 했다. 예컨대 1954년부터 이승만 정부는 대학 재학생들이 입영할 경우 그들을 ‘전시군인연합대학’에 편입시키는 방식을 강구하거나 복무 중 주위의 야간 대학 등에 다닐 수 있도록 했다(박효선, 2010: 57-61). 1971년에 설립되었던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의 병역 면제 같은 경우는 우수한 남성 연구자원을 확보하려했던 국가의 전략이기도 했다(문승숙, 2007: 88). 그리고 1984년부터 1992년까지는 6개월간 복무하는 석사장교[[120]](#footnote-119) 제도가 운용되기도 하였다. 달리 말해 국가는 상층부 엘리트들의 병역 기피 성향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유화책’을 통해서 이들을 포섭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1997년부터는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선 당시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의 아들들에 대한 ‘병무비리’ 문제가 불거졌고, 이러한 연유로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다. “유전면제, 무전입대냐?” 같은 여론이 사회적으로 팽배하게 되었다.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 중 한 명은 체중 미달로 군 면제를 받게 되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병무청의 신체검사 판정 기준 자체가 엄격해 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김대중 정부 초기였던 1998년 6월에는 병역 판정, 카투사 선발, 부대 배치, 보직 조정 등에서 비리를 저질렀던 원용수 준위 사건이 군 검찰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121]](#footnote-120). 이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고 그 평등성을 중시하는 여론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공론화를 다른 방식으로 꺾을 수는 없는 것이었다. 또한 2002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려던 톱스타 가수 유승준의 입국이 거부되었다[[122]](#footnote-121).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유승준이 매스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군대를 가겠다고 했었고, 4급 공익 판정을 받았으나 결국 한국 국적을 포기했었기 때문이었다. 병무청은 “유씨가 공연 목적으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병역법을 악용한 고의적인 병역의무 회피로 판단된다”며 유승준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국 관리국에 입국을 금지토록 협조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인터넷은 예비역들의 ‘분개’로 들끓었다[[123]](#footnote-122). 최근에도 이를 뽑아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가수 MC몽의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예비역들의 ‘의거’가 다시 한 번 시작되었다. 위에 언급했던 주요 포탈의 게시판에서는 MC몽에 대한 규탄이 진행되고, MC몽을 희화화하는 카툰들과 합성사진들이 도배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병무비리와 병역기피를 방지하는 제도적인 조치들이 진행되었다. 우선적으로 국회에서는 과거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법역법 개정안이 2002년에 통과되었고[[124]](#footnote-123), 2005년에는 외국에서 출생한 재외동포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할 경우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여론의 지지를 힘입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주도적 발의로 통과되었다[[125]](#footnote-124). 이와 더불어 2005년 6월 7일 법무부는 새 국적법이 적용되기 전에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했다. 국적포기자 중 98%는 남성이었다[[126]](#footnote-125).

이러한 상황에서 상층 계급의 남성들은 더 이상 병역 제도 자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어떤 방식으로든 군 복무를 수행해야만 하게 되는 조건[[127]](#footnote-126)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한국에서 일반적인 군생활인 육군-전투병을 선택하지 않았다.

다른 한 편 유학파 혹은 ‘사회지도층’ 남성들 외에 ‘명문대생’의 집단과 그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군대에 대해 대응하게 되는 남성들의 집단이 등장하게 된다. ‘명문대생’과 다른 남성들의 경우 기존에도 카투사 등의 방식으로 군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들의 그러한 ‘다른 군생활’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꺼려하는 것이었다(김현영, 2001; 권인숙, 2005b). 하지만 다음 항에서도 논의하겠지만 이들의 ‘다른 군생활’이 ‘자기계발하는 군대’의 맥락과 더불어 권장되는 것으로 변한다. 군대의 엘리트 남성들의 인적자본(‘영리함’)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선택된 남자들’로 자신들의 군생활을 기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장에서 그들은 군대가 아니었다면 이미 통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본(문화 자본, 사회 자본)을 획득하고 있는 편이었고, 한국에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전장인 입시의 게임에서도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기에 좋은 위치를 점하게 된다[[128]](#footnote-127).

**3.1.2. 군대 족보와 입대 루트**

이러한 다른 군대에 가기 위해 입대준비를 할 때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보’를 획득하는 일. 즉 정보력을 갖추는 일이다.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은 크게 보아 3가지 경로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스스로 인터넷 등을 뒤짐으로써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다(E의 경우[[129]](#footnote-128)). 둘째로 스스로 정보를 얻는 경우 외에도 한 편으로 **부모님에게 정보를 얻는 경우**가 있고(B의 경우)[[130]](#footnote-129), 셋째로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주위 선배나 동기**’들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획득한다고 한다(C, D, E, G, H, L,. M의 경우). 이러한 정보는 ‘일종의 루트[[131]](#footnote-130)’로 돌고 있다.

연구자: 의무 소방을 왜 가게 되었어?

C: 편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연구자: 누구한테?

C: 선배 중에 간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뭐 아무래도 일반 병보다 편하지 않겠냐. 기본 코스라고 하는 게 보통 말에 카투사 시험 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의무소방 시험 보고 또 떨어지면 공군 병보고. 일종의 루트가 되어 있어.

‘일종의 루트’로 정보가 돈다는 것은 실제로 이러한 정보가 돌지 않는 집단에 대한 배제기제로 작동할 소지가 있다[[132]](#footnote-131).

연구자: 네가 고졸이라면 의무소방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B: 그건 내가 SKY가 아닌데 외시를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기분? 생각은 할 수 있지 하지만 자신감이라든가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하겠지.

연구자: 본인이 가게 된 게 자기가 갖고 있는 학력자본. 고등학생이어도?

E: 그건 말이 안 되죠.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토익 점수만 있으면, 고졸 이상에 토익 점수만 있으면 다 되는 거니까. 자격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건 좀..

연구자: 본인이 그랬으면 카투사 가는 가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E: 힘들었겠죠. 애초에 토익이라는 시험을 본다는 거 자체를 생각을 못 했겠죠?

하지만 입대 정보에 대해서 알음알음 알게 되는 것만으로 이들의 입대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입대준비는 상세한 ‘족보’라든가 입시 ‘전략’을 통해서 훨씬 더 구체화된다. 먼저 살펴볼 것은 그 ‘족보’이다. C는 선배들로부터 듣게 되는 정보를 표로 그려서 연구자에게 제공해주었다.

<표 6> C의 군대 족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1학년 | 2학년 | | 3학년 | 4학년 |  |  |  |  |  |
|  |  | 1학기 | 2학기 |  |  |  |  |  |  |  |
| 준비사항 | 토익  780 이상 | |  |  |  | 이공계 졸업 또는 상경계 졸업 | | 고시, CPA 합격 혹은  석사학위 취득 | | |
| 1순위 | 상근예비역  (재수 했을 경우) | 통역병- 반복 지원 가능  /카투사-1회 지원 가능 ,토익 780 이상 | | |  | 연구소 및 산업체 근무 | | 육해공군 특수 사관  (고시합격, CPA, 석사 교관 등) | | |
| 2순위 |  | 의무소방 | | |  | 공군 통역 장교(만 27세 나이제한) | | | | |
| 3순위 |  | 공군 병  (급양, 방공포, 헌병 제외) | | |  | KOICA | | | | |
| 4순위 |  |  | | |  | 공군 일반 병과 장교(만 27세 나이제한) | | | | |
| EXTRA | 공익근무  면제 | | | | | | | | | |

이러한 군대 족보는 나이를 통해 생애주기를 감안하여 작성된다. 일단 결정을 지어야 하는 것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나 CPA 같은 ‘큰 시험’을 군대 가기 전에 볼지 안 볼지에 대한 것이다. 군대 가기 전에 ‘큰 시험’을 치를 경우 군대에는 연기가 가능하다. 또한 ‘큰 시험’에 합격할 경우 각 군에서는 ‘우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장교 전형을 무시험으로 통과시켜주고 있기 때문에[[133]](#footnote-132) 군대 가기 전에 ‘큰 시험’을 치르려고 결심하면 장교로 복무하는 것을 전제하게 된다. 다른 한 편 ‘큰 시험’에 졸업할 때까지 합격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곧 바로 학사장교(사관후보생)로 복무하는 방법 등이 생긴다.

3.1.2.1. ‘큰 시험’을 치르고 입대할 경우 – ROTC, 학사장교, 군의관, 교관

장교복무의 경우 세간의 인식과 달리 각 군에 따라서 그 경험은 천차만별이다. 한국사회에서 많이 언급되는 장교의 모습은 사관학교를 나오거나, 1961년에 생긴 대학교 3∼4학년 동안 학군후보생복(단복)을 입고 다니는 ROTC(학생군사교육단: Reserved Officers Training Corps)들의 모습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짚어 볼 수 있다. 먼저 따져볼 것은 ROTC를 중심으로 단기장교에 대한 이야기가 돈다는 것이다. 각 군의 사관학교는 생략하더라도, 28개월 정도(해군 24개월, 공군 36개월)를 복무하는 ROTC의 모습은 ‘단기장교’를 떠올릴 때 가장 지배적인 이미지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생략되어 있다.

첫째로 육군 ROTC의 경우 학교에서의 학군단으로서의 모습과 훈련을 갔을 때의 모습, 그리고 자대에서 겪게 되는 생활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대체로 많은 육군 ROTC 장교들이 전방에서 소대장으로 복무하게 되며, 이들의 생활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낭만화된’ 장교들의 생활과 많이 다르다. 그들은 출퇴근이 명문화되어 있어도 ‘대기’(전투대기, 비상대기 등) 때문에 병영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134]](#footnote-133). 휴가의 활용도 마찬가지다. 다른 한 편 각 군별로 ROTC 장교들의 생활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해군에서 ROTC 장교들이 기대하는 것과, 공군에서 ROTC 장교들이 기대하는 것은 육군 ROTC 장교들의 그것과 판이하게 다르다[[135]](#footnote-134).

두 번째로 육군 ROTC로 대표되는 이들과 전혀 다른 공군 (학사)장교가 있다는 것이다. 공군 (학사)장교에게 기대되는 바는 육군의 ROTC와 학사장교(사관후보생)에게 기대되는 것과 전혀 다르다. 누가 들어가는지도 전혀 구성이 다르고, 그들의 생활도 마찬가지로 전혀 다르다. 육군 장교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방’을 떠올리기 일쑤이지만, 공군 장교들은 대체로 대도시에 근무하며 자신의 휴일과 휴무를 공식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명문대생’들로 구성되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회적 자본의 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전통적인 ‘씩씩한 남자들’의 이미지는 육군 장교들의 경우만 해도 많이 남아 있는 편이지만, 공군장교들에게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장교들이 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공적’을 쌓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군은 그러한 역할을 인지하면서 대응하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군 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일반전형의 경우 영어(공인영어성적)와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 공직적격성평가)을 통해 선발을 한다. 그 외에 많은 특별전형들이 있고 어학특기자들(통역/번역)을 뽑는데, 일반전형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입대한 ‘비명문대’ 생들이 놀랄 때가 바로 이 통(번)역 장교들이 나온 학교를 확인할 때이다(박양근, 2006: 163-164)[[136]](#footnote-135).

그 외에도 의대를 나온 남성들은 군의관을 가지 않는 이상 공중보건의나 징병전담의사로 군복무를 마치고, 국제협력의사가 되기도 한다. 수의대를 나오면 공중방역수의사가 될 수 있다. 그 외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국제협력봉사요원도 선호의 대상이 된다[[137]](#footnote-136).

다른 한 편 군대 가기 전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인문사회계열에서 선호하는 것은 교관(장교) 복무이다. 석사의 경우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그리고 육군 3사관학교 등의 자신의 전공 교관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러한 교관은 중위로 임관하여 3년 + 훈련기간(12∼16주)의 기간 39개월 정도를 복무하게 된다.

인문사회계열이 아니라(작지만 일정 수는 인문사회계열에도 열려있다), 이공계를 다니는 경우에는 다른 경로가 열려있다. 그건 바로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즉 ‘병역특례제도’를 통해 복무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 성격이 조금 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이공계 살리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지 않고 있으며, 연간 만여 명을 선발한다.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2011년 폐지가 결정되었으나, 군복무기간 단축이 줄어들면서(6개월 → 3개월) 존속시키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대 예비역’이라는 말이 굉장히 욕으로 들리던 시기가 있었다. ‘기계과+육군 병장’이면 완벽한 ‘공대 예비역’의 조건이라는 이야기였는데, 대체로 많은 이들이 병역특례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2학년 쯤 마치고 군대를 가던 시절에는 그 말이 잘 맞아 떨어졌었다. “군대 빨리 하고 오는 게 최고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공대에도 군복무를 마치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공대의 분위기들도 달라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서사도 학교별로 강한 편차를 보인다[[138]](#footnote-137).

3.1.2.2 ‘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대할 경우

하지만 많은 경우 일단 군대를 갔다 와서 ‘큰 시험’을 보거나 나머지의 생애기획을 하려 한다. 그러한 경우 이들은 일단은 면제나 공익근무를 떠올린다. 하지만 G가 말했던 것처럼 몸이 ‘아픈 것을 증명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고, 병역법에서 신체검사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선호되지는 않는다. 다른 한 편 ‘명문대’를 들어오는 남성들 중 많은 경우가 재수를 하곤 한다. 그러한 이들은 상근예비역이 되는 경우도 있다. 상근예비역은 일단 고졸인 남성들 중 동네의 예비사단의 규모에 맞춰서 선발되고 업무는 주로 예비군 훈련 입소 통지서 등을 배부하는 일과 갖가지 행정업무로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상근예비역은 현역 부대에 입영된 상태로 군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것이다[[139]](#footnote-138). 하지만 상근예비역이 되는 것도 ‘요행’이다.

면제, 공익근무, 상근예비역이 되는 ‘요행’인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선택지는 카투사, 통역병, 의무소방, 공군 병 정도가 된다. 이것들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카투사(KATUSA: Korean Augmentation Troops to the United States Army 미 육군에 대한 한국군의 증원 병력)를 들 수 있다. 카투사는 1년에 2,000명 정도를 뽑는다. 카투사에 가기 위해서는 우선 신체검사 기준으로 현역(1~3급) 등급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토익 780/텝스 690/토플(iBT) 83/G-TELP 273/FLEX(한국외국어대학교 주관의 시험) 690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카투사 선발은 2004년부터 컴퓨터로 공개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논산훈련소에서 5주 훈련을 이수하고, 의정부에 있는 카투사 교육훈련단(KTA)에서 3주간 후반기 훈련을 받는다. 카투사들의 생활은 여러 커뮤니티들에 의해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보통 평일 일과 후의 외출을 보장받고, 주말에는 외박이 허용된다. 물론 휴가도 있다.

연구자: 공식 휴가는 어떻게 되요?

D: 휴가는. 일병 진급 10일(9박). 상병 진급 8박 9일. 말년 휴가 8박 9일. 공식 휴가는 그렇게 밖에 없어요. 중간에 따로 포상을 받지 않는 이상.

연구자: 포상은 자주 줘요?

D: 한국군에서 나오는 건 되게 짜죠. 잘 없죠. 이런 거 뭐. 무슨 대외. 보안 글짓기. 안보 글짓기. 미군은 되게 자유롭거든요?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 직속상관한테 잘 보였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번에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일을 잘 해내가지고. **이번 주말 그냥 이틀만 더 놀다오면 안 될까? 2박 3일짜리 외박을 4박 5일로 해주면 안 돼? 그러면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싸인을 해주고 그 위에 올려 가지고 중대장한테 사인을 받아가지고 한국군 장교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그래 나갔다와라 하면 그냥 바깥에 나갈 수 있어요(강조는 연구자)**.

그리고 카투사의 가장 큰 메리트로 손꼽히는 것은 아무래도 미군과의 생활일 것이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순탄하지는 않고, 종종 ‘민족주의 감정’을 확인하는 일도 있고 미군 병사들의 ‘몰상식함’에 놀라거나 그들을 경멸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카투사들은 자신들의 군생활에 만족 한다[[140]](#footnote-139). 그리고 그러한 측면들 때문에 실제로 카투사의 인적 구성은 ‘명문대생’ 위주의 엘리트 남성[[141]](#footnote-140)이 대부분이다[[142]](#footnote-141).

두 번째는 의무소방(대)이다. 의무소방은 2001년에 ‘의무소방대설치법’에 의해서 설치되었다. 첫해에는 500명 정도를 선발하였는데, 그 규모는 대체로 노무현 정부 시기 유지되었으나 2009년에 250명, 2010년에는 170명만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9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2012년에 선발을 중단할 계획이다[[143]](#footnote-142).

의무소방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카투사와 마찬가지로 신체검사 현역(1∼3급) 등급을 받고, 자체 기준의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의무소방은 필기시험을 치르는데 그 과목은 한국사, 한국어, 일반상식(소방상식 포함)이다. 의무소방은 설치됨과 동시에 그 필기시험 때문에 ‘제2의 카투사’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다. 실제로 의무소방의 절대다수 구성원들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남자들이다. 이 필기시험을 마치고 나면 면접시험을 보고, 그 과목은 일반상식(소방상식 포함)과 사회, 정치, 문화, 시사 등이다.

의무소방에 합격하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중앙소방학교에서 4주간 소방훈련을 받고 자신이 선발된 지역의 소방본부로 자대배치를 받는다. 의무소방은 육군 현역병보다 2개월 복무기간이 길지만 카투사와 마찬가지로 높은 경쟁률을 자랑한다. 사회와 멀지 않고(국방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전투 관련 업무도 아니고, 육군에 비해 더 많은 외박을 보장을 받으며, 근무 시간 외에 병영과 같은 방식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연구자 : 직원들은?

J: 직원이랑 우리가 같은 곳을 쓰지 않아서. 사무실에서는 일이 많아서 책을 못 본 것도 있고. 우리끼리 쓰는 의무소방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선 선임들이 영어공부하거나 후임들도 다 같이 공부하거나 책 보거나. 근데 되게 공부들 다 했어. 뭔가를 했어.

의무소방을 다녀온 남성들은 의경(의무경찰)처럼 훈련기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훈련을 받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파악하게 된다고 한다. 200명 남짓, 이제는 줄어 80명 남짓이기 때문에 8주라는 시간 동안 속속들이 서로에 대해 잘 파악하게 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안의 남성들끼리 그룹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들은 훈련소에서 서울대 30%, 연고대 30%, 그리고 나머지 학교 40%. 또한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중 ‘주요대학’ 말고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서강대를 다니는 몇 명의 무리가 학교에서 수업이 시작하는 종과 끝나는 종이 2004년부터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문’들을 끌어 모으고 있을 때 가장 많은 숫자의 서울대 출신의 남자들은 ‘녹두거리’에서 어느 집이 맛있었는데 거기 같이 휴가 나가면 가자면서 또 이야기꽃을 피운다고 한다. 이들의 유대감은 훈련을 통해서 맺어지는 ‘전우애’가 아니라 이미 맺어진 바깥의 사회적 네트워크인 학벌을 통한 ‘동질감’에 다름 아니다.

세 번째는 바로 통역병·통역장교이다. 우선 통역병은 ‘어학병’이라는 이름으로 해군과 공군에서 선발하고 있고, 2002년부터는 육군에서 정식으로 ‘통역병’ 전형을 시작했다. 육군에서 통역병이 시작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병역법, 국적법, 해외동포법이 개정되는 시기와 맞물린다. 어학병은 카투사보다 훨씬 높은 어학 점수 기준이 필요하다. 토익(TOEIC) 900과 이에 상당하는 점수(TEPS 870, TOEFL 100(iBT), G-TELP Level 2:90, FLEX 870)이 최소 지원가능점수이다. 육군 통역병에 지원하게 되면 이틀에 걸쳐서 전형을 치르게 되고 첫 날에는 (한영, 영한) 번역과 일반 영어 능력 시험, 둘째 날에는 통역 시험과 영어 인터뷰를 보게 된다.

통역병들은 보통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근무하게 되고[[144]](#footnote-143) 평소에는 자대 본연의 업무를 하지만, 통역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통역 자체를 잘 안 하고, 대부분은 번역 업무에 치중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통역병이라는 명칭보다는 ‘어학병’이라는 명칭이 더 어울린다고 한다. 실질적인 통역 업무를 하는 것은 통역장교이다. 통역장교의 지원조건은 앞서 언급한 통역병 자격조건에다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보태어진다. 통역장교들은 통상 ‘해외파’(해외 대학 졸업) 90%, ‘국내파’ 10% 정도로 구성된다고 한다. 보통 해군과 공군의 경우 하루에 모든 전형을 다 치르고, 육군은 특수사관 전형시 통역장교를 동시에 선발하는데 통역병과 마찬가지로 이틀에 시험을 치르게 된다.

4)마지막으로 공군 병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공군 병은 앞서 C의 족보에서 발견하듯이 가장 선호되는 것은 아니다. 공군의 메리트는 6주에 한 번 나오는 외박, 그리고 1년에 25일로 주어지는 연가. 그리고 잦은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이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4주에 한 번 꼴로 외출/외박/휴가를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연구 참여자들이 밝히는 메리트이다.

공군 지원해가지고 가는 선배들이 좀 있어 가지고 보니까 편하다. 중요한 게 6주마다 휴가를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육군 가면 어디로 떨어질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공군은 성적순으로 되니까.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진주 가겠다고 하면 경쟁을 안 해도 되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조교로 뽑았으니까. 거의 저는 헌병 특기를 받아서 원래는 총무랑 보급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헌병이 된 거예요. 일단 특기는. 야, 망했는데. 죽어도.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게이트는 못 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반기 교육을 갔는데. 딱 조교를 보니까 좀 괜찮은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훈련소 조교는 빡세긴 빡센데. 후반기 교육은 괜찮은 것 같아서. 키가 크고 이러니까 기수 하고 이러다보니 조교랑 친해져가지고 한 다고 했죠(L).

공군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적에 따라서 자신의 주특기와 배속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공군을 지원하는 경우 연구 참여자들은 3개의 주특기를 피하기 위해서 훈련성적을 잘 받으려고 ‘죽을 똥 살 똥’ 노력한다고 한다. 그건 바로 헌병, 방공포, 급양 3개의 특기이다[[145]](#footnote-144). 헌병의 경우 부대 게이트(정문, 후문 등)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하고, 내부의 기율이 강하고 구타가 잦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 헌병 특기를 받더라도 훈련소가 끝나고 이어지는 후반기 교육에서 성적이 좋으면 몇 군데 교대근무가 없고, 좀 편한 보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 역시 치열하다고 한다. 방공포의 경우 대부분 중소도시나 대도시 주위의 비행기지(비행단, 비행전대)에서 근무하는 다른 주특기들과 달리 산에 위치한 대공포 기지에서 복무하기 때문에 열악하다고 하고, 방공포 부대가 원래는 육군 소속에서 1991년부터 공군으로 전군(轉軍) 하여 넘어왔기 때문에 ‘육군 분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피해야할 대상으로 간주된다. 방공포 특기를 받았을 경우에도 남성들은 후반기 교육에서 비행단 포대로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 마지막으로 급양은 부대의 식사를 전담하는 특기이다. 급양의 경우 식사준비를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고, 보통 행정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특기의 병들과 달리 몸을 써서 고된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피된다. 급양 특기를 받았을 경우를 공군에 지원한 남성들은 가장 기피한다.

이러한 족보를 통해 엘리트 남성들이 원하는 부대에 대한 개략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경력 관리를 위하여 ‘큰 시험’을 언제 어떻게 볼지 또는 대학원 진학 등을 고려해서 자신들의 입대 일정을 조정하며, 앞서 박수왕 등(2010)이 언급하듯이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듯 자신들의 군과 특기 등을 입대 이전에 미리 정한다**. 휴가를 자주 나와서 사회와의 접촉성이 높으며, 육군과 달리 몸을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곳이 이들이 선호하는 부대의 조건이며, 그와 더불어 휴대폰 등을 쓸 수 있는지도 이들의 고려대상이다. 동시에 이러한 조건 안에서 자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는 것이 이들의 입대 전략에서 주요한 부분이다.

**3.1.3. 입대준비 커뮤니티와 입대 학원**

**3.1.3.1. 입대준비 커뮤니티**

앞서 언급한 이러한 ‘족보’와 ‘루트’를 통해 도는 정보는 여전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상황들에서 적용하기에 한계에 봉착할 때가 많다. 또한 자기계발 담론의 유포와 여러 책들의 등장은 많은 남성들로 하여금 ‘자기계발하는 군대’에 대한 요구를 만들어내지만 개인들에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먼저 활용하게 되는 것이 온라인에 있는 입대 준비 커뮤니티이다.

이러한 입대 준비 커뮤니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하나는 입대를 준비하는 남성들(장교 준비 커뮤니티에는 여성들도 존재한다)이 개설한 커뮤니티이고, 다른 하나는 학원에서 개설한 커뮤니티이다. 입대 준비 커뮤니티는 원래 남성들이 직접 알음알음 정보를 모았던 커뮤니티가 많았는데, 입대 준비 학원들이 생겨나고 통역병과 같이 ‘특수한’ 전형을 보는 경우에 이에 특화된 정보들이 필요해지면서 학원이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진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입대를 준비하는 남성들이 만드는 커뮤니티는 다음 카페 등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존재했다. 2000년에는 <학사장교(육군, 해군, 공군, 여군): <http://cafe.daum.net/haksa36>>이 개설되었고, 2001년에는 <[의무소방대:http://cafe.daum.net/FIREMAN](http://cafe.daum.net/FIREMAN)>, <예비공군사관후보생들 다 모여라: <http://cafe.daum.net/preofficer>>가, 2005년에는 통역병으로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 만든 <21C 통역병 카페>: <http://cafe.daum.net/rokusinterpreter>)이 개설되었다[[146]](#footnote-145).

이러한 입대 커뮤니티에서는 매년 매 기수의 선발 인원이나, 입대 전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Q&A 게시판’ 등에서는 전형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군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간다. 이러한 질문은 주로 지원자들이 하게 되고, 응답은 지원자들 중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운영자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군생활을 했던 예비역들이 직접 응답해주는 경우도 많다. 질문의 내용은 각 전형을 치르기 위해 준비해야 할 운동이나,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교재 등이 그렇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시험을 친 남성들의 ‘**시험 후기**’이다. 시험 후기에는 필기시험, 면접 등의 상세한 묘사가 되어있고 이는 차후 지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된다[[147]](#footnote-146). 다음은 <예비공군 사관후보생들 다 모여라>의 게시판에서의 질문과 답변이다.

2011. 2. 26 "국가 필기시험에 관해..."

인지평가는 학사장교 뛰어넘기를 골랐는데요..

국사 관련 책을 고를려고 보니... 말씀해주신 책들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본 건 신지원출판사의 군무원 기출문제집 국어-국사 책인데,, 확신이 안서서서요.

죄송하지만, 적어주신 책 말구 다른 분들은 어떤 책을 보셨나요? ㅠㅠ

직접 공부하셨던 책으로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a: ebs 수능특강 국사책으로도 충분합니다. 기출문제라고 치고 검색해보세요. 어느 정도 경향성을 살피실 수 있을텐데.. 근현대사는 거의 안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국사에 초점을 맞추시고 공부하세요.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출에서 몇 문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b: 이비에스보다 더 저렴하고 쉬운방법은요. 다음 카페에 국사 관련 검색하시면 pdf 파일 9, 7급이 500페이지 정도 되는 게 돌아다녀요. 그거 받아서 푸시고 해설 외우시면 2, 3개 안 틀립니다.

c: 책은 검증된 거 하나 보시고 기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각 카페들은 예비역 선배, 현역 선배들과 지원자 후배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MT나 술자리 등이 그렇다. 그리고 동기 각 기수가 확정이 되면, 커뮤니티 내에서 합격자들은 ‘번개 모임’등을 주선하고, 입대일이 다가오면 공군 장교나 카투사의 경우 같이 버스를 대절해서 입대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리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볼 수 있다.

**3.1.4.2. 입대 학원**

그런데 이러한 커뮤니티들은 대체로 2000년대 후반을 경유하면서 학원이 운영하는 커뮤니티들로 대체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남성들의 군대 경험담 및 자기계발서, 군대의 공적담론들 외에도 사교육들도 이러한 자기계발하는 군대에 대한 담론들을 유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내 최대 학원 법인인 <메가스터디>의 ‘카투사 특강’이다. 사교육 시장에서 이러한 ‘다른 군생활’에 대한 대응이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강남의 S 어학원은 2008년부터 통역병에 대한 맞춤형 수업을 시작했고, 공무원 학원들에서는 2003년부터 의무소방원 과목 중 국어, 국사 과목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초창기 통역병이나 의무소방원 등 ‘다른 군생활’을 하게 하는 과정이 가시적으로 드러났던 것은 아니고, 현재도 ‘다른 군생활’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것이 ‘상식’처럼 인식되지는 않는다. 또한 언급된 3가지 군대 중 카투사의 경우는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일반 TOEIC 강좌 등을 수강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쪽집게’ 강의를 하는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다. 의무소방의 경우 공무원 시험 과목과 겹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화된’ 수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 학원에 수강하는 경우는 아직 드문 것으로 드러난다.

연구자: 의무소방 준비하는 하는 학원 있는 거 알아요?

A: 네. 강의도 있던데? 인터넷 강의.

연구자: 수강해본 적 있어요?

A: 아니요.

연구자: 주위에 그거 듣고 간 친구 있어요?

A: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숨기는 건지……

연구자: 그게 공무원 학원마다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혹시 아나 해 가지고. 후배 중에 혹시 있으면.

A: 그게 찾으면 뭐 혹시 그거 하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면 물어볼 수는 있는데. 다들 숨기고 싶어 할 테니까. 왠지. 잘 말을 안 해줄 것 같아요.

연구자: 왜요? 쪽팔려서?

A: 네. 기껏 이거 준비하는 데 인강(인터넷 강의) 들었다고 하면 쪽팔려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2010년 등장한 <메가스터디>의 카투사 특강은 ‘특화된’ 과정을 이수해야 합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미 통역병 맞춤형 강의를 했던 어학원들은 이러한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광고하고, 다른 한 편 공무원학원들도 2008∼9년을 기점으로 의무소방과정을 명시하여 개설하기 시작했다. 공무원학원들에서는 ‘일반상식+소방상식’ 과목 강의를 한다.

<그림 > <메가스터디> 카투사 현장특강 배너



<그림 > 의무소방 수강 패키지 배너



이러한 상황에서 점차 ‘입대 사교육’이라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모든 남성들에게 공개된 정보로 그러한 최적화된 입대 준비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들에게 이러한 ‘사교육’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군대별로 다른 속도와 양상으로 전개된다.

의무소방이나 카투사의 경우 학원커뮤니티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반해 통역병의 경우 학원 강사가 관리하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것은 입시 전형의 차이 때문인데, 카투사의 경우 특별히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교류할 필요가 별로 없고, 의무소방 같은 경우 1년에 뽑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고, 필기 과목의 내용이 공무원 시험 과목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통역병/통역장교 시험 자체는 ‘특수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 전형이 복잡하고, 실제 기출문제 등을 다른 경로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영 통역, 영한 통역, 인터뷰, 영어 Listening 등은 각 군별로 유형화되어 있고[[148]](#footnote-147), 그러한 유형들은 또한 기출문제로 학원 강사에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학원을 다녀야 한다[[149]](#footnote-148). 그리고 각자의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학원 커뮤니티 안의 ‘수강생’ 등급을 갖고 있는 남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다[[150]](#footnote-149).

<그림 > 통역병 학원 커뮤니티



통역병/통역장교 커뮤니티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했던 예비역·현역 선배들과 지원자 후배들을 연결해주는 일이다. 학원은 지속적으로 합격자 남성들을 관리하고, 그 중 외출 외박이 자유로운 통역장교 등과 휴가를 나온 통역 병들은 학원으로 찾아와 자신의 합격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한다. 학원 커뮤니티가 위의 지원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커뮤니티와 가진 가장 큰 변별성은 그 **관리의 차원**이다. 학원 커뮤니티는 강의와 곧바로 연동되고, 인적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매개하여 작동시키고, 입대 준비생들은 이 커뮤니티를 통하여 ‘공신력’ 있는 정보와 인맥 모두를 얻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엘리트 남성들의 ‘자발적’으로 ‘시험 후기’ 정보 등을 공유하던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은 점차 학원으로 대표되는 사교육의 부상을 통하여 ‘공신력’ 있는 ‘고급 정보’가 관리되는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

제2절 엘리트 남성들의 군생활

**3.2.1. 훈련소 풍경**

엘리트 남성들은 군대에 들어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먼저 의무소방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자신들과 비슷한 남성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다. 그 비슷함은 ‘말 통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대표된다.

C: 아무래도. 뭐랄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배운 사람들이 가니까 말이 좀 통하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

연구자: 훈련소에서는 어때요? 훈련소 생활은 어땠어요?

A: 훈련소 생활은 육군 5주 과정보다는 4주 과정으로 짧게 하니까. 그러니까 엄청 힘들지는 않았고 솔직히. 그리고 애들이랑 아무래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또 같은 분야 이미 같은 진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통하는 것도 많고. 또 학벌 비슷하고. 그런 것도 아무래도 연관성 있고. 그러다보니까 금방 다 친해지고. 뭐. 재미있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의무소방으로 복무한 경우에는 이미 필기시험을 통해서 당락을 결정짓고 입대를 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에 최적화된 남성들이 훈련소에 모이게 된다. 그들은 같은 중대(80명 내외)에 배속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비슷한 남성들이 모였다는 것 덕택에 ‘재미있게’ 생활을 하게 된다. 실제 의무소방으로 복무하게 될 경우 추후 소방 공무원을 지원할 때 가산점 등의 특전이 있기 때문에 ‘명문대생’과 서울 4년제 소재 대학의 남성들 외에도 많은 남성들이 지원하지만 전형 자체가 필기 시험으로 구성되고, 4지선다, 5지선다 시험 경쟁에 최적화되어있는 남성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훈련소에서 비슷한 학벌 구성의 남성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학교 같으면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그냥 같이 훈련생활 하다보면 자연스럽게”(A) 친해지게 된다. 의무소방의 경우에는 육군 훈련소 생활보다 훈련소 이후의 중앙소방학교 훈련이 더 힘들다고도 한다[[151]](#footnote-150). 통역병들은 최근에 이미 입대 전부터 이미 서로 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강남의 S 통역병 학원이나 종로의 G 통역병 학원 등에서 함께 통역병 준비를 하고 학원 커뮤니티를 통해 페이스 북이나 싸이월드 클럽 등의 자체 동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오프라인 ‘번개’ 모임을 갖고 친목을 어느 정도 결속한 상태에서 입대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러한 결속감과 비슷한 남성들이 모였다는 생각들은 다른 군생활을 하는 남성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 확장되기도 한다. 공군 훈련소의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구보[[152]](#footnote-151)를 하면서 ‘3의 배수’ 구령을 넣지 않는 것을 시키는데, 그 때 공군 훈련병들은 그 ‘3의 배수’ 구령 빼기를 잘 틀리지 않는다고 한다. 구령 넣기에 성공한 남성들에 대해서 조교들은 “너희들이 육군과 달리 똑똑하기 때문이다”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에 대응하여 훈련병들은 자신들이 육군과는 다른 존재임을 과시하게 된다고도 한다[[153]](#footnote-152). 의무 소방의 경우 의무 경찰과 같이 기초군사훈련을 훈련소에서 받게 되는데, 의무소방 남성들은 이들과 말을 섞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한다.

연구자: 의무경찰 사람들하곤 얘기 안 해요?

A: 경찰이랑. 하...... 경찰 애들이 좀 솔직히 말하면 질이 안 좋은 애들이 많아서. 질 나쁜 애들이 많아서. 같이 안 했고. 섞인 애들도 있긴 한데. 일부러 거의 분리시켜가지고 서로 그냥 남남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근데 그냥 의무경찰 하는 애들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얘기 해 봤는데 괜찮은 애들은 괜찮았고. 서로서로 이제 알긴 아니까 서로서로의 조직에 대해서. 뭐 그렇구나. 뭐 힘내라 잘해봐라 그 정도는 했는데. 확실히 많이 섞이진 못했어요.

연구자: 의무경찰들이 놀다 왔다는 거예요. 학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다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A: 거의 복합인 것 같은데. 어디 뭐 학교도 안 좋은 애들이 대부분이고. 지방에서 놀다가 담배 좀 피고 껌 좀 씹다가 이제 하다가 할 거 없어가지고 와서. 담배 필 때 몰래. 아니 샤워할 때 몰래 담배 피우고. 입에 욕을 달고 살고. 머리도 좀 빈 애들이 많아 가지고. 생각하는 사고 수준이라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연구자: 답답했나 봐요? 이야기를 해 보려 했는데 잘 안 되었나 봐요?

A: 예. 그런 것도 있고. 애초에 얘기를 나누고 싶지 않기도 했어요. 그건 아마 공통적으로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규율을 잘 준수하고 모범적으로 시키는 일들을 따라하기 때문에 ‘명문대’ 출신 남성들은 인정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는 ‘재미있는’ 훈련소 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저항적이고 ‘욕’도 많이 하고 ‘사고 수준이 좀 그런’ 남성들과는 자신들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육군-전투병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한다.

아, 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의경은 군대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일반 군대랑(A).

또한 이러한 판단은 실제로 육군에서 ‘명문대’생과 다른 남성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작동하고 있음과도 맞물린다.

연구자: 면담 많이 했나보네요? 소대장하고

H: 일단 학교 때문에도 그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울대 연 고대 출신들하고는 소대장이 그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걔네들을 데리고 훈련 끝나고 이 부대에 남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연구자: 아까 서울대 연고대 자원은 특별히 관리하고 자기 자대로 데려오려고, 이런 경향이 있었다는데 특별히 많이 남겼어요?

H: 일단 거기에 전산학교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여기 (A대?) 네. 그 친구는 일단 나보다 한 살 어렸고, 이제 나는 사학과였고 걔는 전산학과이니까 아무래도 행정병을 맡기기에는 얘가 더 적합했던 거죠. 얘를 행정병으로 남기고 이제 SKY 뿐만 아니라 중대, in 서울에 있는 정도면 잡고 더 챙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러한 이야기는 앞서 1절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이들 ‘명문대’ 남성들을 특별히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을 드러낸다. 그런데 통역병의 경우에서는 좀 더 심화된 방식으로 위계가 나뉘기도 한다. 즉 훈련소 안에서 자신들 안에서 위계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 때의 인적구성은 그 중에 내가 가장 못난 사람. 뭐로 봐도. 평범한 집이고. 나머지는 누구아들 누구 아들 누구아들. 한국에서 학교 나온 사람 별로 없고(G).

독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A대학을 다녔던 G 조차도 통역병의 학벌과 집안 배경 앞에서는 ‘기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같이 모여서 훈련소 생활을 하는 동안 같이 훈련을 받는 동기들끼리는 자신이 다녔던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오히려 이 안에서 ‘누구 아들’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위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누구 아들’은 알음알음 전파되고 자대 배치 받을 때까지 이들에게 신경이 쓰이는 일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누구 아들’ 같은 위계가 부모의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귀속 지위’라고 본다면, 다른 한 편 ‘획득 지위’에 따른 위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훈련소와 그 이후 후반기 교육(특기 학교)에서의 경쟁이다. 공군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두 차례의 경쟁을 거치게 된다. 훈련소에서의 성적으로 주특기를 부여하고, 훈련소를 마친 후에는 특기 학교에서 성적순으로 자대배치가 된다. 훈련소 같은 경우 몸을 움직여서 성취를 해야 하는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명문대생’들이 반드시 우세한 것은 아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교로 뽑았으니까. 거의 저는 헌병 특기를 받아서 원래는 총무랑 보급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헌병이 된 거예요. 일단 특기는. 야, 망했는데. 죽어도.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게이트는 못 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L).

훈련소의 특기 부여는 계열별로 3∼4가지 특기 중 우선순위를 훈련병들이 쓰게 되는데, M의 경우 총무, 보급, 헌병 특기 계열로 지원을 한 것이고. 그 중에서 훈련 성적이 좋지 않아 헌병으로 분류가 된 것이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헌병 특기는 방공포, 급양과 같이 공군의 ‘3D’특기로 분류된다. M은 이러한 ‘망한’ 상황에서 후반기 교육, 즉 특기 교육 때 성적을 좋게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진주의 보직으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다. 특기 학교에서는 자신들의 ‘필기 실력’만으로 평가받게 되는데, 특기 학교 성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생활할 장소가 결정되고 이는 굉장히 중요한 경쟁이며 이 경쟁에서 ‘명문대’ 남성들은 훌륭한 성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자대로 가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자대, 즉 생활할 장소는 서울의 몇몇 부대(대방동, 용산)와 수도권의 부대(성남, 오산, 수원, 평택 등)가 된다.

군대는 지속적으로 ‘평등’하게 남성들을 대우한다고 주장하고, 1990년대에 군생활을 했던 ‘명문대’ 남성이나 4년제 대학을 다니던 남성들은 자신의 학벌이나 학력이 드러나서 ‘학삐리’ 취급을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오히려 과장된 호전성이나 폭력성을 드러내지만(김현영, 2001; 권인숙, 2005b), 이제 2000년대에 입대한 엘리트 남성들은 자신들의 학벌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시되는지에 대해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호전성과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육군-전투병에 대해 반감을 가지거나 무시하고, 자신들의 ‘영리함(smartness)’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자부심은 공군처럼 아예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훈련될 경우에는 ‘상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의무소방처럼 의무경찰 등 다른 군생활을 하게 될 남성과 조우할 때에는 그들에 대해서 육군의 이미지를 덧씌우고 그들의 ‘비행’이나 ‘불량함’, ‘질이 안 좋음’ 등을 목격하면서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드러난다. 그리고 육군 훈련소에 입소할 경우에는 자신들이 **선별되어** ‘특별 관리 대상’이 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느끼게 된다.

하지만 ‘영리한 남자들’로서 함께 입대하더라도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위계가 다시 나뉜다. 먼저 통역병의 경우처럼 자신들 안의 위계마저도 ‘누구 아들’ 같은 방식으로 나누게 되는 경우가 있고, ‘능력주의’에 입각하여 성적으로 특기 및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 것은 자신들의 ‘영리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서열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3.2.2. 군대에서 ‘스펙쌓기’**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 배속 혹은 배치 받게 된 남성들은 자기계발하는 군생활을 펼치는 초입에 서게 된다. 이 항에서 따져보는 것은 그들이 하려는 ‘공부’가 무엇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엘리트 남성들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공부’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그것은 ‘자기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는 ‘자기 사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의미로 확장되며, ‘**인권**’으로 의미지어지기도 한다[[154]](#footnote-153). 다른 한 편에서 공부는 ‘시간낭비’에 대한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군생활’의 핵심이다.

3.2.2.1.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먼저 이들이 언급하는 공부란 무엇일까?

‘명문대’ 남성들이 언급하는 공부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책읽기이다. 앞서 M이 언급하는 ‘**인권**’이라는 단어로 ‘공부’가 등장할 때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바로 책읽기인 것이다. ‘자기 사색’의 시간이라는 것도 차분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과 교호하는 것이며 그러한 시간을 바라는 것은 ‘**인권**’과 호응할 수 있는 것이다. H 같은 경우 훈련소에서 가장 답답했던 점이 무엇이냐 질문했을 때 단연코 책 한 권도 읽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대답한다. 육군 보병으로 복무했던 O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자대에서 느꼈던 답답함으로 책을 집중해서 읽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한다. 육군 운전병으로 복무한 P의 경우 근무를 하면서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메리트를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일종[[155]](#footnote-154) 조그만 차는 만날 시간이 있잖아요. 기다려야 하니까. 그 시간을 책 두세 권씩 가져가서 다 읽고. 행정병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 많으니까. 도서관에서 차가 와요. (진중문고?) 네. 어쨌든 그래서 책은 다 봐요. (공부는?) 공부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평일에는. 그런 건 없고. 그냥 연등 시간 때 하고. 토요일 일요일 때도 별로 못 봤고. 연등시간 때 봤지. (운전병의 특수성?) 네. 책은 많이 읽었어요.

두 번째의 공부는 영어와 자격증, 그리고 고시 공부이다. 책 읽기는 엘리트 남성들의 군생활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권’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엘리트 남성들은 이 지점에서 자신들의 공부를 한정하지 않는다. 책읽기는 ‘최소한’의 ‘인권’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공부’는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의 공부는 바로 ‘영어’ 공부와 ‘자격증’ 공부, 그리고 ‘큰 시험’으로 분류되는 각종 고시와 CPA(공인회계사) 시험 등이다[[156]](#footnote-155). 이러한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다른 군생활’이라는 의미가 실감이 나게 된다.

연구자 : 고시 공부도 있었어?

C: 아니. 내 위의 선임이 CPA해서 성공했고. 내 주위에는 수능 보는 애들(학벌 세탁).

연구자: 하려고 하면 될 정도의 여유는 있어?

C: 공무원 시험도 한다니까?

연구자: 주위에 고시 보는 친구 있었어?

B: 고시를 내 선임 중에 한 명이 있었어. 떨어져서 왔는데. 와서 공부를 좀 했지. 준비는 바로 시작하지 않고.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 한 명. 행정고시를 말년에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지.

육군에서는 수능 시험이나 검정고시를 보는 남성들이 좀 있지만 의무소방이나, 카투사, 통역병 등에는 “구성원들을 보면 대부분 학벌이 SKY어서”(B) 그러한 시험 자체는 잘 보지 않는 편이다. 카투사에서는 최근 ‘경영지도사’라는 시험을 보는 남성들이 많다고 한다(D). 그 시험을 채택하는 이유는 시험 준비기간이 군생활 기간과 리듬이 맞기 때문이다. 미군과 생활을 하게 되는 카투사들은 특별한 준비 없이도 토익 LC(듣기) 같은 경우 3달 안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때문에 영어 공부에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게 되는 편이다. 유학을 준비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자격증이나 CPA, 고시 등에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런데 통역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학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157]](#footnote-156). 통역병들은 일단 업무 그 자체에 집중하고 군사 영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자신들이 회의에서 만나는 ‘고위급 장교’들과 함께 있음으로 자신들의 ‘특별함’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158]](#footnote-157). 하지만 자대에 따라서 통역병들은 자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라진다고 한다. 한미연합사령부 같은 곳에서는 일상적으로 미군과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바쁜 일과를 보내지만 ‘편한 자대’, 예컨대 일선 사단급 이하 부대의 통역병으로 가게 될 경우는 통역 업무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위의 의무소방이나 카투사처럼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외무고시 같은 고시를 준비하기도 한다.

도서관은 늘 꽉 차요. 정원이 40~50명인데. 늘 꽉 찼어요. 외무 고시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소설책 보는 사람도 있었고. 저도 가끔 가서 관심 있는 책 보고 했어요(G).

그리고 육군으로 배치된 ‘명문대’ 남성들의 경우 상위 부서에서 ‘당번병’ 등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남성들은 마찬가지로 영어 공부와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한다.

3.2.2.2.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 공간과 시간, 제도적 자원과 사적 자원

두 번째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첫째는 ‘공간’과 ‘시간’의 문제이다. 둘째는 ‘자원’의 문제이다.

일단 육군-전투병이나 해군 등에서 군생활을 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공부할 ‘공간’과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부록 2> 참조).

연등은 잘 안 해. 연등하려면 일지를 따로 만들어서 애들 명단을 체크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이지. 한정되어 있담 말이지. 결국 여러 명을 모아서 시키려면 가장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식당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데 TV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애들이 와서 TV를 본담 말이지. 특히 고참이 와서 TV를 보면 애들이 말을 못 해요. 이게 되게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Q).

2005년 ‘병영문화개선’ 등이 진행되면서부터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안되었던 것은 바로 ‘연등’ 시간이다(2장 3절 참조). 연등은 밤 10시 취침시간이 시작되고 나서 잠자지 않고 특별히 할 일이 있을 때 등을 켜놓고 일을 할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각 군에서는 매일 일과 이후의 병영 생활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당직사관(소위∼대위)이나 당직부사관(하사)의 몫이 되는데, 이들은 실제로 ‘연등’을 조치하려고 맘을 먹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잘 들어주지 않게 된다. 그것은 Q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단 공간이 별로 없고, 식당 같은 공간을 할애해 줄 경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TV를 선임병들이 보는 바람에 성과가 잘 달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등에 대한 모든 책임이 당직사관이나 당직 부사관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연등을 꺼리는 것에도 일리가 있다.

연구자: 그런 거에 대해서 소대장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연등을 왜 없앴지?

H: 연등은 일단 내규에 나와 있는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는 너희에게 이걸 지휘관으로서 해줄 수가 없다.

연구자: 그 소대장은 지침을 잘못 알고 있었네.

H: 그 사람이 그렇다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된 거죠.

연구자: 국방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분위기였는데. 연등도 10시에서 12시까지였는데.

H: 나는 뭐 근무 가서도 그랬으니까(공부했으니까).

H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나지만, 실제로 연등 자체는 군대의 내부 지침인 ‘내규’에 나와 있는 바는 아니고 국방부가 지휘관의 재량으로 ‘권장’하게끔 되어있는 선택사항이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대장들은 연등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이에 대해서 병사들에 의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네. 하긴 해도 안 이어지니까. 시간도 없고.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말은?) 주말에는 또 일이병들은 주기입 하고 할 것도 많잖아요. 걔네들은 주말에 했죠. 위의 상병 이상 선임들은. (그 당시 국방부에서 여건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당직사관마다 달랐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몇 번 ‘마음의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통해서 요구를 하고 했는데. 잘 안 들어 지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는 연등은 자유롭게(O).

육군 부대 등에서 병사들은 연등시간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당직사관들이 거절할 경우 병사들은 ‘마음의 편지[[159]](#footnote-158)’ 등을 통하여 문제제기를 하지만 실제로 잘 관철되지는 않고 2008년 정도를 전후해서야 O의 부대에서는 연등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 H 같은 경우에는 근무 자체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공부를 하고 근무 후의 시간에는 공부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의무소방, 카투사, 통역병은 그러한 ‘연등’ 자체가 일단 자유로운 편이다. 먼저 의무소방의 경우 ‘편한 부대’에 있었던 H와 유사하게 근무 시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근무 이후의 시간에도 공부하는 데 별 제약을 받지 않는다(A,B,C 공통)[[160]](#footnote-159). 카투사의 경우에는 퇴근 후의 시간이 완벽한 자신의 시간이었고, 외출도 가능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용산에 근무할 경우 학원 수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 과외를 하는 경우도 많다. 달리 말해 이들은 근무 이후의 시간에는 완벽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신에게 편한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 통역병의 경우는 육군 병과 특별히 다른 조건은 아니고, 연등과 주말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

둘째로 자원의 문제가 남는다. 먼저 검토할 것은 제도적으로 ‘자기계발’을 위해서 제공되는 자원이다.

2005년부터 인적자원개발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자기계발을 독려하는 조건들을 국방부 등에서 입안한 바가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5: 7-20). 먼저 첫 번째 **제도적 자원**으로서의 ‘**학습 동아리**’이다. 각 일선 부대에서는 영어나 자격증, 독서클럽 등을 만든다고 홍보하기 시작했고, 그 참여에 대한 공보물이 미디어를 통해서 등장하곤 했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 그 누구도 ‘학습 동아리’에 참여해본 적은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Q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연구자: 학습을 좀 독려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거 외에는 달리 학습 동아리 같은 거 한참 할 때 아닌가?

Q: 학습 동아리라는 게 페이퍼워크였어. 사실. 위에서 굉장히 독려를 많이 했지. 독서반을 만들어라. 영어반을 만들어라. PC반을 만들어라. 토익반을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계속 독려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애들이 근무를 하다보면 이런 거에 집중할 여건이 안 되고. 부대에서도 이런 걸 하려면 여러 가지 기자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걸 지원하기가 힘들지.

이러한 설명은 육군-전투병으로 대표되는 남성들에게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설명이고, 배를 타면서 지속적으로 출동을 나가는 해군 수병(水兵)의 경우에도 타당한 설명일 것이다. 여건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엘리트 남성들의 군대에서는 좀 다른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오히려 여건 자체가 좋은 것이 그러한 ‘학습 동아리’의 형성을 방해한다. 의무소방 같은 경우는 국방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학습 동아리’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카투사나 통역병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동아리가 있다한들 별로 크게 유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학 등에 대해서는 이미 각자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설령 각자 토익이나 토플 등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빡센’ 스터디 형태가 아니라면 구태여 참여할 유인이 별로 없고 각자 책상과 노트북 등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동아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제도적 자원은 ‘학점인증제도’이다. 이는 대학 재학 중에 입대한 장병들에게 1년에 6학점 이내로 복무 기간 동안 최대 12학점을 부대 내부의 ‘사이버지식정보방’을 통한 대학 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수업을 알고는 있지만 전혀 듣지 않는다. 그것은 선행 연구에 따르면 수업의 대부분이 교양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신의 스케줄대로 수업을 수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안 관계로 파일 업로드 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큰 유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김진경, 2008: 63-67).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에 한정짓자면 그들이 다니는 대학의 수업이 ‘학점 인증제’ 수업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시간에 혼자 공부하는 게 ‘시간대비 효율’이 더 좋기 때문이기도 하다(A, D, O).

결국 이러한 두 가지의 제도적 자원 - ‘학습 동아리’와 ‘학점인증제도’는 엘리트 남성들의 구미를 맞춰주지 못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군대에서 수행해야할 ‘공부’는 학점이 아닌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 동아리’는 그 내용과 구성원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트 남성들은 ‘혼자’ 하는 공부를 선택한다.

하지만 ‘혼자’ 하는 공부 역시 자원을 요구하게 된다. 예컨대 자격증 공부나 고시 공부를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은 ‘단체’로 하지 않는 이상 부대에서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때 ‘아들’로서의 병사에게 지지목이 되는 것이 바로 ‘엄마'이다. H는 매주 부모에게 2∼3차례 전화를 해서 ‘토익 문제집’을 요청했다고 한다. H의 부대는 군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서점이 구비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유명한’ 토익 교재는 모두 구비되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토익 문제집을 풀던 H는 그러한 ‘유명한’ 문제 외에 최근의 기출문제나 잘 유통되지 않지만 ‘입소문’ 난 교재가 필요했고, 그 때마다 ‘엄마'에게 큰 서점에 가서 교재를 구해 보내달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H만의 것이 아니다.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필요한 학습에 대한 교재를 휴가가 아닐 때에도 ‘엄마'에게 요청해본 경험이 있고, ‘엄마'는 흔쾌히 교재들을 수소문하여 구해다주곤 했다고 한다. 또한 교재 외에도 학습에 필요한 인터넷 강의비나 그 외의 문구류를 ‘급할 때’에는 보내준다. 군대에서의 학습에 있어 ‘엄마'에 대한 의존은 24시간 인신구속이 되어 있는 병사들에게 의지해야할 수 있는 1차적인 대상이 ‘엄마'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3.2.3. 공부할 수 있는 ‘짬밥’**

3.2.3.1. 사라지지 않은 ‘신고식’

공부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구비되더라도 곧바로 남성들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엘리트 남성들이 훈련소와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도착한 순간 처음에 확인하는 것은 자신보다 먼저 입대했고 자대에 뿌리내리고 있는 선임들이다. 선임들은 자대에 온 이등병에 걸맞은 태도를 강조하고, 부대의 업무를 숙달시켜서 자신들의 일을 인수인계하려 한다. 김현영의 논의(2001)에 등장했던 신병에 대한 ‘신고식’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자대에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되게 놀랐던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순진했었던 거일 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의무소방이라는 게 안 군대 같고 그냥 마치 뭐 기숙사 룸메이트들 몇 명 모아 놓아 놔가지고 “형 치킨이나 먹어요” 이러면 먹힐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나름의 군대문화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원래 눈치 보면서 말하기 그런 걸 하나도 몰랐을 때였는데. 근데 가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좀 눈치도 봐야 되고 선임 눈치도 봐야 되고 되게 “충성” 이런 것도 해야 하고(A).

연구자: 얼차려도 받았어요?

A: 네. 내 후임도 와서 받긴 받았는데. 첫 한 달 정도는 빡세게 했담 말이야. 근데 내가 좀 더 많이 받았고. 후임보다는. 아무튼 나도 한 달 정도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얼차려 받고. 그랬고. 그 후로도 얼차려는 안 받았는데 욕 같은 거 많이 받고. 많이 혼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처음 왔을 때 되게 놀란 게 되게 다를 줄 알았는데. 육군의 부조리죠. 그것도. 이제. 신병에 대한 이유 없는...... 계속 관등성명을 붙이게 한다던가. 웃지 못하게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예. 육군에서도 많이 없어졌다던데(D).

사실 이러한 의무소방이나 카투사 부대에서 벌어진 ‘얼차려’나 ‘신고식’이 육군보다 물리적으로 더 센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특징적인 것은 ‘나름의 군대문화’에 대해서 이러한 남성들은 굉장히 놀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문화를 ‘육군’과 결부시키는 점이다. 앞서 ‘다른 군생활’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인권’이라는 말과 결부되어 나타나는데 이들은 아무리 ‘다른 군생활’이라도 ‘나름의 군대문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된다. 그리고 한 동안 이러한 분위기는 지속된다. 그런데 이러한 ‘나름의 군대문화’는 사실 한 편에서는 소방서의 직원들이나 부대의 간부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직원들이 일병, 이병이 그러면 용납을 좀 안 해 줬어. 그건 안 되지. 우리는 그걸 좀 잡았지. 왜냐면 빵꾸 나면 전체가 욕을 먹으니까. 전체적인 게 떨어질까봐. (B)

저희 같은 경우는 약식 인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신병들이 어리버리 다니다가 장교 앞에서 저희 앞에서 약식 인사를 하면 털리는 거죠. 좀 심하죠. (D)

내가 있을 때 명령이 한 번 내려왔는데. 몰라. 바깥의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카투사들끼리는, 부대장이나 부서 선임들까지 구호를 붙이면서 경례를 하는데. 미군문화는 그게 아니야. 병들끼리는 경례를 하진 않거든? (E)

3.2.3.2. 공부할 수 있는 ‘짬’

자대배치를 받은 신병들은 초창기 “충성!” 등의 경례 구호를 ‘대성박력’(박력 있는 큰 목소리로 지르기)으로 외치거나 생활관(혹은 내무반)에서 ‘각’을 잡고 앉아있거나, 선임 병을 따라다니면서 직무를 배우고. 선임 병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오지 않을 경우 ‘얼차레’ 등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 자체는 각 군, 그리고 각 부대별로 차이가 있고 카투사, 의무소방, 통역병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간이 확실히 짧은 편이다. 그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 ‘자기시간’이 주어지기 시작한다. 이를 “공부할 수 있는 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부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막내들도 안 졸리면 책 봐라 그런 거. 책 보는 거까지 못 하게 하지 않았어요(G).

연구자: 보통 계급이 어느 정도 되면 자기 할 거 공부하기 시작해요?

계급이 어떻게 된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전제조건 같은 게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선임들이 공부하는 거를 좀 풀어줘야 한다거나 그게 있어야 하고. 그게 계급에 따라 정해진다기보다는 자기가 생활하기 나름이고. (선임이 허가해 주면?) 네. 진짜 빡센 데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3달 안에는 자기들 책상 쓰고 핸드폰도 쓴다는 것 같고. 보통 그거에 좌우되는 것 같아요. 선임이 언제 그거를 허락해 주느냐. 보통 빠르면 한 달. 늦으면 3달 안에(A).

연구자: 그러면 군대에서 공부를 많이 못 했겠네요?

M: 컴활 2급 이런 거 따고. 공부 쪽으로는 많이 못 챙겨먹었어요. 개인적으로 병장 있으면서 책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병장이 9개월.

통상적으로 의무소방으로 근무할 경우 ‘3달 안에’ 자기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근무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은 B의 이야기처럼 상방(상병) 정도에서 시작된다. 통역병의 경우도 업무 파악이 끝나고 나면 ‘막내’의 경우도 책 보는 것 정도는 풀어줬다고 한다. 최근에는 통역병들의 경우도 업무 파악이 끝나면 곧 바로 공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부할 짬’이 되는 것은 사실 앞서 언급되는 것처럼 특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선임 병에게 어떠한 존재로 인지되느냐와 깊숙이 결부되어 있다. ‘자유 시간’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선임의 허락’ 하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는 사실상 육군과 큰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비교적 ‘편한’ 것으로 간주되는 공군에서도 ‘헌병’ 같은 ‘3D’ 특기를 받고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 M의 경우처럼 병장이 되어서야 책을 잡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카투사 같은 경우 자대배치를 받고나서 곧 바로 근무를 마친 5시 정도부터 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짬’은 특별이 없는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짬’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구조적 요인은 바로 **인원**이다. 즉 몇 명과 함께 생활하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컨대 육군은 15인 정도가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고[[161]](#footnote-160), 해군·공군은 8인 정도가 함께 생활하며, 의무소방의 경우 4인, 카투사의 경우 2인이 생활한다. 몇 명이 함께 생활하는지는 한 편에서는 ‘개인 공간’이 얼마나 있고, 어떤 시설이 구비되어있는지를 드러내고, 다른 한 편에서는 얼마나 촘촘히 권력 위계가 펼쳐지는지의 문제를 드러낸다. 단적으로 육군의 경우 생활관 내부의 ‘자기 공간’은 ‘관물대’(cabinet) 하나가 전부이고 특별히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각자 상을 펴놓고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짬’이 되지 않는 막내는 ‘작심하고’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일 수밖에 없다. 반면 의무소방과 카투사의 경우 개인 책상이 하나씩 구비되어 있고, 스탠드도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의무소방과 카투사의 경우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쓸 수도 있다. 이러한 조건은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자체의 커다란 차이이다. 앞서 A나 D가 선임이 대학교 선배 같으리라는 ‘오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실제로 ‘신병 군기 잡는 기간’이 짧은 것도 이러한 여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분위기’이다. 앞서 2장에서 다룬 것처럼 육군 같은 경우 2003년에 참모총장 지시사항으로 ‘병영문화개선’이 화두가 되기 시작했고, 2005년부터 진행된 국방부의 ‘병영문화개선’ 작업으로 인해 점차 자기계발을 하는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동시에 부대의 여건과 ‘분위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 ‘분위기’는 물론 어떤 인적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고도 결부되어있다. 앞서 언급했던 ‘말 통하는 애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공부할 짬’이 빠른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162]](#footnote-161). 2007∼2009년까지 육군 전투병으로 복무했던 O는 이러한 모습을 잘 드러내 준다.

저 때만 해도 선임들, 옛날에 들어온 선임들 많아서. 하고 싶어도 못 했죠. 일부러 하려고도 안 했고. 눈치를 많이 줬었는데. 저 이후부터 제 후임들한테는 제 동기들하고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공부는 맘대로 하라고 했는데 잘 안 하고(O).

하지만 이러한 공부할 수 있는 ‘짬’과 상관없이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배째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배째기’는 연구 참여자들이 군대를 갔던 시기에도 존재했고, 그 이전에도 존재했다. ‘배째기’는 선임의 지시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안하무인’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간부들에게 찍히는 식이다. 육군 행정병과 운전병으로 근무했던 I와 P는 자신들의 ‘배째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대대에서 손꼽히는 또라이 이미지? 대대사람들이 다 아는 건 아닌데. 난 대대 본부에 있었으니까. 본부 장교들은 내게 “왜 그리 유별나게 책을 보냐?”. 심지어 나는 군대에서 성경을 심지어 3독 했어(I).

이등병 때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중대. 우리 소대는 제가 또 하도 맘대로 하니까. 엿 먹어 봐라. 근데 다른 소대는 한 이등병 때만 해도 눈치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소대는 아이 “짜증난다.” 보자 했으니까(P).

이러한 ‘배째기’를 하면 ‘고문관’으로 찍히기 마련인데, 이러한 전략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이러한 ‘고문관’들에게는 누구도 중요한 업무를 할당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고문관’으로 찍힐 경우 어떠한 ‘특혜’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째기’가 벌어지는 장소는 보통 육군 부대나 해군 전투부대이다. 이러한 ‘배째기’를 하는 병사들은 특별히 주요한 업무도 할당받지 않게 되고, 자신에게 말을 거는 병사들도 별로 없어지며, 자신이 선임이 될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발언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초반의 어느 정도 기간만 잘 ‘버티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배째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는 여러 가지 맥락을 더 추가하여 해석해야 한다.

연구자: 병들은 묵인? 근무시간에 병들 공부해?

Q: 공부 많이 해. 육상부서 오는 애들은. 특히 문제가 있어서 온 애들은. 일을 시켜도 안 하고. 일을 강요도 못 하고. 부대에서. 그래서 와서 책 보고. 공부하고. (......) 중요한 면은 봤을 때 지휘관들이 그런 식으로 제기를 하는 애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싫어하는 거지. (싫어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하면서 싫어하는 거지. (항명 아닌가?)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군의 어떻게 보면 문제인데.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이 못 하는 이유 자체가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고. **이게 당장 자기 진급 점수랑 관련이 되다 보니까.** (사고 막으려고, 시끄럽지 않게 하려고 오냐오냐?) 응. (그 전에도 계속 그래왔다는 거지?) 그 전에도 그랬을 건데. 병영문화개선이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중요한 거는 병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얘 네들이 어떻게 소원수리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헌병대에 직접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하니까.

예전 같으면 이렇게 ‘배째기’를 하는 병사들을 간부들이 제재하거나 선임이 ‘사적 제재’(구타, 얼차려 등)를 통해서 ‘군기’를 잡곤 했다. 하지만 병영문화개선이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고를 만들지 않으려하는 상황들이 이러한 존재들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막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언급했다시피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내부의 규율 체계에 의해서 대부분은 그 안의 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선임과의 협상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163]](#footnote-162). 그리고 ‘짬’이 찰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는 수행해야 나중에 후임들에게 ‘선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는 평소에는 가만히 있어요. 얘기도 별로 안 하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무시하잖아요. 쟤는 재껴도 돼. 이런 건 싫은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장교나 간부들한테 혼나고 그럴 때 심사가 뒤틀릴 때. 그냥 모으고. 가끔씩 지랄하고 갑자기 요즘 뭐냐. 꼽창[[164]](#footnote-163)도 좀 부리고. 그냥 지랄 같은 애인 거예요. 얘는 신경 안 쓰기도 애매하고, 그냥 무조건 그런 앤 거 같아서. 절 기피하게 되었죠. (......) 근데 고참이 위에 두 명 밖에 없었어요. 고참이랑 쌩까고 그랬어요. 절 많이 챙겨주던 고참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이도 별로 안 좋고. 좀 그런 게 많았어요. 그렇게 상병을 보내다보니까 회의가 많이 드는 거예요. (M).

**3.2.4. 학습시간의 확보와 협상**

3.2.4.1. 학습시간의 확보 – 유휴시간의 최적화

이제 ‘공부할 짬’이 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 남성들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할당하여 홀로 공부에 몰입한다. 보통 의무소방의 경우 하루 4∼5시간 정도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주말에 특별한 출동이 없으면 공부를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달리게 된다.[[165]](#footnote-164) 관건은 자기시간의 최적화다.

연구자 : 공부시간은?

B: 공부보다는 자유시간이 적어도 4~5시간 이상은 보장 되었지.

연구자: 퇴근하면 보통?

A: 그 때부터는 완전 자기 자율시간이니까 그 때부터 막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놀다가 공부하다가. 뭐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공부하고.

업무 시간을 제외하면 의무소방의 경우 ‘완전 자기 자율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통제가 자신의 임무가 된다. 이 중에 ‘막 공부’하는 사람들과 ‘놀다가 공부’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뭐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 시간에 대한 통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연구자: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BPA나 행시 같은 거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편이에요?

A: 예. 나름의 일정표 같은 거는 있는 거 같아요. (본인은 아니고?) 네. 제가 하질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본인 나름의 스케줄 표나 일과에 따른 공부시간 분배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건 다 있더라고요. 공부할 땐 딱 공부하고 쉴 땐 쉬고.

연구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해?

C: 구급 나갈 때는 24시간 중에 구급 안 나가는 시간 모두. 소방서는 불이 언제 날 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 개념. 사무실에 있을 때는 보통 저녁 6시에 끝나지. 그 이후부터는 잠을 보통 12~1시에 자니까 그 시간은 공부했지. 따로 떨어진 공간을 쓰니까 제약은 별로 없어.

카투사의 경우 일과 후 5시부터 점호가 있는 9시까지 자유시간이 지속되고 자신의 식사시간 등을 단축시켜서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고, 9시부터 30분 정도의 점호가 끝나고 나면 ‘취침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계발을 하려는 카투사 남성들은 공부에 몰입하게 된다(D). CPA나 고시 등 많은 시간을 정기적으로 하려면 지속적으로 자기 시간이 ‘단절 없이’ 주어져야 하고 이러한 사항은 카투사나 의무소방 남성들이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드러낸다. 그리고 의무소방 남성들은 근무 시간에 공부하는 것도 점차 가능하게 된다.

일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소방서는 어떤 출동이 없으면 일이 없는 거잖아요? 특히 의무소방들한테는 전문적인 업무 같은 거 안 시키니까 할 일이 없담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남는 시간에. 일과 중에 남는 시간에 독서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자기 공부할 책 갖고 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A).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무소방과 카투사 등에서 여러 가지 시험의 ‘합격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A: 심지어 시험 쳐서 이번에 뭐 1차 붙었다는 사람도 몇 명 있었고.

연구자: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붙는 사람은? 들은 거로 그냥 어림잡아? 아직 동기 중엔 없을 거 아녜요?

A: 예. 그러니까 1차 명단만 군생활 하면서 소방서에서 공부하면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차 합격한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다는 걸로 들었어요. (그 한 기수에? 몇 기예요? 31기?) 제가 있는 33기가 83명인가 그래요. 83명인가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시험을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시험 본 건 아니고 한 10명 내외 정도로 시험 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1차 합격한 사람이 3명? 이 정도 되려나? (33기에서?) 예. (동기 중에?) 타 동기는, 타 기수는 잘 모르고.

내 고등학교 친구고 내가 재수를 해가지고 나보다 1년 선배인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경영학과였거든? 걔는 거기서 CPA 공부를 거의 했고. 나오자마자 합격 했어(E).

이러한 ‘합격’에 대한 이야기들은 떠돌면서 의무소방과 카투사 등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고, ‘명문대’ 남성들에게 입소문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3.2.4.2. 간부와의 협상 – 사적 차원과 공적 차원

‘명문대’생 남성들은 어느 정도 ‘짬’이 되면, 주어진 물리적 환경을 활용하고, ‘스케줄’을 짜는 방식으로 자신의 시간을 통제함으로써 공부를 시작한다. 초창기에는 책읽기 정도를 수행하고, 좀 지나면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나 자격증, 혹은 고시, CPA 같은 ‘큰 시험’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건들에 덧붙여 한 가지 요건이 더 구비되어야 이 남성들은 공부를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간부와의 협상이다. 앞서 B가 언급했듯이 직원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D가 언급했듯이 한국군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거나 구비되지 않게 된다.

이를 위해서 ‘명문대’생 남성들이 활용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자신들의 학벌이다. H의 경우 육군으로 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벌을 알게 된 소대장은 훈련소에서부터 어떤 부대로 갈지에 대해서 언질을 주고, 훈련소를 마치고 후반기 주특기 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가서도 자신은 학벌 때문에 ‘당번병’으로 분류되어 근무를 하게 된다[[166]](#footnote-165). 의무소방의 경우 직원들은 의무소방 남성들의 학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편이다.

우리의 갈등 이유는 우리 대 직원의 관계이거든. 만약 우리의 인적 구성이 고졸, 중졸, 어디서 노동하다 온 3D 업종의 누구라면. 직원들이 무시하는 것도 있고 소방서 직원이나 간부급 이상은 항상 하는 말이 회식 가면. “너희들은 크게 될 놈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주요대’ 이상이니까”하면서 대우해 주거든(B).

학벌을 인지하고 있음은 ‘영리한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협상의 조건이 된다. 간부들과의 관계를 조정해야 자신들의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상의 조건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게 된다. 하나는 사적 차원이고 둘째는 공적 차원이다.

먼저 사적 차원이다. 엘리트 남성들은 직원들이 요구하는 바를 자신들의 학벌 덕택에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하게 된다. 직원들은 엘리트 남성들의 학벌을 활용하여 ‘과외’를 시키거나 ‘논문 번역’ 혹은 ‘논문 표절’ 등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직원들의 요구에 의무소방 대원들은 ‘짜증’ 내면서도 해 줄 수밖에 없다.

대구에 있는 어느 소방서에 가서. 그 친구가 서울대 나온 친구인데. 서울대 다니는 친구인데. 원래 자기가 하려는 것도, 나중에 하려는 것도 과외 같은 걸 하려고 좀 크게 하려고. 준비하는 친구고 그런 친구인데. 대구 쪽 소방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사람들이 자기 자녀 과외 해 줄 수 없겠냐고 해서 대 놓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암암리에 직원들 자녀 교육해줘서 돈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애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A).

연구자: 의무소방 대원들한테 그런 걸(논문) 요청하지 않아요?

A: 많이 하죠. 논문 번역. 뭐. 영어 논문이나 영어 자료 같은 거 번역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학 문제 풀어달라고 한 적도 있었고. 아까 말 했던 것처럼 논문을 통으로 표절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거랑.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직원들은, 전문소방관들은 사이버교육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다 듣고, 시험을 봐야 되는 데 그런 걸 대신 시키기도 하고.

간부들은 이러한 일들을 수행해준 남성들에게 저녁에 야식 등을 사먹으라고 용돈을 쥐어주고, 매우 ‘고마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적인 차원의 도움과 협상은 새로이 등장한 현상은 아니다. 예전부터 여러 가지 소문으로 이러한 고학벌의 병사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소문이 존재해왔다.

연구자: 보직을 신상명세를 지휘관이 보면 바뀐다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N: 그런 건 있다고 생각해. 사단장 과외.

하지만 두 번째로 최근에 등장한 조건은 ‘공식적’인 차원에서도 이들의 ‘영리함(smartness)’이 부대에 기여하게 되고 이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점이다.

직원들도 공부는 굉장히 장려해. 자격증 같은 건 따면 소방서 평가에 들어가(C).

사실 제가 올해 사시 1차를 봤었는데. 붙으면 뭐 4박 5일은 당연하고 진급시켜줄 거라고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재량으로 그냥 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D).

연구자: 몇 점 이상이면 휴가를 줬어요? 토익.

H: 700점 이상이면 줬어요. 우리 졸업도 700 넘으면 졸업 시켜주니까.

이러한 요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부대평가 때문이다. 첫째로 부대평가 항목에 앞서 언급한 ‘병영문화개선’과 ‘군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측면 때문에 병사들의 자기계발 ‘실적’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167]](#footnote-166). 그런데 이는 사단장(☆2)이나 연대장(\*3) 정도의 관심사에 따라서 부대마다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 병사들의 자기계발 사례를 보도를 통해서 국방일보나 각 부대 인트라넷의 미디어에 올리거나, 주간 일간지 등에 올렸을 경우 이러한 ‘공보 점수’가 부대평가에 반영이 된다는 점이다.

연구자: 자기계발에 대해서 공보 같은 걸 공보 같은 거 본 적이 있어? 누가 우수하고 누가 자격증을 많이 따고 이런 거?

Q: 그런 거 많이 했었지. 그걸 블로그하면서 포스팅도 많이 했었고. 일선부대에서 보도자료로도 많이 나가고. 정말 특이한 케이스들. 그러니까 뭐. 쌍둥이가 뭐 같이 해서 뭘 했다더라.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세계적인 인명사전에 수록된다든가. 누가. 현역군인이. 이런 식이 있으면 이건 본부 차원에서 중앙보도로 크게 나가려고 시도를 하고. 그게 되게 많았지.

최근 들어 지휘관들이 자기계발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목표를 달성한 병사들에게 포상휴가 등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실제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김정필, 2010: 48).

이제 엘리트 남성들은 ‘모범 병사’로서 부대의 자원이 된 것이다. 그들의 자기계발 사례는 보도되어 부대평가 점수를 높이고, 직접적으로 그 자체가 부대평가 점수가 되기도 한다. 동시에 이러한 상황들은 부대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대회’들에 ‘참가’할 의무를 지니게도 된다. “호국 독후감 대회”, “『백범일지』 독후감 대회”, “안보 글짓기 대회”, “Green Airforce 표어 대회” 등 여러 가지 부대 단위의 대회가 있을 때마다 ‘영리한 남자’들은 ‘모범 병사’이자 ‘대표 선수’로 참가하게 된다. 각종 대회가 주는 ‘덫’에서 빠져나가 자기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엘리트 남성들에게 중요한 미션이 된다.

제3절 엘리트 남성의 제대 이후 – 군생활의 재현

자기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자투리 시간을 짜내서 공부를 수행했던 엘리트 남성들은 1990년대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알음알음’ 학교 선후배나 동기들에게 입대 준비와 입대 후 공부를 위한 노하우가 전파되어 왔지만 대중적으로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군대 경험을 말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들의 군대 경험이 남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어야 하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육군-전투병들의 ‘평범한’ 군생활에 끼워 맞춰 설명하곤 했다. 또한 자신들의 군생활을 다른 남성들의 군생활에 끼어맞춰서 해석하는 도중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자신들의 군생활을 무엇인가 ‘부족’한 군생활로 묘사하기도 했다(김현영, 2001; 권인숙, 2005b).

하지만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엘리트 남성들은 훨씬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군생활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들의 군대 경험담과 자기계발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담론들은 사교육에 의해서, 그리고 공적 담론에 의해서 통합되고 있다.

3.3.1. 군생활의 재현 방식 변화

2000년대 이전에도 남성들의 군대 경험담을 기록했던 책들은 존재해왔다. 1998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너희가 군대를 아느냐』는 PC통신의 연재물을 모아서 두 권으로 묶여진 책이다. 이 책이 묘사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씩씩한 남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다. 훈련소에 입소해서 부모들이 있을 때는 ‘편해진 군대’를 묘사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아비규환’을 연상케 하는 세상의 변화(이성찬, 1998: 22)가 일어난다. 훈련소에서 몸이 바뀌기 시작하고, 마음가짐이 바뀐다. 동시에 ‘남성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성에 대한 비하와 노골적인 발언들이다. 이는 군이 훈육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많은 남성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에도 기인한다[[168]](#footnote-167). ‘씩씩한 남자’들은 여성과의 대비와 젠더 위계화를 통하여 탄생한다(김현영, 2001). 하지만 이러한 ‘대비’만이 ‘씩씩한 남자’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황현의 『악랄 가츠의 군대 이야기』는 다른 효과들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것은 바로 ‘전우애’로 만들어지는 ‘평등의 공동체’ 경험이다[[169]](#footnote-168)

그리고 ‘씩씩한 남자’는 지속적인 검열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예컨대 그것은 ‘적응/부적응’의 이항대립을 통해 만들어 진다[[170]](#footnote-169). 이러한 빽빽한 이항대립의 기준들에 이한 담론적 실천, 훈육화는 모든 생활을 규율하고 행실을 ‘통솔’한다(conduct of conduct)(서동진, 2009b: 321). 이러한 ‘통솔’은 불완전하지만 내적으로 합리화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그것은 바로 ‘(군대의 공식적) 진급-권력’이라 말할 수 있다.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것이다. ‘짬’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기제가 된다는 것이다. 군대라는 국가 ‘관료’ 조직은 개인들로 하여금 ‘씩씩한 남자’라는 자아를 조형하고 체험하게 해 주는 것이다[[171]](#footnote-170)

이러한 이미지들은 대다수의 매체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부정적’인 모습을 다소 보여주지만, 조직의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완전무결한 근대적 조직으로서의 군대를 보여준다. 이러한 군대는 남자들만 있는 공간(젠더화된 공간)으로서 작동하고, 지속적으로 ‘정상성’을 강요하며, 이러한 정상성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6개월마다 이어지는 ‘진급-권력’의 혜택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급-권력’은 일상에서부터 군대 안의 모든 공적 행위의 차원에까지 다소간의 영향을 미친다. 자살하거나 ‘대사회적 폭로’나 ‘내부고발(소원수리·마음의 편지)’을 할 것 같은 이등병·일병들은 곧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어 휴가도 나가기 싫은 군인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성들의 군대 경험담은 군 경험들과 많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에 대한 판타지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씩씩한 남자’들의 군생활에 대한 발화들은 2000년대 중반을 지난 어느 시점부터 군대 경험담을 다룬 책에서 사그라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군대 자기계발 담론’의 등장과 함께였다. 2010년 초반,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군대에서 배웠다』라는 자기계발서가 출간되었고, 대형서점에서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 몇 주간 인기를 누렸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책을 준비하면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남들 다 가는' 군대에서 자기만의 기회를 찾아낸 사람이 정말 많았다. 이 책에는 최근 제대했거나 현재 복무 중인 그들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가 담겨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성공 요인들을 분석해 공통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그 공통점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는 점이다. 입대 전 혹은 군생활 도중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를 찾아내 이를 실천했다. 명확한 목표 설정과 그 실천, 이것이 바로 책 전체를 아우르는 테마다(박수왕 외, 2010: 3).

2001년 『반갑다 군대야』(김삼석), 2005년『군대에서 미래설계하기』(김이훈)와 2006년 『똑똑한 놈은 웃으면서 군대 간다』(박양근)와 같은 군대에서의 자기계발서들이 출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책들은 크게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다[[172]](#footnote-171). 그런데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군대에서 배웠다』(2010)는 대형서점 자기계발 칸의 베스트셀러였다. 물론 기존까지 군대와 관련된 ‘가벼운 책’들은 끊임없이 존재해왔지만, 이 책의 위치는 독보적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현재 ‘왜’ 자기계발을 해야 하는지(사회적 진리를 군대에도 투사)를 명시하기 때문이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인 본연의 임무 (......) 지만 한껏 치솟은 실업률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색을 보이지 않는 오늘날 뭐든지 '군대 다녀와서 하지, 뭐' 하는 식의 안이한 태도로는 취업 등 본격적인 사회생활 진출에 있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박수왕 외, 2010: 97).

군대에서 성과를 얻어낸 사람들 (......) 은 입대 전부터 이어온 자신의 꿈 혹은 군대에서 이루어보고자 계획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뚜렷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겼다(박수왕 외, 2010: 98).

이제는 흔히 군대 하면 떠올리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의 군종뿐 아니라 보다 세부적인 병과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기도 하다. 대학에서 전공에 따라 수업의 내용이 달라지듯이 자신이 어떤 군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안에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진다.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고려해 그에 적합한 군종이나 병과를 잘 선택하여 입대하면 군생활 자체만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목표한 바를 이루어내는 데 유리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도 있다(박수왕 외, 2010: 114).

이들은 거칠게 정리하자면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1)훌륭한 군생활의 재의미화 2)전략적 군생활 3)군대의 선택. 이제 군생활의 목표는 <우정의 무대>나 <청춘, 신고합니다!>의 시절에 보여주던 부모의 소망처럼 “몸 건강히” 마치고, ‘가츠’가 이야기했던 대로 ‘적응’하여 제대하는 것이 아니다. 군생활은 ‘정보력’과 ‘전략’을 가지고 정복해야할 과정이 되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성과’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정적인 지점을 제공한다. ‘영리한 남자’들에게 군대는 이제 더 이상 끌려가는 장소가 아니라 ‘전공’처럼 선택해야 할 것처럼 여기게 된 것이다.

1990년대까지 지배적이었던 ‘씩씩한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군대는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처럼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으로 나가 끌려가는 곳이다. ‘씩씩한 남자’들의 세계에서 군대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혹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군대의 지배적 이미지는 육군-전투병이었다. 이제 국가에 의해 ‘끌려가는’, 혹은 구조 안에서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2년을 ‘바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최소한 어떤 남성들에게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남성들에게 처음 도래하는 순간인 ‘군생활’이 그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꿈 혹은 군대에서 이루어보고자 계획한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군생활의 미션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이성찬·황현의 책과, 박수왕 등과 박찬영의 책은 시기적으로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드러내는 군인의 상(像)은 상이한 집단의 남성들의 군인 상(像)이다. 박수왕 등과 박찬영은 ‘명문대’ 남성들이고 이러한 ‘다른 군생활’하기 전략은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선택된’ 엘리트 남성들의 경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군생활’에 대한 ‘명문대’ 남성들의 군대 경험담을 다룬 책들은 이들의 인식에 한정되어있다.

2000년대 군대 자기계발서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스스로의 군생활이 다른 남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군생활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책들에 나온 저자들의 프로필을 보게 되면 그들의 군생활의 ‘견적’을 예측해볼 수 있다. 명문대 출신 혹은 해외 대학 출신이라는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엘리트 남성의 표식이나 의무소방, 통역병, 공군, 장교 등의 ‘다른 군생활’이 그들을 구분해준다. 그리고 그러한 표식을 드러내는 행위는 점차 ‘노골적’으로 변한다. 예컨대 2005년에 출간된 『군대에서 미래설계하기』(김이훈[[173]](#footnote-172))의 경우 군을 바라보는 관점은 “내가 시간의 관리를 소중히 하자고 하고 자신을 계발하고 발전시키자고 해서 군인이 군대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김이훈, 2005: 115)처럼 우선순위에 있어 여전히 ‘군인의 기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의 군 복무는 2000년대 이후 학번 남성들에게 2000년대 후반에 와서는 ‘안이한 태도’(박수왕, 2010: 97)이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유발하게 되는 것으로 평가절하 된다. 전략적인 군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당위 또한 만들어지게 된다.

또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담론을 유포하기도 한다. 온라인 상의 ‘군대 자기계발 스토리’ 형식의 블로그 등이 그러한 예이다(<부록 5> 참조). 이러한 블로그는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정보를 연재한다. 이러한 블로그의 포스팅은 각 계급(rank) 별로 할 수 있는 자기계발의 전략을 상술하고, 공부를 하기 위한 문구용품에 대해 설명하고, 어떠한 군인으로 부대에서 비추어져야 많은 학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을 첨부한다. 다른 한 편으로 군복무 기간 동안 군 내부 통신망인 인트라넷 내부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활용한 클럽 활동을 제대 후에도 유지하기도 한다. 예컨대 네이버에 위치한 M&B(Lan & Books) 같은 독서클럽의 경우 군 인트라넷에 있었던 M&B(Management & Business)라는 동아리에서 시작했다.

3.3.2. 자기계발 담론의 포섭

이러한 남성들의 온, 오프라인상의 자기서사나, 자기계발담론 등의 집약되지 않은 목소리들은 점차 통합되고 있다. 학원에 의해서다. 예컨대 통역병 학원 등에는 ‘합격후기’, ‘통역병/통역장교 선배소식’ 같은 카테고리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합격후기’, ‘선배소식’ 등은 일단 입대 전형과 관련한 ‘고급 정보’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군생활에 대한 소식을 통하여 입대 이후의 자기계발을 위한 전략적 군생활에 대한 지침이 되기도 한다. 현역 병/장교인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고[[174]](#footnote-173) 후배들의 질문에 댓글을 달며, 또한 학원 강사는 꼭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그들에게 댓글로 질문을 하기도 한다. 애초에 온라인 커뮤니티 시기의 자발적인 남성들의 기록은 정보들은 학원가에 의해서 ‘고급 정보’로 가공되고 있다.

덩달아서 현역 고위 장교들이나, 국방일보 등을 위시한 군대와 군인들에 의해 발간되는 자기계발서가 등장하고 있다(김정필, 2009). 예전 같으면 북한군과의 교전에 대한 무용담을 하거나, 지휘하의 병사들의 ‘임전무퇴 정신’, 용맹무쌍함 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책을 내던 고위급 장교들은 군대가 민주화되었고 자기계발을 적극 독려하는 군대가 되었으니 잘 적응하라고 주장한다. 이들도 ‘정보력’을 언급한다. 김정필은 ‘군생활에 대한 정보부족’이 지금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이며 이 정보력을 갖추면 군생활이 ‘자기계발을 위한 도전의 장’이 될 것이라고 한다(김정필, 2009: 8).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계발하는 군대는 군대의 ‘병영문화개선’과 맞물려 있었다. 군대의 자기계발 사례는 군대가 민주화되고 개혁되었다고 주장하기에 적절한 소재였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은 천안함 사태가 있었던 2010년 이전까지 대대적으로 군대 내외로 전송되는 매체들에서 등장하게 된다.

제4장 엘리트 남성의 군복무와 2000년대 군대개혁

제1절 자기계발하는 군대와 엘리트 남성의 군복무 전략

**4.1.1. 엘리트 남성의 전략과 계급재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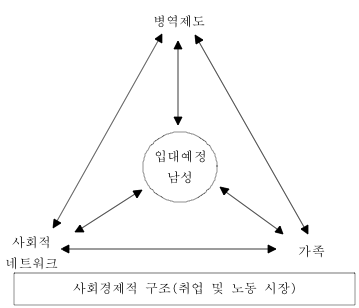
4.1.1.1. 엘리트 남성의 전략과 계급(class)의 문제

엘리트 남성들의 군대에서의 자기계발을 해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차원은 이 남성들의 전략이 작동할 수 있는 장(場)의 구조의 차원이다.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미 1장에서 살펴보았던 남성들의 군 입대 이전 신자유주의 사회의 맥락이다. 애초에 한국에서는 유럽 복지국가나 자본주의 황금기의 미국처럼 국가와 사회가 청년 남성들의 생애기획(life plan)을 조율하는 프로그램이 취약했다. 박정희 정부의 ‘개발독재’시기에 광범위하게 하위 계급의 남성들을 국가가 육성하는 산업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기획을 군과 함께 진행한 적이 있었지만(군의 기술교육 – 2장 2절 참조), 이 역시 다수의 남성들의 생애기획을 책임지지 못했다[[175]](#footnote-174). 게다가 90년대 이후 대학생의 숫자가 전체 청년세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97년 이후 벌어진 신자유주의로의 편입(IMF 구제금융)이 진행되면서 국가와 사회는 청년들에게 ‘고용보장’을 **약속**하는 것이 아닌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국가인적자원개발(NHRD)의 구상은 국가가 취업시장에 진출하는 예비노동자들과,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실업자들에게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차후 발생할 고용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aptitude), 즉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길러주는 것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한 논리가 그대로 군대에 투과된 것이다. 그나마 별로 존재하지 않았던 ‘보장’의 논리가 1980년대 이후 산업논리에 맞지 않아서 소멸되고 2000년대에 이르러 개별적인 학습을 통해 역량을 기르라는 ‘요구’로 전환된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통치전략으로 진행되었던 ‘자기계발’의 영향이다. 애초에 군생활 여건 개선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합적 도움(collective help)’이 불가능했고, 이는 개별적 도움(self-help, 자기계발)의 방식으로 남성들이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또한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진행된 5.31 교육 정책은 청년들에게 국-영-수 과목에 대한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디자인해야 한다는 강제를 만들어냈다[[176]](#footnote-175). ‘열린교육’과 ‘평생교육의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걸맞게 다양한 방식의 입시 전형 방식이 진행되었다. 봉사활동과 자격증, 어학성적, 헌혈 등이 모두 자신의 우수한 역량(excellent aptitude)을 드러내는 지표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입시전형의 복잡화는 그 이전의 ‘모범생’과는 다른 방식의 남성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90년대까지의 경쟁은 대학 입학 이후 멈추었지만, 절대적으로 줄어든 노동시장의 공채시장의 수요로 인해 ‘고용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2000년대의 경쟁은 대학 입학 이후에도 취업대란으로 인하여 연장되었다. 구직 이전의 입사경쟁, 구직 이후의 해고와 명예퇴직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경쟁의 장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군대 생활도 이러한 구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즉 경쟁의 패턴이 모든 생애기획에 틈입되게 되었고 군생활 역시 예외가 아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새로이 발생하게 된 군생활과 관련된 행위자들이 개입할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바로 3장에서 언급한 사교육 행위자들과 엘리트 남성들이 주로 머무르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사회적 네트워크이다. 이를 정리하자면 <그림 7>와 같이 구조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림 7> 2000년대 남성들의 입대 준비 구조화

신자유주의라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경쟁에 최적화되어야 하는 엘리트 남성들은 자신의 정보력만으로 ‘다른 군대’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명문대’인 자신 주위의 선·후배, 동기라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른 군대’의 정보를 얻는다. 특히 2000년대 중반을 경유하면서 확장하기 시작한 사교육 행위자들은 입대전형의 경쟁구도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입대 정보와 전형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사교육 소비자로 성장해온 엘리트 남성의 배경에 존재하는 ‘매니저 엄마’들의 가족 경영전략은 단순히 입대예정인 엘리트 남성의 입대 전략에 필요한 자본과 정보력을 보조한다. 마지막으로 병역제도는 필기시험 등의 ‘선발기제’를 통하여 ‘영리한 남성’을 선발하고, 일선부대에서도 이들을 ‘선별’하여 분류하며 또한 이러한 정보는 엘리트 남성들에게 간파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군대에서 자기계발하기를 바라는 남성이라는 예속화된 주체로서의 엘리트 남성들와 부모, 사교육 연합이 입대 이전과 이후 군생활과 관련하여 만들어내고 있는 현상은 바로 남성의 생애주기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수행’을 하는 ‘단절기’라는 인식의 붕괴를 나타낸다. 매끈한 신자유주의적 생애기획의 범주 안에서 이전까지 ‘예외’로 존재했던 군생활의 구간이 동일한 방식으로 통합되게 된 것이다. 군생활의 ‘예외성’이 인적자원을 만들어내는 측면에 있어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과정이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생애기획에 통합된 군생활의 장이 열리면서 ‘엄마'로서의 여성들은 ‘양육’의 과정으로 군생활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엄마'들은 ‘곰신’ 카페와 군가족 카페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군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아들의 군생활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전전긍긍하고, ‘단절’되지 않은 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편지를 보내며, 원하는 물건을 전달해주려 노력한다(<부록> 5 참조). 군인을 관리하는 법적인 기관은 군대이지만, 부모들은 군대 안에 있는 아들 군인에 대한 ‘사적’ 돌봄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투한다.

반면 다른 남성들의 경우 그러한 정보는 한정적이다. 일단 군생활에 대한 규범이 엘리트 남성들과 다르다. 전반적인 기조는 연구 참여자들의 한해서 살펴볼 경우 변화하고 있지만, ‘다른 군생활’에 대해 엘리트 남성들에 비해 예민함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축적된 ‘루트’나 ‘족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대체로 ‘공군’ 정도가 조금 더 편한 생활이라는 것에서 멈추곤 한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입대 구상의 단계에서부터 전혀 다른 선택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입 경쟁에서 성공적 위치를 부여 받았던 엘리트 남성들 앞에 펼쳐진 선택지와 다른 남성들 간의 선택지 자체가 다른 것이다.

게다가 사교육을 통한 입대 준비 자체는 또한 기존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비용을 유발한다. 카투사 특강의 경우, 메가스터디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며 3개월에 21만 원의 수강료를 책정했고, YBM 시사의 경우 3개월에 39만 9천 원의 수강료를 책정했다. 통역병(장교) 학원의 경우 금액은 훨씬 더 높은 편이다. ‘S어학원’의 경우 매월 31만 5천 원의 수강료가 책정되어 있고, ‘H번역통역어학원’의 경우에는 매월 35만 원의 수강료가 책정되어 있다(2011년 11월 기준).

문제는 한국에서의 군 입대가 대학입시와 좀 다른 사회적 차원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은 의무교육의 영역이 아니고, 그 실질적 영향과 상관없이 대학 입학과 입학 포기는 형식적 법적 논리를 통해 볼 때 순전히 ‘선택’의 영역이다. 하지만 입대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의 영역이다. 모든 남성은 특별히 ‘신체적’ 결함이 없는 이상, 그리고 몇 가지의 예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입대해야 한다. 헌법 39조 2항이 규정하듯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가 ‘틈새’ 공간과 그 공간을 점차 확장시키는 매개로 작동하는 사교육에 의해서 침윤 당하게 되는 것이다[[177]](#footnote-176). 징병의 원리가 남성들에게 보장한 ‘평등’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선발기제가 작동되며, 선발기제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점차 사교육에 의존하는 남성들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게 앞으로 군 입대의 차원에서 ‘양극화’의 기제가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카투사의 3∼40% 가량은 일명 SKY로 불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남성들이고 국회의 조사에 의하면 70%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다[[178]](#footnote-177). 의무소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179]](#footnote-178).

많은 20대들이 등록금 ‘1천 만 원’시대에 알바를 통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고, 부모 역시 ‘성별 분업’ 할 여지도 없이 그 등록금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입대 시장의 창출과 사교육의 개입은 분명한 ‘양극화’의 표지로 볼 수 있다(교육공동체벗 편집부, 2011). 그 시장의 소비자가 되는 것이 정보력, 재력과 곧바로 결부되기 때문이다. 또한 입대 사교육은 한국만의 특수한 ‘대치동식 사교육’ 방식의 메커니즘이 신자유주의적 상황과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정보력과 재력 모두를 활용할 수 없는 다른 계급의 남성들과 부모에게 이러한 선택지는 언제나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없다[[180]](#footnote-179). 요컨대 전혀 다른 입대 준비가 계급을 재생산한다.

4.1.1.2. ‘모범병사’의 문화정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입대 이후의 자기계발을 수행하는 병사, 즉 ‘모범병사’의 문화정치이다. 엘리트 남성들이 다양한 자격증 시험과 고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데에는 군인적자원개발이라는 구상이 개입되어 있다. 기존까지 군대에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군대가 군인들의 자기계발을 독려하는 환경은 아니었다. 하지만 군인적자원개발이라는 군대개혁의 목표가 설정되면서부터 ‘예외적’이었던 군인들의 자기계발은 부대에 있어서 독려되어야 할 것이 된다. 앞서 언급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축사 등은 이러한 맥락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군통수권자부터 국방부 장관, 각 군 수뇌부의 군 상층부부터 일선부대에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장교에 이르기까지 군인들의 자기계발을 독려하기 위한 방향이 설정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대에서 모범적인 병사의 기준이 바뀐다. 예나 지금이나 전투의 측면에서 우수한 군인은 군사지식을 습득하고, 몸으로 교전상황에서 자신의 직무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군인이다. 하지만 다른 한 편 징병제하에서 군인은 또한 2년가량의 복무기간을 마쳤을 때 사회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군인이어야 한다. 1970년대의 ‘군인 노동자’의 경우가 그렇고, 군생활이 “사회로부터의 단절”로 표상되는 2000년대의 상황에서 우수한 병사, 모범적인 병사는 국가의 축적전략 및 교육전략의 군대 버전인 군인적자원개발의 목표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병사이기도 하다. 군인적자원개발이 군대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되었던 2005년 이후부터 병사들의 자기계발은 부대의 ‘실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한다. 많은 자격증, 높은 어학점수, 고시 합격 등은 남성 개인의 차원에서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부대의 성과가 되기 시작한다. 간부들의 인사고과에도 이러한 실적은 또한 영향을 미친다. 엘리트 남성들의 개별적이며 전략적인 실천들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가장 개인적으로는 간부들의 지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적 심부름을 하는 것부터, 조금 더 부대의 목표와 연관되는 각종 대회에 공모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이들의 자기계발 행위는 부대의 공적 목표와 조응하기 시작한다.

동시에 업무상의 편의를 통해서 엘리트 남성들은 앞서 언급한 ‘선발’되어야 하는 전형으로 입대하지 않더라도 부대에서 ‘선별’되어 우수자원으로 관리되게 된다. 엘리트 남성들의 ‘영리함(smartness)’은 부대의 관리해야 할 자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아시겠지만. 사단. 연대 아니면 여단. 그 다음 대대급으로 내려가는데. 이런 상급부대에서 하는 건 거의 행정업무가 많거든요. 행정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각 참모부에 있는 부서의 계원들은. 제가 생각해도 그 계원들의 역할이나 능력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이 행정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상시업무. 이걸 계속 상시업무를 돌리면서, 장교들은 뭔가 또 새로운 것을 기안하고, 뭔가 또 새로운 것을 적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준 간부급으로 일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 얘 좀 ‘스마트’ 한 애다. “똘똘할 것 같다.”라고 하면 사단본부 어디에 가서 이제 계속 행정계원으로 계속 얘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R. 강조는 연구자).

이 지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앞서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부대의 인력관리 메커니즘에 대해서 엘리트 남성들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간부들에게 습관처럼 남아있는 선별 메커니즘은 은연중에 다른 남성들에게 ‘할당효과’를 만들어낸다. 서로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은 서로 군생활을 기획하고(기획하지 못 하고) ‘선발’ 경쟁을 통해 입대를 하며, 부대에서는 이들을 다시금 자대배치와 보직부여의 단계에서 ‘선별’(할당)하며, 이들의 전혀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군생활은 서로 다른 규범과 정체성을 몸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즉 서로 다른 주체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엘리트 남성들과 다른 남성들은 서로를 다른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분리해서 판단한다. 계급(class) 간 다른 군생활 경험이 공통감각을 해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모범 병사’라는 상징이 실상과는 다른 문화담론에 있어서의 우위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남성들로 하여금 ‘학벌에 대한’ 박탈감을 은연중에 만들어내게 만든다.

**4.1.2. 형성되지 않은 ‘학습조직’과 자기계발의 어려움**

2000년대 진행되었던 군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인력 양성형 평생교육’은 군이 예전처럼 주도하거나 병사 개개인에게 맞춤으로 제공되는 방식이 아닌 ‘자기계발 여건’을 보장하는 방식이었다.[[181]](#footnote-180) 군인적자원개발은 그 목표로 ‘학습조직’으로서의 군대를 만들어내는 것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목표였던 ‘학습조직’으로서의 군대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자기계발의 여건은 유동적으로 형성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의 부재 때문이었다. 앞서 언급한 육군 3군단의 ‘그린 존’ 운동 등은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고 군인적자원개발, 자기계발하는 군대의 모범 사례로 언급되었지만 모든 부대가 그러한 자기계발하는 여건을 갖출 수는 없었다.

먼저 예산제약이 그러한 문제를 만들어냈다. ‘학습 동아리’등의 병사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 3장에서 언급했듯이 실제 참여율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학습 동아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자금의 부족에서 출발했다.

계산해 보면 간단할 것 같아요. 병사 1인당 과연 그거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할당 되었을까. 그건 솔직히 좀 힘든 이야기거든요(R).

실제 일선 육군 부대의 발명동아리의 성공적 정착을 다뤄 ‘학습 동아리’의 성공조건에 대한 분석을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수행했던 김정진(2011)의 연구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이러한 예를 적용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김정진의 연구에서 발명동아리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까닭은 부대 간부들의 헌신적인 참여였기 때문이다. 통상 병사들이 바라는 학습 동아리는 어학 동아리나 자격증 혹은 경영학(주식투자 등)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동아리이다. 그런데 부대 간부들의 요구는 병사들의 요구와 다를 수밖에 없고 헌신적으로 동아리에 참여할 요인을 갖지 못한다. 간부들의 참여나 도움이 없으면 학습 동아리는 예산 제약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주 5일제 근무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토요일날 오전에는 동아리 활동 같은 거 많이 시켰고, 이제 지식정보방 들어오면서 컴퓨터 동아리 많이 했고 독서 동아리. 아니면 또 개중에는 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그 친구들에 의한 영어 동아리 같은 것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쭉 개별 의지대로 하는 친구들은 있었지만 그런 게 뭔가 체계적인 건 좀 힘들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는 게. 만약 내가 어떤 참고서나 그런 걸 사겠다라고 하면 OK. 그걸 사는 거나 그런 구입 같은 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하나? passive하게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 전에 안 되었었던 것들을 규제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CDP 같은 것들도 원래 안 되었었는데 그런 걸 듣게 해준다거나. 했었는데. active하게 강사를 데려온다거나 그런 것들은 솔직히 좀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예산 문제니까(R).

두 번째로 마땅히 학습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많은 한국의 부대들이 미군시설처럼 완벽한 복리후생 시설이나 생활공간을 만들어놓으면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도 기인한다. 기지(airbase)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공군 부대들처럼 시설을 완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열악한’ 육군 일선 부대나, 배에서 활동해야 하는 해군 부대의 경우에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하기 어렵다(3장 4절 참조).

그나마 예산과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세 번째로 기본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이 바로 그것이다(3장 4절 참조). 2000년대 이후 진행되어온 자기계발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분명 존재했지만 부대의 병사로서 수행해야 하는 직무가 수월해지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부대의 경우 ‘학습조직’의 목표로 기껏 진행된 것은 하루의 근무가 종료한 후 주어지는 자유 시간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퇴근 후의 내무 생활이 자유로워진다 하더라도 근무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피로 그 자체가 줄어들진 않았고 그 시간에 학습을 위해서 최적화된 스케줄을 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부대에서 외부 영어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한다 해도 그 참여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집중할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훈련 외에도 실제 상황이 벌어져 근무가 늘어날 경우 학습의 리듬은 유지될 수 없다. 게다가 간부들이 호의적으로 학습을 독려하더라도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선임과의 협상과 관계조율에 성공하지 않으면 자기계발에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습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3장 2절에서 언급했다시피 인적구성과 인원에 따라서 자기계발에 대한 분위기 또한 천양지차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조건은 엘리트 남성들의 군생활에서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개별적인 전략을 통하여 최대한 자기 시간을 확보하려 하고, 동시에 근무 시간에도 자신의 자투리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에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 학습 경쟁에서 승자 쪽에 서 왔고, 그 경쟁이 몸에 내재화되어있는 남성들로서 학습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뿐이다. 그나마 엘리트 남성들은 그 중 비교적 학습에 유리한 ‘좋은 조건’(시간과 장소, 구성원)을 갖춘 곳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들의 입대 준비 전략은 이미 주어진 구조에 예속화되어 개별적으로 ‘수동적(passive)’하게 적응하는 전략일 따름인 것이다.

군은 개별적으로 엘리트 남성들의 ‘학습 성과’를 홍보하고 성과로 보고하며 ‘학습의 조건’을 구축한 것으로 언설을 펼치지만, 그 ‘학습 성과’는 엘리트 남성들 개인들이 ‘학습의 조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오롯이 특유의 ‘학습 강박’을 통해 자신의 주위를 둘러싼 사적 자원을 활용하고 부단한 협상을 통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부대가 ‘학습조직’과는 무관하며, 엘리트 남성들이 선호하는 ‘다른 군생활’할 수 있는 부대일 경우에도 ‘학습조직’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제2절 병영문화개선과 자기계발의 관계

**4.2.1. 인권**[[182]](#footnote-181)**으로 등장한 자기계발**

군대는 군 인적자원개발의 기획 아래 자기계발하는 남성들을 부각시키는 것을 병영문화개선의 징표로 보이려 한다(국가-구조적 차원). 또한 엘리트 남성들은 자기계발을 인권으로 판단한다(행위자의 차원). 이를 구분하여 두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국가-군대(구조) 차원에서의 군대개혁의 방향이다. 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군은 2005년의 국면을 통하여 인권의 문제, 즉 ‘병영문화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표를 부여받았다. 이를 위해 병사 간에 벌어지는 사적 제재와 간부들의 권력을 활용한 폭력의 문제 등 병영 악습을 철폐하는 차원의 ‘문화적 개선’과 병영악습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 즉 시설의 차원과 주거 환경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책임을 맡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 문제이며, 타성에 젖어있는 군대문화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외부적 개입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구조적 차원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먼저 예산이 부족했고, 두 번째로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병영문화명랑화 대작전’(해병대)과 같은 방식으로 단기적 지침으로 전개되었다.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군대문화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시민사회의 개입을 제도화하지 않았다(군경 감독관제도). 이러한 개선의 부재는 총괄적으로 볼 때 개혁을 진행함에 있어 ‘군의 목표와 위상’이라는 차원에 대해서 전혀 문제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서 출발한다.

1장 2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군은 인권(병영문화개선), 교육(군인적자원개발), 안보(국방개혁 2020)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안보의 측면[[183]](#footnote-182)에서도 군대의 개혁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개혁의 초점은 ‘첨단 테크놀로지의 군대’였다. 기존의 병력 의존적인 군(육군 헤게모니)에서 탈피하여 첨단 무기체계의 발전을 통하여 현대전에 대응하는 것에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의 측면에 대한 군사비는 이전 정부에 비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띠면서 집행되었다. 문제는 안보의 가치와 인권의 가치가 길항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군의 핵심적 가치에는 주권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합의가 있다. 즉 ‘안보’에 대한 합의이다. 하지만 동시에 냉전시기 한국의 상황처럼 ‘평화적 분위기’에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를 강조하다보면 군에 내재하는 특수적인 관계인 전쟁 상황에 준거하여 모든 사회적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군사력-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병사들의 인권은 부차적인 것, 혹은 명령을 위해서 제약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184]](#footnote-183).

물론 교육(인적자원개발, 자기계발)의 측면도 안보가 강조될 경우 일정부분 제약될 수 있다. 하지만 ‘첨단 테크놀로지의 군대’ 구상에서 강조되는 것은 첨단 기술을 운용할 수 있는 방식의 ‘인적 자원’이며 병사든 간부든 모든 군인들이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는 현대전 상황의 안보 체제에 있어서 유리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국가적 필요(국가인적자원개발)라는 기준에서도 군의 인적자원개발은 독려될만한 것이었고 따라서 병사들의 자기계발은 인권과 달리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185]](#footnote-184).

군 당국은 ‘병영문화개선’ 프로젝트의 종결을 선언하지 않는다. 2010년 이래 인권과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 중 남북관계의 변화를 통하여 안보에 대한 강조가 진행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정책 목표였던 병영문화개선 자체가 폐기되지는 않았다. 병영문화개선의 다양한 목표 중 하나인 군인들의 자기계발을 부각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군대가 좋아졌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 군대에서 자기계발하는 군인들의 조명은 청년실업이 만성화된 상태에서 군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소재’였기 때문이다. 군은 자기계발하는 군인들을 강조하면서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방향의 차이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화 또는 정착되지 않은 과제들이 병립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행위자로서 남성 주체의 차원이다. 자기계발을 인권으로 인지하는 과정은 ‘공포의 개인화’(바우만, 2010)와 집합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권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개인화되었다는 점에서부터 시작된다. 여전히 민주화되지 않은 군사문화와 군사주의가 청산되지 않은 학교 공간에서 자랐던 남성들에게 군대의 병영 자체는 분명 불만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었고, 실제 자신에게 직접적인 폭력이나 피해로 다가오게 될 때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것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1990년대를 경유하면서 학생운동이 실패하고, ‘신세대’ 담론으로 개인주의가 설파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1980년대의 입대거부와 같은 전면적인 ‘집합적’ 운동담론으로서의 군대의 변화 요구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대에서 그러한 ‘폭력적’ 환경을 견디면서 개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과실’(독서, 자격증 공부, 수능 공부, 고시 공부)을 획득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는 관념은 어쩌면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학습의 장에서 벌어지는 경쟁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남성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는 인권과 버금가거나 인권으로 등치될 수 있는 것이었다. 자신의 ‘인적 자본’을 극대화하여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보장받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인권이 되는 것이다. 즉 ‘시민권’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장받기 위한 차원이 되는 것이다. 개별화된 자기계발(self-help)이 인권의 문제로 전환된 것이다[[186]](#footnote-185).

**4.2.2. 비가시화된 인권의 문제**

군 인적자원개발이 병영문화개선의 지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빚어지는 가장 큰 문제는 비가시화된 기본권 중심의 인권의 차원이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제기된 군대에 대한 개혁 요구는 일차적으로 병영문화개선, 그리고 좀 더 자세히는 병영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및 폭력의 문제에서 군인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는 전반적인 병영악습을 근절하는 것이 주요한 국방부의 기조였고, 군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들이 용인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권의 문제 역시 함께 개선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집합적인 저항이 벌어지지 않고,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엄중한 사법적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개별적인 ‘각개약진’의 전략을 남성들이 채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군대개혁의 방향이 전환되면 그대로 그나마 개혁되었던 인권의 문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개혁과정을 경유하면서 병영문화개선의 원래 명분이었던 인권은 협소하게 변했다.

군대 내부와 외부에 병사들이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과 권리는 제도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비제도화 상황은 언제든지 다른 정책기조로 바뀌었을 때 병사들의 인권개선 방향이 뒤집힐 수 있음을 뜻했다. 노무현 정부는 ‘시스템’과 ‘로드맵’을 대부분의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적용하려 했지만, 실제로 병영문화개선에서는 ‘시스템’보다 권력자의 ‘의지’ 수준의 정책들이 진행되었다[[187]](#footnote-186).

실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병영문화개선’ 작업이 ‘약군 정책’으로 간주되고 다시금 ‘정신력’과 ‘강한 군기’를 간주하는 상황이 오면서 점차 병사들의 인권은 침해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되어오던 병영문화개선 프로그램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Fight Tonight’(이상희 장관)나 ‘전투형 부대 만들기’(김태영 장관)에 이르러 주요과제에서 제거되기 시작한다. 미디어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낸 ‘약군’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이 벌어진 이후에 인권의 문제는 전혀 강조될 틈새가 없었다. 부대 내부의 기율은 훨씬 강화되었지만, 병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이전까지 정기적으로 보장되던 휴가·외출·외박은 ‘지휘관 재량’으로 간부가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전반적으로 제약되던 호전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엘리트로서의 고위급 장교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또한 일선부대에서 다시금 안보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실무자 간부들의 업무에 우선순위에 있어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 즉 정책의 일관성의 차원에서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2011년 총기 난사사건과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했던 해병대 2사단의 혼선이 이를 보여준다[[188]](#footnote-187).

여기가 2007년 2008년 초부터 사단장이 바뀌었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사단장이라고 이번에 항명해서 잘린 사람이었어. 해병대 부사령관이었어. 부사령관? 어. 부사령관이었을 거야. 그래서 2사단장을 하고 거기로 간 건데. 소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와 가지고. “병영문화 명랑화” 이런 거 했거든요? 그래서 구타 및 악습 척결 하는 거 다 드러내고 다 까발리고. 그리고 인터뷰 하고 다니고. 일이병들 면담하고. 했담 말이야. 2008년부터 그 사람이 사단장 있었던 2009년 말까지? (2년 동안?) 어. 그걸 했어. 구타 및 악습 철폐하고. 근데 군대 문화 알잖아요.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가라 자료로 올리고. 어쨌건 할 건 했어요. 분위기도 그랬고. 이병이 막 사단장한테 찌르고 그런 분위기는 됐어. 그런데 그런 물렁해진 분위기 상태에서 갑자기 그 때 항명해서 잘린 사단장이 왔을 때 갑자기 ‘작전’으로 돌린 거야(S).

병들의 생활에서 이제 이런 호전성을 강조하니까 위로휴가와 포상휴가가 최소화돼. 그리고 비상이 많아져. 비상이 많은 다음에 종료가 잘 안 돼. 굉장히 장기간으로 가.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정기 휴가도 못 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되던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아예 이제 뒷전으로 빼버리는 거지. 그 전에 이런 게 있었어. 연간 계획안과 연말에 활동사항 종합 보고를 할 때 그런 게 다 항목이 있어. 병들의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는 그런 거 자체를 별로 신경을 안 쓰지. 항목에서 빼진 않지. 빼진 않지만 굉장히 거의 최 후순위로 밀리면서 비중이 굉장히 작아졌지(Q).

S는 ‘병영문화개선’이 기조가 되었던 2008∼9년과 이후 ‘작전’ 중심의 부대 운영을 겪게 되면서 발생했던 딜레마를 설명해주었다. ‘병영문화개선’은 전통적인 부대의 ‘연례 목표’처럼 빠른 속도로 성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그 정착 및 제도화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S의 부대의 경우 군 전체의 정책목표가 바뀐 2010년 갑자기 일선에서도 ‘작전’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부대 전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속출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던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상호간에 배치되는 순간 중간계층으로서의 간부들에게 일의 ‘과부하’는 업무상의 혼선을 지속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간부들의 업무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와 일의 몰입도가 되는데, Q이 보여주는 것처럼 2010년 이후 군에서는 다시금 ‘호전성’(S의 ‘작전’)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지난 정권의 군대에서 진행되었던 ‘병영문화개선’은 이제 폐기 되거나 유보되어야 할 목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간부들의 업무에 있어서의 혼선은 동시에 병사들에게도 혼선을 미칠 수밖에 없다.

paper-work만 된 거지. 지금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분위기는 완전 빠지고. 분위기는 작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애들 병영생활은 그대로 인데 그렇다고 작전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단장이 와가지고 “이제 병영생활이 이미 완성이 되었으니” 그 페이퍼 워크 보면서. “병영생활 완성 되었고 구타 및 악습철폐 되었으니 작전으로 가자” 해봐라. 이게 어떻게 되겠어? 빵빵 터지는 거지(S).

S는 이러한 상황을 ‘paper-work’이라 정리한다. ‘병영생활의 완성’(병영문화개선)도 장교들이 윗선에 보고했던 ‘paper-work’이었고, 동시에 그 이후 ‘작전’ 중심의 부대 운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하는 것 역시 ‘paper-work’라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전산화’라는 작업이 결부되면 간부들은 제대로 어떠한 업무도 보기 힘든 상황이 된다.

군대도 이런 행정 일들이 많이 전산화되었거든요. 이걸(병영문화개선) 가시화하고 생활기록부 같은 것도 전산으로 많이 하고. 그런 약간 과도기적 측면이 있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정말로 일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문서로도 보관하고, 전산화되는 것도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전산화되는 게 뭐가 문제냐면, 지침이나 그런 걸 내리기 정말 편해요. 공문을 전산으로 뿌리면 되니까. 그러면 이걸 받는 입장에서는 그 공문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 루틴이라고 해야 하나요? 루틴이나 메커니즘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한 번은 연구해 봤으면 어떤가 싶어요. 공문의 개수와 공문의 그런 것들이 과연 연도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작은 제도에서부터 높은 제도까지(R).

육군 부대에서 인사장교로 근무했던 R는 이러한 상황에서 간부들이 ‘루틴’ 혹은 ‘메커니즘’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업무의 과부하가 만들어지는 문제를 마찬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혹여 ‘병영문화개선’의 목표가 일선 부대의 지휘관의 의중에 따라 ‘전투형 부대’나 ‘작전’, ‘호전성’과 공동 목표로 설정되어 함께 진행되더라도 그 자체를 실무로 진행해야 하는 인원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예전 같으면 한 가지 목표에 그나마 몰입할 수 있던 상황에서 둘 다 전개할 경우 R가 말한 딜레마처럼 업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다른 한 편 전환된 목표에 초점을 맞춰 업무의 방향을 바꿔서 진행할 경우 이미 진행되었던 ‘병영문화개선’에 익숙한 병사들과의 마찰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89]](#footnote-188). 이전에 병영문화개선이 ‘완수’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대 안의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비가시적인 이슈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군대개혁에 대한 요구는 1차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요구였다. 국민으로서, 또한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인권을 폭력과 위계관계, 그리고 몸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2년간 박탈당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혁하라는 것이 1차적인 요구였다. 또한 이제 군인은 정치적인 중립에 대한 요청보다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는 호전적인 주체가 아닌 ‘아들’로서, ‘애인’으로서, ‘친구’로서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었다. 관계적 속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군인에 대해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전개되었던 개혁들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온전히 받아서 실천하지 않았다(못했다). 일선부대의 간부들이었던 R, S, Q이 언급하는 것처럼 애초에 2000년대 인권의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이었던 병영문화개선의 경우 부대에는 부과된 업무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간부 1인당 인력이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고 간부들이 맡아야 할 인력과 업무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기존까지 사적 제재를 통해 ‘폭력’을 활용한 부대관리에 익숙했던 간부들의 관행은 인권과 관련된 사항의 ‘지시사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일선의 중간관리를 담당하는 간부들은 상부의 병영문화개선의 지시사항에 대해 각 부대 당 ‘개선 사례’를 보고하는 방식의 ‘페이퍼워크paper-work’로서 인식했다. 하지만 이 역시 그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중간간부들이 해야 할 일은 병영문화개선 외에도 전통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병사들과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초급 장교들은 병사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에 개입하기에는 힘이 부친다.

조직 내부적으로 인권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해법은 시민사회와 결속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외부의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시정할 수 있는 방식의 기제를 마련하는 방식, 즉 ‘군경 감독관 제도’ 등으로 인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2장 3절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이 역시 제도화되지 못했다. 군 내부의 ‘비밀주의’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국방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요컨대 병영문화개선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정책 패키지’는 진행되었으나 인권의 문제는 여전히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190]](#footnote-189).

제3절 2000년대 표류하는 군대개혁과 홍보물로서의 자기계발

개인들의 자기계발을 바탕으로 한 ‘군인적자원개발’의 구상에 포섭된 ‘병영문화개선’의 전개를 통한 방식의 군대개혁은 정치경제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개혁의 구조적 요인들을 개선하지 못했다.

일차적으로 제대 후 남성의 교육-군대-교육-고용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드러나는 노동시장의 측면이다. 징병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군대를 통해 징병의 대상이 되는 남성들에게 군복무 2년 남짓의 기간 동안 교육과 훈련을 시킨다. 징병제에 대한 불만 요인이 민주화 시기 이전의 개발독재기에 표출되지 않았던 요인은 2년간의 군복무 이후 제대하는 남성들을 산업화 발전국가 전략과 연동하여 노동시장에 진출시켰기 때문이었다. 또한 젠더정치학의 관점에서 제기되었던 여성의 시민권 격하가 크게 문제제기 되지 않았던 연유에도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유지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규모와 임금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이후 만성화된 청년 실업의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비정규직이 50%에 육박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88만원 세대’로 투사되는 청년실업과 불안정 노동구조로 인해 ‘표류하는’(세넷, 2006) 청년들에게 군대 2년의 ‘단절기’는 참을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개인화된 공포(바우만, 2010)는 어떠한 시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그들의 군생활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된다. 1999년 폐지된 군가산점제도는 남성들에게 좀 더 많은 ‘박탈감’으로 상징될 수 있다[[191]](#footnote-190).

군 당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키려 하거나, 군인들의 자기계발을 독려하거나, 군인들의 자기계발 실적을 기업에서 요구할 때 인증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먼저 자기계발의 측면에서 볼 때 본 장의 1항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애초 기획되었던 ‘학습조직’은 구비되지 않았다. 즉 군대에서의 자기계발 전략은 모두에게 성공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남성들의 자기계발 여건이 완비되고, 군에서 익힌 지식들을 사회에서 그대로 반영하여 1장에서 언급한 직접적 보상(군가산점제)을 해주거나,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형식지’나 ‘암묵지’로 인준하여 이익을 만들어주더라도 또 다른 문제는 남게 된다.

그것은 바로 젠더정치학의 문제이다. 취업난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부양하느라 연애할 수 없고, 결혼할 수 없으며, 결혼하더라도 사교육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아이를 나을 수 없는 출산대란의 상황으로 현재의 청년 세대는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의 포기)의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통용되는 핵가족을 재생산하기 위해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의 취업에 대한 지원 역시 동시에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개발독재 시기의 남성들‘만’의 ‘집단 교육’과 국가의 인증을 통한 고용의 확보는 이루어진다 한들 현 시점에서 곧바로 젠더정치학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는 대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한국의 군대는 신자유주의가 진입되면서부터 개별화된 자기계발을 기반으로 하여 ‘인적 자본’을 향상 시키고 이에 대한 기획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병영문화개선에 대한 요구에 대응했다. 하지만 이는 일차적으로 병영문화개선을 요구했던 시민들의 군대개혁에 대한 요구를 변용시킨 것이었고, 두 번째로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목표 그 자체에 도달하지 못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구조적으로 징병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맥락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재 군대의 대응책은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상적으로 모든 남성들의 군복무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더라도 다른 한 편 이미 노동시장에서 함께 노동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에 대한 침해를 불러일으켜 젠더정치학의 문제를 만들어낼 소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군대개혁과 국민개병제는 다른 방향으로 정치경제적 요인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짜여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의 축적전략과 새로운 사회의 재생산을 위한 군대개혁은 상상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 정치경제적 축적체제와의 관련해서 살펴볼 때 군대개혁은 표류하고 있다. 자기계발하는 군대는 일부 ‘자기 시간’을 확보하여 학습에 몰입하는 남성들에게만 기회구조를 제공할 뿐 다른 모두에게는 ‘박탈’과 ‘탈락’을 만들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홍보하고 있다. 군이 내거는 슬로건 안에서 자기계발은 인권이나 안보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가장 손쉽게 ‘좋아진 군대’를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의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적 요구인 자기-테크놀로지를 실현함으로써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고 상정되는 자기계발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안보의 측면에서도 ‘첨단 테크놀로지 군대’로 재편하려는 상황에서 군대에 입대하는 남성들의 ‘인적자본’에 대한 관심은 자기계발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밖에 없었다.

군은 자기계발할 수 있는 군대를 홍보하며 군대가 개혁되었다는 홍보물을 유포한다. 국방부의 담론체계 안에서 자기계발하는 군대는 인권과 안보 모두에 호환되는 군대개혁의 징표가 되었다. 국방일보의 자기계발 관련 보도가 이를 보여준다.

병영문화개선은 ‘장병 자기계발을 위한’ 목적에서 완성된다[[192]](#footnote-191). 군대의 해석체계에서 인권의 요구는 병영문화개선의 요구로 치환된다. 또한 그 요구에 대해 부모들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병영문화개선”을 요구하는 병사의 '엄마'는 “자기계발이 가능하도록”이라는 의견을 피력한다.[[193]](#footnote-192) 격오지 부대에 도서를 공급하는 운동단체들은 병영문화개선을 위해 ‘문화와 학습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한다[[194]](#footnote-193).

또한 자기계발의 강조는 역으로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최전방 GOP 부대에서 근무하는 지휘관은 ‘악성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독서, 어학공부,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등”의 목표를 세워 달성한 인원에게 포상을 주고 그 결과로 51명의 한자자격 시험 합격과 워드, 토익, 텝스 시험을 보는 인원이 늘어남을 성과로 보고한다.[[195]](#footnote-194) 병사들은 스스로 자기계발의 경험을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순간으로 술회한다. 이는 비단 엘리트 남성의 경험만이 아니다. 해병대에서 실무에 지쳐 ‘실무형 전사’라는 자조적인 이름을 붙이던 어떤 병사는 자격증 관련 서적을 탐독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경제학 교수가 되는 상상을 하면서 군생활에 만족하노라고 고한다.[[196]](#footnote-195) 자기계발을 통해 이제 군은 “아들을 보내고 싶은 군대, 젊은이 스스로는 가고 싶은 군대”의 비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197]](#footnote-196) 병무청 블로그에는 “자기계발의 치열한 현장”으로 군대를 표현해 두었다[[198]](#footnote-197).

다른 한 편 자기계발은 안보의 목표에도 수렴된다. 복무 규율상 10시 이후는 취침시간이지만 육군 모 부대의 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의 일과시간 이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그 ‘틈새 시간’을 ‘자기계발’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99]](#footnote-198). 2010년 이후 ‘전투형 부대’를 역설하면서 안보 중심으로 재편된 병영에서 ‘외국어 동아리’ 활동 등의 자기계발은 ‘전투형 부대’의 기반으로 예찬된다[[200]](#footnote-199). 전투형 부대를 위해서도 자기계발은 칭송되어야 할 가치가 된다. 자기계발은 ‘전투형 부대’를 만들기 위한 병사들의 과업이 되었다. 또한 ‘모범 병사’인 엘리트 남성들은 내면화된 학습하는 주체로서 그 과업을 스스로 ‘인권’으로 인지한다.

자기계발하는 군대는 한 명의 남성 병사 개인의 차원에서 인권의 징표이며, 부대의 처원에서 인권의 최대 목표이다. 또한 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훌륭한 부대의 통합책이며, 동시에 부대에서 ‘악성 사고’를 예방함을 통하여 ‘전투형 부대’의 기반이 된다. 이미 언급한대로 실제 일선 부대에서의 자기계발 역시 군대가 만들어낸 ‘조건’ 덕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병사들의 학습 의지와 이를 만들어내는 개인적 조건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지만, ‘누가’ 자기계발의 주도적 행위자인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 된다. 또한 일선 부대에서 ‘큰 시험’ 등의 자기계발 성공은 특정한 조건의 병사들에 국한되며, 부대의 보도자료를 살펴볼 때 아주 특수한 ‘모범 사례들’일 따름이지만, 그 역시 ‘자기계발하는 군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 이미 ‘좋은 군생활’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자기계발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를 통하여 ‘좋은 군생활’로 등장하는 자기계발하는 군대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효과는 자명하다. 즉 사교육 시장과 특정 엘리트 남성들에게 간파된 ‘틈새 공간’이 열리고, 군대에서는 필기시험을 매개로 한 선발기제와 상위부대의 명문대생의 ‘영리함’(smartness)에 대한 관습적 판단을 매개로 한 선별 기제를 통하여 남성들을 분리함을 통하여 계급적 분할, 즉 ‘할당 효과’가 산출된다는 점이다. 2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징병제가 가지고 있는 군복무와 시민권이 교환된다는 민주공화국의 계약은 이 부분에서 일차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일차적으로 자기계발의 경제가 사회에서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처럼, 자기계발하는 군대 역시 다양한 군복무의 차이와 위계를 만들어내면서도 또한 없는 것처럼 간과하게 만들고 개인의 ‘노력’만을 드러낸다.

이러한 군대의 담론정치를 통해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효과는 바로 군대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와 ‘개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1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군대사회학의 문제는 바로 현 체제의 규범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 벌어지는 문제들을 모두 일탈적이고 병리적인 징후로 포착한다는 점이었다. 군사정권에서부터 만성적으로 지적되어온 군대문화의 병폐는 여전히 근본적으로 뿌리 뽑히지 않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잠복되어 있다. 병영문화개선은 정권교체와 그에 따른 정책방향의 변경을 통하여 제도화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201]](#footnote-200). 언제나 군내 폭력사건이나 군내 악습의 사건들은 군대가 가지고 있는 ‘비밀주의’적 속성 때문에 사건이 터진 후에만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군대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계발하는 군대’가 예속화된 자기계발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논리를 하나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됨으로써 앞서 언급했던 군대개혁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난해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자기계발이 인권의 지표임은 군대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문화(홍두승, 1996)에서도 통용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1990년대부터 진행된 군대개혁의 요구는 병영의 ‘민주화’였지만,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둔갑하는 와중에 ‘자기계발’이라는 ‘인권’에 대한 요구로 전환되고 입시경쟁과 다름없는 입대경쟁이 창출되고 있다. 1990년대 ‘신세대 병사’로 등장하여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던 경쟁에 내면화된 병사들은 다시금 입을 닫고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군생활에서도 홀로 자기시간을 확보하면서 ‘종신학습형’을 명받고 있다.

제5장 결론

한국전쟁 이후의 상황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웠던 하위계급의 남성들에게 군대는 당장의 먹거리와 향후의 일자리(기술교육)를 확보해주는 1)‘**가고 싶은 군대**’였고, 이후에는 엘리트 층 자제들로 구성된 ‘신의 아들’만 ‘빽’을 써서 피할 수 있는 2)‘**평등한 군대**’였다. 소수 특권층 자제들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남성들은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함께 수행해왔고 ‘끈끈한’ 연대를 만들어왔다. 그동안 군대는 한국에서 냉전과 분단이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징병제의 많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또한 많은 남성들에게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평등’적인 공간이었다. 학벌과 지역, 계층·계급과 상관없이 모든 남성들은 생활관(내무반)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었다. 1970년대의 군대에서의 집단 기술교육 시기에는 폭력적이었음에도 전사회적으로 군복무에 대한 얼마간의 ‘상식’이 통용될 수 있었다. 군복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한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는 남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3)모두가 군대에 가긴 가지만 다른 부대로 선발되고 다른 부서에서 다른 트랙으로 배치됨에 따라 계급적으로 상이한 경험을 하게 되고 시민권과 교류되는 제도적으로 **‘복무경험의 평등이 깨지는 군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2000년대 ‘민주 정부’,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병영문화개선과 군인적자원개발으로 대표되는 군대개혁은 기존의 접근보다 급진적이었고, 또한 병사들의 인권개선에 있어 호의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의 흐름 때문에 전반적인 인권 개선보다 자기계발의 맥락이 더 강조되게 되었고[[202]](#footnote-201), 장기적인 토론을 통한 시민사회와의 ‘공적 합의’를 통해 안착되지 못했다. 2005년의 ‘GP 총기난사 사건’에 따른 긴급한 결정에 의해 방향 지어졌을 따름이다. 일선에서도 국가의 정책방향이 결정된 이후 오롯이 ‘대작전’ 방식으로 상부에서 ‘지시’내려졌다(top-down). 게다가 시민사회의 상시적인 소통 경로의 부재(군경 감독관제의 좌초)와 군인의 인권에 대한 합의 부재(군인권법의 제정 실패)가 개혁의 표류를 예정하고 있었다. 애초 군대개혁이 시작될 수 있었던 요인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지만(bottom-up), 개혁과정에서 시민사회의 개입은 봉쇄되었다.

그 대신 군은 2000년대 군대개혁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계발하는 군생활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학습을 권하거나 혹은 지시내리는 ‘학습조직’으로서의 군대는 모든 남성들에게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낸다는 식으로 홍보되었다. 또한 자기계발하는 군대는 병영에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군대가 만들어졌음을 나타내는 징표로도 홍보되었다. 그 와중에 자기계발하는 군인은 이전의 호전적이면서도 책임감을 가지며 절제되어있는 무인의 모습이었던 ‘모범병사’를 대치하면서 새롭게 부각되었다.

하지만 자기계발의 성공을 외치는 남성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군의 홍보와 현실의 격차를 드러내준다. 모든 남성은 군대가 홍보하는 ‘학습 조직’에서 ‘학습’을 할 수 없다. 자기계발하는 군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입대 이전에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군생활’을 적극적으로 구상하기 위해서는 카투사, 의무소방, 통역병 등에서 요구하는 ‘선발’전형에 걸맞은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시험의 준비는 단순히 노력에 의해서 개척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형에 최적화된 해법을 파악하는 것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입대 학원’ 등의 보조가 필요할 수 있고, 이러한 입대 학원 등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도 주위의 네트워크에서 ‘알음알음’ 돌아다니는 정보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입대 학원의 고액의 학원비도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과정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만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입대 이후에 군생활에 있어서도 본인들의 학습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본이 필요하다. 부대에서 ‘영리함’을 가진 남성으로 입증될 만한 ‘명문대생’의 학벌을 가지고 있어야 공부할 수 있는 보직으로 발령이 나거나, 여유시간이 많은 부서로 배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특수한 군에 가더라도 지속적인 선임과 간부들과의 협상이 필요하다. 특히 간부들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자신의 ‘영리함’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식, 학벌 등이 필요하다. 입대 이후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척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본인들이 온전히 구상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엄마’의 조력 또한 필수적이다. 군대에 보낸 아들에 대해 ‘정보력’을 획득하고, 또한 끊임없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엄마'가 있어야 아들이 ‘성공적’인 군생활을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기계발하는 군인들은 입시경쟁으로 만들어진 몸을 군대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의 대상일 따름이다. 고립된 공간에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스펙’을 쌓고 있는 남성들은 공동체의 윤리를 익히거나 협력과 조정을 익히는 시간을 극소화시키고 있다. 1990년대 신세대 병사들처럼 하위문화를 만들어내거나, 군의 병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여지는 이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계발에 성공한 남성들은 자신들의 군대경험을 평범한 남성들로서 ‘전략적’으로 군생활을 계획함으로써 이뤄낸 것으로 설명하지만 이는 전혀 다른 계급적 배경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다. 여전히 절대 다수의 남성들에게 군대는 ‘학습조직’과는 거리가 멀며, 특히 이명박 정부의 ‘냉전적’ 기조가 재차 강조된 2010년 ‘천안함 사태’·‘연평도 포격’ 이후에는 인권침해가 빈발하게 벌어지는 공간일 따름이다.

군은 끊임없이 통합된 서사로 군인의 모습과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정예강군’의 모습으로 한 편에서 남성들을 엮어내고,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최근에는 다른 한 편에서 ‘학습 공간’으로서의 군대와 자기계발하는 군인의 모습으로 남성들을 엮어내려 한다. 하지만 자기계발하는 군인의 모습이 드러내는 것은 소수 엘리트 남성들과 다수의 남성들의 군대 경험의 차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양극화의 심화**와, 소수 엘리트 남성들이 사회적 자본과 가족의 지원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계급재생산**의 모습이다. 소수 엘리트 남성들에 의해 ‘선택된’ 군대는 ‘무료 취업 준비학교’이고 군생활은 ‘스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맥까지 만들어주는 ‘소셜 미팅’의 시간이다.[[203]](#footnote-202) 다수 남성들에게 군대는 ‘위험한’ 공간일 따름이며 군생활은 ‘죽어있는 시간’이다.

국민개병제(징병제)가 약속한 모든 성인 남성들의 ‘군복무를 통한 시민권의 형성’은 현시점에서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게 변했다. 징병제가 약속하는 것은 한 국가의 시민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지위였다. 그러나 군복무가 부모의 자본과 군인 개인들의 자본에 의해 ‘구별짓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상황은 국가적으로도 ‘시민권’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경험의 불평등과 복무 결과의 불평등은 애초의 징병제의 합의에 균열을 야기한다. 또한 ‘다른 군생활’로 의미되어 있는 현행 군 선발 체계와 부대 안에서의 인력 배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204]](#footnote-203).

하지만 이러한 현재 군대개혁이 봉착한 딜레마는 어떠한 특정 주체의 책임으로 환원할 수 없다. 급격하게 주어지는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상황과 군대의 낙후성에 대한 민주화된 사회에서의 요구 사이에서 주체들과 국가 모두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기준을 통하여 이러한 구조를 창출해낸 것이다[[205]](#footnote-204). 그리고 그 조건에 맞게 개별적인 ‘해석’과 ‘전략’에 의해 활동한 결과가 군대의 문제를 심화시킨 것이다. 신자유주의 사회의 영향은 이러한 문제 역시 ‘구조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채 ‘세대’의 문제나 ‘개인’들의 책임으로 돌리기 시작한다.[[206]](#footnote-205)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군대에 대해서 함께 공론장에서 합의를 만들어온 경험의 부재에서 시작된 것이다. 2005년 국면에서 벌어졌던 병영문화개선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는 군 상층부가 가지고 있던 개혁의 의제로 빨려들었고,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제도화되지 않았기에 군이 제기하는 개혁 이상의 것들을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없었다.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개혁의 ‘속도전’이 상황을 예측불가능하며 통제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이미 실질적으로 합의가 깨어져 버린 국민개병제하의 군대에서 발생하는 지금의 문제에 대한 개선은 ‘무엇’보다는 ‘어떻게’와 ‘누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100일 대작전’ 식으로 급작하게 상부에 의해서 설정된 몇 가지의 목표를 단기적으로 그리고 하향식으로 진행되는 군대개혁이나 병영문화개선이 아닌, 사회적으로 차분한 논의의 과정을 통하여 장기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논의가 가능한 조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지를 검토할 수 있다.

먼저 현행의 특수병에 대한 선발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살이 조금 넘는 남성들에 대한 입대 선발제도 자체는 일차적으로 군에서 남성들을 ‘육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양성된’ 남성들을 뽑아서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선발제도가 소수의 남성들에게 그 특징이 간파되어 활용되는 것은 평등한 징병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이다. 일단 모두 입대일자만 선택하여 입영하고, 차후에 입영하는 남성들의 의사와 부대의 필요 모두를 조율하고 부대 내부의 실무 교육을 통하여 입증되는 적성에 따라 특기와 자대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군대에서의 ‘학습’이라는 것의 외연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군대에서의 학습은 비단 전투를 위한 훈련 및 학습과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스펙’의 학습만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한, 즉 ‘군복 입은 시민’이라는 표현 안에서 ‘시민’으로서의 감각을 길러내는 학습으로 확장되어 이해되어야 한다[[207]](#footnote-206). 군대가 병사들의 새로운 ‘공적 감각’과 ‘시민성’의 교육·훈련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세 번째로 군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통로를 만들어내야 한다. 먼저 앞서 언급했던 군경감독관제도를 재입법해야 한다. 사적인 개입이 아닌 시민사회가 상시적으로 병영의 문제들에 의해서 개입할 수 있는 ‘공적 통로’가 필요하다. 구타, 악습, 각종 병영에서의 병폐에 대한 임기응변식의 대응이 아니라 소통을 통하여 각종 병영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해법을 찾는 경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사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장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현역 병사들은 현행 군인사법에 의해서 어떠한 목소리도 ‘집단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 요식적인 간부들과의 대화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전달될 수 있는 통로이며, 개인적인 통화나 인터넷을 통한 목소리를 제외하면 발화할 수 없고 그 내용 역시 제한되어 있다. 군은 자기계발을 위해서 ‘학습 동아리’를 권하지만 현역 병사들에게 필요한 모임은 자신들의 고충과 문제를 상부에 제기하고 협의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경우 ‘군인 노동조합’의 형태로 확보되어 있는 병사들의 권리이기도 하다[[208]](#footnote-207). 병사들은 모든 문제를 통해 드러나는 ‘대상’으로 간주될 뿐,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풀 수 ‘제도’나 ‘조직’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병영의 문제의 발생에서 시발점은 일선 부대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병사들의 목소리를 간부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여전히 군대가 병사들을 훈육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것을 드러내며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사적 주체들의 ‘전략’이 아닌 병사들 스스로의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에 대한 자율적 권리와 책임을 통하여 ‘민주적 병영’을 만들고 또한 각종 사고를 막아낼 수 있는 자정(自正)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대감을 만들고 사회와의 단절감을 없애고 시민적 주체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논문 및 단행본**

강미연·김현미·김고연주 외(2010), 『친밀한 적』, 이후

강준만(2009), 『입시전쟁 잔혹사』, 인물과사상사

곽중현(2009), “청년백수와 자기계발: 통치양식에 대한 청년백수들의 실천적 대응전략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교육공동체벗 편집부(2011), 『오늘의 교육』, 통권 2호(5, 6월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8), 『돌아오지 않는 내 아들』, 삼인

권김현영·나영정·루인·엄기호·정희진·한채윤(2011),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모음

권오분(2001), “군대 경험의 의미화 과정을 통해서 본 군사주의 성별정치학: 남녀공학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논문

권인숙(2000), “우리 삶 속의 군사주의”, 『여성과 평화』 창간호, 133-161

―――(2005a),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b),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병역의무: 카투사의 남성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1권 2호, 223-253

―――(2008), “징병제의 여성참여: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연구』, 2008년 1호

―――(2009), “군대 섹슈얼리티 분석”, 『경제와 사회』, 제82호, 38-65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723-747

김대현(2001),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정치적 지형”, 『한국교육』, 제2권(통권 28호), 277-299

김동춘(2000), 『전쟁과 사회』, 돌베개

김두식(2002), 『칼을 쳐서 보습을』, 뉴스앤조이

―――(2007), 『평화의 얼굴』, 교양인

김병조(2011), “한국의 자본축적 단계와 노동 이동”,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8권 1호(통권 21호), 64-97

김상봉(2004), 『학벌사회』, 한길사

김안정애(2005), “글로발리제이션 하의 군사주의와 여성안보”, 『젠더와 사회』4호, 45-81

김영걸(2003), “지식경영의 이해”, 정보과학회지 제21권 10호, 79-85

김용학(2003), 『사회구조와 행위』, 나남

김원(2011),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이매진

김이훈(2005), 『군대에서 미래설계하기』, 한솜미디어

김정필(2010), 『군대생활매뉴얼』, 미래의창

김종엽(2009), “교육에서의 87년 체제”, 『경제와 사회』, 2009년 겨울호(통권 제84호), 40-69

김종하(2008), 『미래전, 국방개혁 그리고 획득전략』, 북코리아

김주찬(2003), “한국 청년세대의 군 인식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방송정보학과 석사논문

김현영(2001), “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논문

나오미 클라인(2008), 『쇼크 독트린』, 김소희 옮김, 살림Biz

나임윤경(2007), “남녀공학대학교의 군사문화와 여학생 '시민권'구성과정-음악대학 성악과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3권 1호, 69-102

레나토 로잘도(2000), 『문화와 진리』, 권숙인 옮김, 아카넷

로라 네이더(2006), “인류학자여, 이제는 위를 보자!”, 문화인류학회 편,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일조각

루이 알튀세르(2007), 『재생산에 대하여』, 김웅권 옮김, 동문선

리영희(1988), 『반핵』, 창비

리처드 세넷(2002),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조용 옮김, 문예출판사

――――― (2006), 『뉴캐피탈리즘』, 유병선 옮김, 위즈덤하우스

문승숙(2007), 『군사주의에 빠진 근대』, 이현정 옮김, 또하나의문화

미셸 푸코(2003), 『감시와 처벌』, 이규현 옮김, 나남

민진, 문성암, 신용도, 김석용(2005), 『국방개혁과 국방관리체제의 혁신』,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박노자(2009), 『씩씩한 남자 만들기』, 푸른역사

박상섭(1996), 『근대국가와 전쟁』, 나남

박소진(2009),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경제와 사회』, 제 84호, 12-39

박수왕·정욱진·최재민(2010),『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군대에서 배웠다』, 다산라이프

박양근(2006), 『똑똑한 놈은 웃으면서 군대 간다』, 한언

박찬영(2011), 『밀리던트 스타일』, 하늘아래

박혜경(2008), “신자유주의적 주부주체의 담론적 구성과 한국 중산층가족의 성격:미디어 담론분석 및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박사학위 논문

밥 제솝(2000),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김문귀·유범상 옮김, 한울

백종천·온만금·김영호(1994), 『한국의 군대와 사회』, 나남

베네딕트 앤더슨(2003), 『상상의 공동체』, 윤형숙 옮김, 나남

사라 러딕(2002), 『모성적 사유』, 이혜정 옮김, 철학과현실사

사라 밀스(2008), 『현재의 역사가 미셸 푸코』, 임경규 옮김, 앨피

서동진(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서재정(2009), 『한미동맹은 영구화하는가』, 한울

서울대BK21 공익인권법센터(2002), 『양심적 병역 거부』, 사람생각

손자희(2011), “여대 ROTC와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 주체”, 『여/성이론』, 제24호, 40-60

수잔 스트레인지(2000), 『매드 머니』, 신근수 옮김, 푸른길

스튜어트 홀(2007), 『대처리즘의 문화 정치』, 임영호 옮김, 한나래

신명호(2011), 『왜 잘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나』, 한울

신병식(2006), “박정희시대의 일상생활과 군사주의: 징병제와 ‘신성한 국방의 의무’ 담론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 통권 제72호, 148-172

심숀 비클러·조나단 닛잔(2004), 『권력 자본론』, 홍기빈 옮김, 삼인

안토니오 네그리(1996), 『지배와 사보타지』, 윤수종 옮김, 새길

알프레두 사드-필류·데버러 존스틴 편, 『네오리버럴리즘』, 김덕민 옮김, 그린비

양현아(200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남성만의’ 병역의무제도”, 『여성연구』, 제75권 2호, 135-172

양현아 편(2000), 『군대와 성평등』, 경인문화사

앤서니 기든스(1991), 『민족국가와 폭력』, 진덕규 옮김, 삼지사

―――――― (2001), 『제3의 길』, 한상진 옮김, 생각의나무

에릭 홉스봄·지그문트 바우만 외(2000), 『노동의 세기』, 임지현 엮음, 삼인

오미영(2001), “군사화에 의한 젠더 위계체제 강화”,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논문

요시다 유타카(2005), 『일본의 군대』, 최혜주 옮김, 논형

우석훈(2008), 『괴물의 탄생』, 개마고원

―――(2009),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레디앙

유근환 · 강진식(2009), 『조직관리론 – 부대관리 실무』, 도서출판 영민

유혜정(2006), “남성 섹슈얼리티 사회화 기제로서 군대 성문화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 석사논문

이길현(2010), “우리는 디씨ㅡ사이버 공간에서의 증여, 전쟁, 권력”,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논문

이남석(200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그린비

이동흔(2002), “군대문화의 남성중심성과 양성평등교육”,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이병환(200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평가”, 『한국교육』 2권(통권 29호), 33-55

이상목(2003), “병역자원 수급전망과 복무기간 조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 『규제연구』, 제12권 2호

이성찬(1998), 『너희가 군대를 아느냐?』1 · 2권 , 들녘

이아람찬,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헤게모니적 남성성",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19호, 2010년, 2010.6, 37-50

임지현·김진호·권혁범(2000),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자크 랑시에르(2008),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옮김, 길

전상진(2008), “자기계발의 사회학: 대체 우리는 자기계발 이회에 어떤 대안을 권유할 수 있는가?”, 『문화와 사회』 제5권, 103-140

전희경(2008), 『오빠는 필요없다』, 이매진

정욱식(2004), “한국 평화운동의 성과와 전망, 그리고 과제”, 한국사회학회 2004년도 특별 심포지움, 221-231

정진성(2001),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재고”, 『한국여성학』제17권 1호, 5-33

제니퍼 메이슨(2010), 『질적 연구방법론』, 김두섭 옮김, 나남

조르조 아감벤(2008), 『호모 사케르』, 박진우 옮김, 새물결

조은(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족 정치의 지형”, 『한국여성학』 제24권 2호, 5-37

조지 카치아피카스(2009), 『신좌파의 상상력』, 이재원 옮김, 난장

조한혜정(2009), “교육과 초경쟁 사회의 재생산”, 『교육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조망』, 2009년 가을 한국교육인류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2010), “새천년 10년, 전망을 듣다: 청소년-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 교수”, 『여성신문』, 2010년 2월 5일자

조효제(2007),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조희연(2010), 『동원된 근대화』, 후마니타스

조희연 편(1995), 『한국사회운동사』, 한울

지그문트 바우만(2008), 『쓰레기가 되는 삶들』, 정일준 옮김, 새물결

――――――― (2010), 『모두스 비벤디』, 한상석 옮김, 후마니타스

지만원(1991), 『한국군 어디로 가야 하나』, 김영사

지주형(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채창균(2005), “평준화와 사교육비”,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521-534

채창균 · 백성준 편(2006), 『국가인적자원개발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칼 폴라니(2009), 『거대한 전환』, 홍기빈 옮김, 도서출판 길

케이트 크리언(2004), 『그람시·문화·인류학』, 김우영 옮김, 도서출판 길

켄 실버스타인(2007), 『전쟁을 팝니다』, 정인환 옮김, 이후

콜린 고든 편(1991),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홍성민 옮김, 나남

폴 윌리스(2004), 『학교와 계급재생산』, 김찬호 · 김영훈 옮김, 이매진

표명렬(2003),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동아시아

피에르 부르디외(2004), 『맞불』, 현택수 옮김, 동문선

――――――― (2005),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권, 최종철 옮김, 새물결

피터 W. 싱어(2005), 『전쟁대행주식회사』, 유강은 옮김, 지식의풍경

하승우(2008),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 뜨인돌

함택영 · 박영준 편(2010),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 사회평론

홍두승(1996), 『한국 군대의 사회학』, 나남

홍성태(2005), "군사문제의 연구 동향", 『경제와 사회』, 2005년 봄호(통권 제65호), 96-120

황현(2009), 『악랄 가츠의 군대이야기』, 바오밥

Connell, Raewyn W.(1995), *Masculinitie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nloe, Cynthia(1983), *Does khaki become you?: the Militarism of women’s lives,* Boston: South End Press.

Foucault, Michel(2008), *The Birth of Biopolitics*, translated by Graham Burchell, New York: Palgrave

Gramsci, Antonio(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edited by Quintin Hoare and Geoffrey Nowell Smith. London: Lawrence & Wishart.

Lemke, Thomas(2001), “The Birth of Bio-Politics”, *Economy and Society*, Vol. 30 No. 2: 190-207

Song, Je-sook(2006), “‘Family Breakdown’ and Invisible Homeless Women.”, *Positions: east asia cultures critique*. Spring issue.

**◎ 정부 자료 및 기타 통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국가 인적자원개발 평가』(과제번호 II-1-5)

국가인권위원회 편(2007), 『외국 군 인사 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실태조사 : 독일의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 국방부(2008), 『국군 인권교육 교재』

국방부(2002), 『국정감사 요구자료』

국정홍보처(2008),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5(통일·외교·안보 편)』

권영길 의원실(2009), 『대한민국 교육 불평등 지도』

대한민국 정부(2006), 『국가인적자원개발 백서』

심대평 의원실(2011), 『2011 국정감사 – 국방부, 보도자료 2편』

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정책포럼』

**◎ 도움 받은 웹사이트(블로그, 관련 사이트)**

1. 군 관련 사이트

국방부: <http://www.mnd.mil.kr/>

병무청: <http://www.mma.go.kr/>

육군: <http://www.army.mil.kr/>

해군: <http://www.navy.mil.kr/>

공군: <http://www.airforce.mil.kr/>

군인권센터: <http://www.mhrk.org/>

EUROMIL(European Organisation of Military Associations):

<http://www.euromil.org/>

2. 카페 및 블로그

가자! 통역병(카페): <http://cafe.naver.com/gointerpreter>

고무신 카페(곰신모임)(카페): <http://cafe.naver.com/komusincafe>

군대의 규율권력(블로그): <http://blog.naver.com/biopolitics>

군인 아들 부모님 카페(카페): <http://cafe.naver.com/army58cafe>

김승국 선생님 통역병/통영장교 준비반(카페): <http://cafe.daum.net/armyinterpreter> ; <http://cafe.naver.com/armyinterpreter>

부모와 곰신을 위한 공군가족(카페): <http://cafe.daum.net/SkyEagle>

예비 공군사관후보생들 다 모여라(카페): <http://cafe.daum.net/preofficer>

의무소방대(카페): <http://cafe.daum.net/FIREMAN>

통역병 & 통역장교(카페): <http://cafe.naver.com/rokainterpreter>

학사장교(육군, 해군, 공군, 여군)(카페): <http://cafe.daum.net/haksa36>

<부록 1> 심층 면접 질문

구조화된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언제 군대에 입대했어요? 제대는?
2. 군대 입대하기 전에 본인이 갔던 군대에 대한 정보가 있는 편이었나요?
3. 군대 입대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면 누구한테 들었나요?
4. 입대와 관련된 커뮤니티에 접속해 본 적이 있나요? 거기서 정보를 얻은 적은 있나요?
5. 군대 입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었나요?
6. 본인이 갔던 부대는 경쟁률이 얼마나 되었나요?
7. 군대를 가기 위해 학원 수강을 해보신적이 있나요?
8. 휴가는 얼마나 자주 나왔나요? 처음 휴가는 언제였지요?
9. 부대에 있을 때 자유시간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나요?
10. 군생활 동안 가장 괴로웠던 일은 어떤 건가요?
11. 군생활 중 구타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나요?
12. 군생활 중 언제부터 책을 볼 수 있었어요? 공부는 언제부터 할 수 있었어요?
13. 선임들하고는 관계가 어떤 편이었나요?
14. 간부들과의 관계는 어땠나요?(의무소방의 경우 직원)
15. 군대에서 연애는 보통 일말상초(일병 말 상병 초)에 헤어진다는 데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 본인 이야기도 해줄 수 있나요?
16. 군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7. 본인은 남자답나요?
18. 군가산점제도는 도입되어야 하나요?
19. 양성 징병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록 2> 육군 표준 일과표(유근환 · 강진식, 2009에서 재인용)

|  |  |  |  |  |
| --- | --- | --- | --- | --- |
| 하계(3.1 ~ 10.31) | | 동계(11.1 ~ 익년 2.28) | | 비고 |
| 시간 | 내용 | 시간 | 내용 |
| 06:00 | 총기상 | 06:30 | 총기상 | 통제 |
| 06:00-06:30 | 인원 점검, 체조 | 06:30-06:50 | 인원 점검, 체조 | 자율 |
| 06:20-07:00 | 청소/세면 | 06:50-07:30 | 청소/세면 | 자율 |
| 07:00-08:00 | 조식/과업 준비 | 07:30-08:30 | 조식/과업 준비 | 자율 |
| 08:00-09:00 | 지휘관 시간 | 08:30-09:30 | 지휘관 시간 | 자율 |
| 09:00-12:00 | 오전 과업 | 09:30-12:00 | 오전 과업 | 통제 |
| 12:00-13:00 | 중식 | 12:00-13:00 | 중식 | 자율 |
| 13:00-16:00 | 오후 과업 | 13:00-16:00 | 오후 과업 | 통제 |
| 16:00-17:00 | 일일 체력 단련 | 16:00-17:00 | 일일 체력 단련 | 자율 |
| 17:00-17:30 | 목욕/세면 | 17:00-17:30 | 세면 | 자율 |
| 17:30-18:30 | 석식 | 17:30-18:30 | 석식 | 자율 |
| 18:30-20:30 | 자유시간(취미 활동/특별 활동) | 18:30-20:30 | 자유시간(취미 활동/특별 활동) | 자율 |
| 20:30-21:00 | 청소/점호 준비 | 20:30-21:00 | 청소/점호 준비 | 자율 |
| 21:00-22:00 | 점호 | 21:00-22:00 | 점호 | 통제 |
| 22:00 | 소등 | 22:00 | 소등 | 통제 |
| ◎ 오전 / 오후 과업은 시작 통제, 종료는 부대별 환경 적용 자율성 부여  ◎ 개인 자유 시간 최대 보장 / 열린 점호 적극 시행  ※ 휴일 과업: 토요일/공휴일 전일 21시 소등  휴일 1시간 연장 취침(하계 07:00, 동계 07:30 기상)  평일 과업 시간을 자유 시간으로 운용 | | | | |

출처: 유근환·강진식(2009:25)에서 재인용

<부록 3> 군대 자기계발 블로그(<http://blog.naver.com/speralist>)



<부록 4> 아들의 편지와 '엄마'의 답장[[209]](#footnote-208)

**1. 이등병 때**

※ 아들의 편지

부모님 전상서

북풍한설 몰아치는 겨울날 불초소생 문안 여쭙습니다.

저는 항상 배불리 먹고 잘 보살펴주는 고참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대한의 씩씩한 남아가 되어

돌아갈 때까지 잘 지내십시오.

※ 엄마의 답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군대 가고 소포로 온 네 사복을 보고 밤새 울었다.

추운 날씨에 우리 막둥이 감기나 안 걸리고 생활하는지

이 엄마는 항상 걱정이다.

집안은 모두 편안하니 걱정하지 말고 씩씩하게 군생활 하기 바라마.

사랑한다 아들아!

**2. 일병 때**

※ 아들의 편지

욜라 빡센 훈련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제 무좀 걸린 발이 도져서 걱정 입니다.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았더니 배탈약을 줍니다.

용돈이 다 떨어졌는데 보내주지 않으면

옆 관물대를 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 엄마의 답장

아들에게.

휴가 나와서 네가 쓴 용돈 때문에 한 달 가계부가 정리가 안 된다.

그래도 네가 잘 먹고 푹 쉬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기분은 나쁘지 않구나.

다음번 휴가 나올 땐 미리 알려주기 바란다.

돈을 모아놔야 하거든.

그리고 군복 맞추는 값은 입금시켰으니 좋은 걸로 장만해라.

(국방비가 모자라나 보다. 아빠 군대 때는 그냥 줬다던데...~)

**3. 상병 때**

※ 아들의 편지

왜 면회를 안오는 거야!

어제 김일병 엄마는 먹을 거 잔뜩 사들고 와서

내무실에 풀고 외박 나가서는 맛있는 회도 먹었다더라.

엄마는 어떤 땐 내 친엄마가 아닌 것 같애 투덜투덜..~

※ 엄마의 답장

아들아~ 수신자 부담 전화는 이제 그만해라~

어째서 너는 군생활을 하면서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무슨 놈의 휴가는 그렇게 자주 나오냐.

누굴 닮아 저 모양이냐고 어제는 아빠와 둘이 피터지게 싸웠다.

내가 이겨서 너는 아빠를 닮은 것으로 결정났다.

**4. 병장 때**

※ 아들의 편지

어떻게 군생활을 지금까지 했나 용해.

보내준 무쓰가 다 떨어졌으니 하나 더 보내줘.

헤어스타일이 영 자세가 안 잡혀.

어제는 내가 몰던 탱크가 뒤집어져서 고장났는데 내가 고쳐야 된대.

엄마 100만원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엄마의 답장

너 보직이 P.X병이란 진실을 이제 알아냈다.

그동안 탱크 고치는 데 가져간 돈 좋은 말 할때 반납하기 바란다.

가정형편이 어려우니 말뚝 박아서 생활해 주면 좋겠다.

니가 쓰던 방은 어제부터 옷방으로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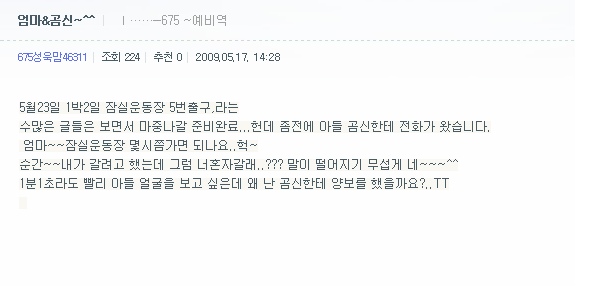
벌써 20개월이 다 지난걸 보니 착잡하기 그지없다.

얼른 전역하여 사회에서 자리 잡아서 열심히 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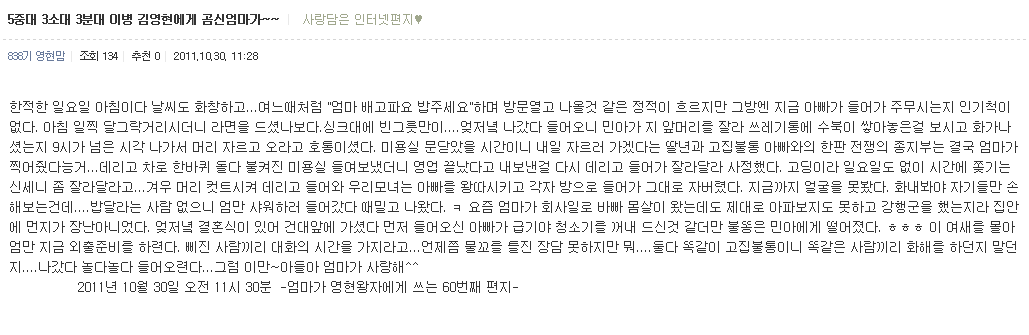
(그래도 이 애미는 아들을 사랑한다~!)

<부록 5> 엄마의 커뮤니티 게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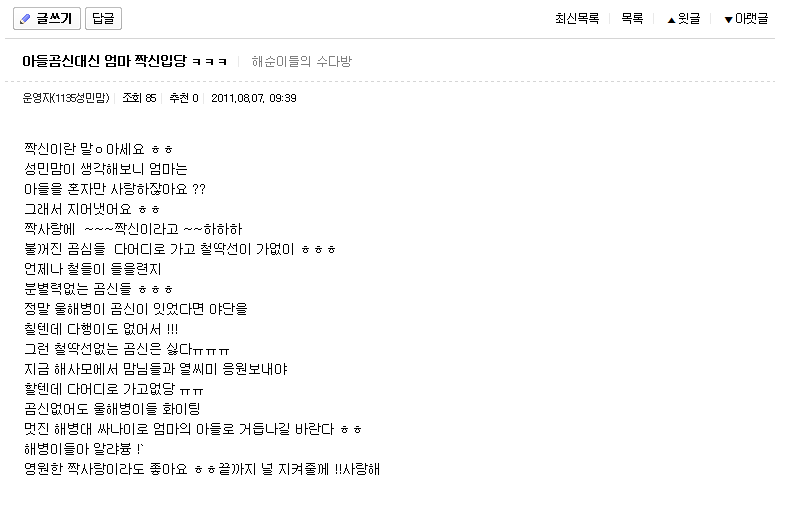
<부록 5-1> 곰신(애인)과 경합하는 엄마 유형(공군 가족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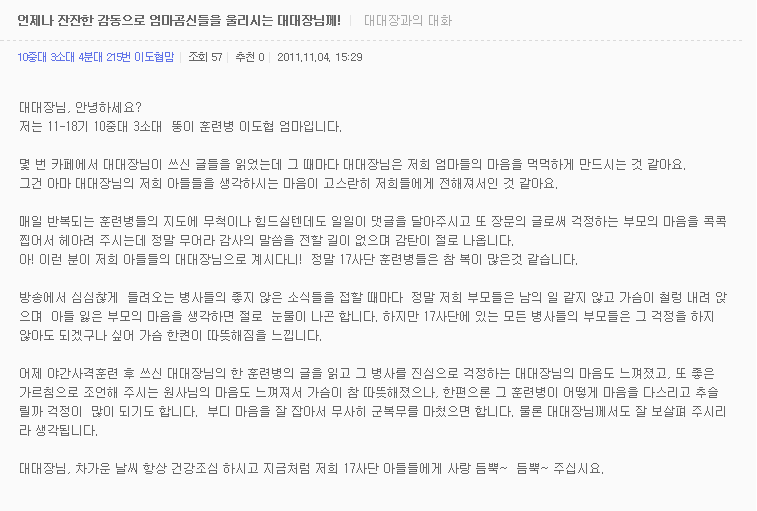
<부록 5-2> 매일 편지를 쓰면서 일상을 토로하는 엄마[[210]](#footnote-209)



<부록 5-3> ‘곰신’ 대신 역할로서의 '엄마'



<부록 5-4> 대대장의 편지에 감동한 '엄마'



Abstract

**Military reform in 2000s and relation between neo-liberal self-help and class reproduction through doing military service.**

Yang, Seung-hoon

Graduate Program in Culture and Gender Studies

Major in Cultural Studies

Yonsei University

This thesis mainly discusses about ‘military reform’ in 2000s and relation between neo-liberal self-help and class reproduction through doing military service. It mainly discusses about the military experience of young men(under 30) who did military services in 2000s. They show the discrepancy of experience of between upper-class men and middle-low class men.

The 2000s were made far-reaching military reforms by ‘Democratic governments’, expecially President Roh. The reforms were aimed at two things. The first was to improve the barracks culture. The second was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military. They integrated into ‘making self-learning soldier’.

A few elite men know it exactly and they make full used of the strategy for ‘studying’ for ‘spec’(the certification and skill accepted in labour market). They prepare for passing the screening test of ‘special military’. Some of them attend the academy for the screening test. They study a lot in doing their military service because of the ‘special military’ and ‘their special aptitude’. And their officers encourage their studying because the results of elite men improve the assessment of their unit. Because military reforms in 2000s emphasize the ‘self-helping soldier’. And the mothers of elite men is ready to help their ‘sons’.

Still, most soldier cannot study like the elite men. But the military promotes the experience of the elite men because they want to show ‘better barrack.’ A lot of thing that has to be reform omit, for example, human rights of soldiers and basic rights of soldiers. Still, the barrack is dangerous place for a lot of men and the experience of a few elite men shows the military experiences of elite men is very different from most men. The ‘self-helping’ experience of doing military service makes the ‘class reproduction’ because most men cannot do like that.

Korean military has emphasized the ‘equality’ because of the social consensus of conscription. In 2000s, every Korean man still has to do military service, their ‘results’ is not equal. ‘Equa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 of conscription system. But in neo-liberal stages, the ‘equality’ has been destroyed. And the reason why people had demanded the military reform was vanishing in neo-liberal stage.

------------------------------------------------------------

Key words: Neo-liberalism, military reform, Human Resource Development, Barrack Cultural Improvement, class reproduction

1. 이 논문에서 군인은 국방부를 포함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의 군무원을 제외한 장교, 부사관, 병사로 정의한다. [↑](#footnote-ref-0)
2. 2010년 7월 24일.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다고 좋아하죠, 그죠? 뭐 자기가 군대갔다왔으니까 뭐 해달라고 만날 여자한테 떼쓰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야죠. 군대 가서 뭐 배웁니까? 죽이는 거 배워오죠. 여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낳으면 걔네들은 죽이는 거 배우잖아요. 그럼 뭘 잘했다는 거죠, 도대체가? 뭘 지키겠다는 거죠? 죽이는 거 배워오면서. 걔네 처음부터 그거 안 배웠으면 세상은 평화로워요.”라고 장희민이라는 EBS 언어 영역 강사가 강의하는 도중에 이야기했다는 동영상과 스샷(캡처화면)이 돌기 시작했다. 그 후 이 강사는 EBS 강의에서 퇴출 당하고, EBS 사장은 사과문을 올렸다. [↑](#footnote-ref-1)
3. 매일경제(2011년 5월 19일), ““군대보내겠나”…현역병 또 사망” [↑](#footnote-ref-2)
4. 뉴스한국(2011년 5월 19일), “잇단 軍 장병 사망…훈련병 사망 사흘 만에 또” [↑](#footnote-ref-3)
5. 경향신문(2011년 6월 23일), “GOP 이병 총기 자살… 가혹행위 여부 조사” [↑](#footnote-ref-4)
6. 한국경제(2011년 6월 16일), “현빈 복무 중인 백령도 해병대, 총기사고로 병사 1명 숨져” [↑](#footnote-ref-5)
7. 조선일보(2011년 7월 5일), “강화도 총기 난사… 사망 4명에 부상 2명, 명단 확인” [↑](#footnote-ref-6)
8. 한국일보(2011년 8월 11일), “해병대 2사단 설상가상… 소위 자살” [↑](#footnote-ref-7)
9. 양승훈(2011년 2월 2일), “군과 경찰에 ‘사회적 통제’ 필요하다”, 레디앙 [↑](#footnote-ref-8)
10. 최근 군대 내에 우울증 환자가 속출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군 당국은 ‘항우울증제’를 다량 사용하는 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 우울증을 유발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은 요원하고 병증에 대한 치료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서울신문(2011년 8월 26일), “군장병에 항우울제 다량 사용”). [↑](#footnote-ref-9)
11. 조선일보(2011년 5월 13일), “軍 가산점제 여론조사결과 발표 연기”; 경향신문(2011년 5월 13일), “군필자 가산점…“준다” “안된다” 국방부·여성부 다시 충돌” [↑](#footnote-ref-10)
12. 이 연구에서 ‘엘리트 남성’이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에서 ‘명문대생’으로 알려져 있는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대학과 몇 개의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이들, 그리고 해외의 유수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이들을 언급할 때 사용한다. [↑](#footnote-ref-11)
13. 물론 이러한 측면이 젠더 정치학 내부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젠더 위계를 역전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남성의 내부 역학에서 위계를 구분하는 헤게모니의 ‘내용’이 변한 것이다. [↑](#footnote-ref-12)
14. 여기서 실천이라는 개념은 부르디외(2005)의 개념을 따른다. 부르디외는 실천을 ‘사회적 행위주체’의 적극적 관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오히려 ‘관습적 행동’, 즉 계급적 아비투스에 의해 제약되는 행동을 실천으로 규정한다(부르디외 2005: 12). 따라서 이 논문에서의 실천은 구조에 대한 행위주체의 ‘결단’에 따르는 ‘전복적 실천’을 포함하는 사르트르식의 실천을 의미하지 않는다. [↑](#footnote-ref-13)
15. 대표적인 사례로 김주찬(2003). 또한 이러한 문제는 실제 정부 보고서에서 군대의 문제에 접근할 때에도 똑같이 발생한다. 병영문화를 다룬 연구들은 대체로 리더십 이론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준으로 논의를 진행하거나, 장병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통계분석을 하는 것으로 분석을 마친다(국방대학교 리더십개발원 편, 2006; 김창주 외, 2008). [↑](#footnote-ref-14)
16. 이 지점에서 기능주의 일반과 구조-기능주의를 구분하는 시도들도 있다. 기능주의는 그 자체의 환류(feedback)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구조의 변동을 내재하고 있으나, 구조주의와 결합된 기능주의적 해석이 기능주의에 대한 오독을 낳는다는 것이다(김용학, 1996: 53). [↑](#footnote-ref-15)
17. 이에 대해 온만금은 갈등론과 통합론의 차이를 언급하며 갈등론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경험적으로 실제 군부대에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하위문화들이 지속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군대문화를 조형하고 있기 때문이다(온만금, 2006: 178). 하지만 그럼에도 온만금의 분석은 통합론의 관점으로 일관되게 진행된다. [↑](#footnote-ref-16)
18. 군사주의는 인로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집단적 폭력을 가능케 하는 전사로서의 남자다움, 그리고 그런 남자다움을 보조하는 여자다움의 사회적 형성과 함께 이런 집단의 유지보전을 위한 훈련과 단일한 위계질서, 역할 분업 등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 신념적 장치들을 포함한 개념이다.”(Enloe, 1983). [↑](#footnote-ref-17)
19. 하지만 이러한 인로의 맥락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인로가 언급하는 것은 ‘전시(戰時)’에 관한 이야기이고 60년 동안 교전으로서의 전투가 벌어지지 않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이러한 견해는 곧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footnote-ref-18)
20. 이 논문의 출발은 2009년 제기되었던 한 남성의 헌법소원청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청구인은,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이 군대에 가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여성도 수행할 수 있는 병역의무의 방안이 분명히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여성이 자원하여 현역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방법도 고려하지 않아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병역의 의무)를 면제한 것은 헌법상의 의무주체를 자의적으로 축소하여 법률로 규정한 것이라는 것이다'(양현아 편, 2009: 80). [↑](#footnote-ref-19)
21. 이러한 논의에서 도출되는 여성 징병논의는 일견 전통적인 여성주의자들의 입장이 가지고 있는 양면의 충돌로 보인다. 즉 사라 러딕의 『모성적 사유』(2002)로 대표되는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관점과, 양성평등이라는 여성주의의 노동에 대한 관점의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를 놓고 보자면 양현아의 주장은 후자의 관점을 채택하면서 전자의 관점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footnote-ref-20)
22. 이러한 논쟁 구도는 좀 더 확장할 수도 있다. 권인숙은 다음과 같이 그 구도를 보여준다. “첫째는 직접적 참여이다. 여성징병제 혹은 사회복무제 등의 제도 변화를 통해서 현 징병제도에 참여하는 것이다. 둘째는 현 징병제를 인정하지 않고 모병제 등 대안적 제도의 도입에 주력하는 것이다. 셋째는 군대를 반대하고 반군사주의적 평화운동에 여성의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다”(권인숙, 2009: 121). [↑](#footnote-ref-21)
23. 이미 그 점에 대해서 양현아(2009: 80)는 ‘전투’에서의 여성배제와 ‘징병’에서의 여성배제를 구분하고 있다. [↑](#footnote-ref-22)
24.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는 미궁에 빠질 수 있다. 사회복무제 혹은 ‘돌봄 공익’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확산되고 그 가치가 확산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작동하는 장은 ‘국민 국가’의 장이 될 것이고, 이를 최종심급(!)에서 결정짓는 행위자는 국가가 된다. 결국 문제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된다. 즉 국가를 어떻게 사회가 민주적으로 조절하거나 통제할 건지의 여부다. [↑](#footnote-ref-23)
25. 이러한 흐름들에서 모병제(지원병제)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모병제 추진연대’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footnote-ref-24)
26. 분명 수많은 의문사들은 ‘폭력’의 존재를 명시하고 있다(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8). [↑](#footnote-ref-25)
27. 이에 대해 김현영(권김현영)은 2011년에는 다른 방식으로 읽기를 시도한다. “남성성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과거로서의 역사적 산물이라기보다 인간의 행위와 실천에 대한 선택적, 모순적, 단절적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남자와 남성성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과정에 개입된 구성적 권력과 개인들의 순치, 우연성, 저항이 드러나게 되면 남성성의 보편적 지위는 의심스러운 것이 된다. 우리는 남자와 남성성을 솜씨 좋게 연결시켰던 이음매들을 다시 분절하고 그 사이사이에 감춰지고 누락되었던 불협의 소리들을 복원하여 남성성의 역사를 차이 속에서 다시 쓰고자 했다”(권김현영, 2011: 10-11). [↑](#footnote-ref-26)
28. 김현영(2001)의 논의에서 대학을 다닌 남성들이 육체적으로 취한 것에 대해서 계속 감추려 하거나 오히려 과잉된 제스처나 습속으로 자신의 남성성을 과장하려고 한다는 면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그 논의가 제기되던 맥락에서도 전 사회적으로 풍미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육체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지식-노동자로 표상되는 남성성이 훨씬 더 헤게모니적이라고 볼 수 있다. [↑](#footnote-ref-27)
29. “남성성이 남성성을 체현하게 되는 과정은 하나로 공식화될 수 없다. (......) 보이지 않던 젠더 구조를 드러냄gendering과 동시에 그러한 젠더 구조가 (일시적이고 우연한) 역사적 산물임을 강조함으로써 젠더를 해체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즉 분석 범주로서 성차는 원인이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남성성의 위계와 그 구성은 언제나 진행 중이며, 유동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힘들이 교차하고 충돌하는 모순적 과정이다”(정희진, 2011: 16-17). [↑](#footnote-ref-28)
30. 전쟁의 경험의 효과에 대해서는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참조. [↑](#footnote-ref-29)
31. “주민들을 국가의 유용하고 순종적인 구성원을 만들 때 훈육과 물리력을 혼합하는 것은 남한의 군사화된 근대성이 푸코의 근대성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푸코의 근대성은 훈육 권력이 커지고 물리력은 점차 줄어드는 것이다. (......) 예전에는 군대가 "개인의 신체에 대한 통제와 훈련으로부터 아주 복잡한 여러 집단의 특수한 힘을 이용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을 학교, 공장, 병원, 감옥 같은 근대 훈육 기관에 빌려 주었지만 이제 그것은 군대 내부 정치에서만 나타나게 되었다”(문승숙, 2007: 51). [↑](#footnote-ref-30)
32. 게다가 신자유주의적 상황은 다른 방식의 젠더 재-접합(re-articulation)과 안보와 금융 헤게모니의 질서 접합, 전지구화와 국민국가의 접합을 통하여 다른 방식의 헤게모니를 관철시키고 이는 미시적 차원뿐만 아니라 거시적 차원 모두에서 여성주의, 좌파 혹은 진보 진영의 다른 방식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본다면 신자유주의 상황과 기존의 연구들은 다시금 연결되어 재구성의 필요를 강하게 요청받는다(정희진, 2011: 27-31; 김안정애, 2005: 60, 73; 클라인, 2008). [↑](#footnote-ref-31)
33. 강제력은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군과 같은 외부로부터 영토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 등의 조직화된 ‘폭력’, 두 번째로 국내의 시민에 대해 행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감시’가 바로 그것이다(기든스, 1991: 17, 149). 베버는 이 두 가지 양상을 통합하여 강제력으로 정의한다(베버, 1981: 327). [↑](#footnote-ref-32)
34. 상식이라는 개념은 그람시적인 의미에서의 상식을 의미한다. “상식은 종교와 마찬가지로 집합명사이다. 상식은 역사의 산물이자 역사적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상식이란 있을 수 없다.”(Gramsci, 1971: pp.325-6) 상식은 복수이며 단 하나로 정의되지 않으며 상식‘들’끼리은 서로 교차하고 상호 모순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식들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며 ‘상식 아닌 것’과의 대조를 통해 스스로를 확대 재생산해낸다. “상식은 특정 시대의 특수한 대중적 환경에서 공유되는 일반적 형태의 사고방식으로, 산만하고 비조직적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케이트 크리언, 2004: p.156). “'상식'은 민간에 전승되는 철학이며 언제나 순수한 의미의 민속과 전문가들의 철학, 과학, 경제학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다. 상식은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통용되는 비교적 규격화된 대중적 지식의 국면으로서 미래의 민속을 창조한다”(케이트 크리언, 2004: p.155). [↑](#footnote-ref-33)
35.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확대되었다는 것은 1980년대 노동 시장에서 군 복무의 상징적 의미가 커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 (…중략…) 국가는 이 제도를 군 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 또는 보상으로 활용해서 개병제를 유지하려 했다”(문승숙, 2007: p.68). [↑](#footnote-ref-34)
36. 이러한 지식 중 암묵지의 경우 초창기 정의했던 마이클 폴라니에 의하면 “인간의 두뇌 속에 실타래처럼 얽혀있어서 인간의 문제 해결에는 기여하지만 언어나 수식 또는 기타 구조적인 형태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한 지식”이지만, 확장적 정의에 따르면 “암묵지란 어떤 일정한 형식이나 규칙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이자 내재적인 지식을 말하며 개인이나 조직의 경험, 이미지, 혹은 숙련된 기능, 조직문화 등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김영철, 2003). 즉 군대의 차원에서 이러한 암묵지를 읽어내면, 남성들이 각인하게 되는 군사주의적 아비투스도 이러한 암묵지의 차원에 포함되게 된다. [↑](#footnote-ref-35)
37.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에서 ‘국면적’으로 ‘안보’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안보의 강조로 인하여 인권의 차원이 제약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한 분석에서는 ‘국방개혁’에 관한 논의도 한정적으로 다룰 것이다. [↑](#footnote-ref-36)
38. 이러한 생산에서 이윤추구로의 이행에 대한 관점은 비클러·닛잔(2004)의 이론을 따른다. 이들은 신자유주의로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금융화의 현상은 자본의 목적이 애초에 생산을 통한 산업적 이윤의 성취가 아닌, ‘부재지주’로서 (금융적, 시장지배력 등) 이윤획득 그 자체에 몰입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추인함에 따라 발생한 현상으로 설명한다. [↑](#footnote-ref-37)
39. 국가 위상에 대한 ‘추락’ 혹은 ‘해체’의 입장을 정치경제학자들 중 일부가 주장하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은 적극적으로 국가 역할의 ‘축소’를 주장하지만(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2006) 실제로 국가가 ‘축소’되었다는 ‘실증적’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의 ‘재조정’ 혹은 ‘통치 방법’의 변화라는 ‘통치성 학파’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Lemke, 2001: 197). [↑](#footnote-ref-38)
40. 하지만 이 논문에서 한국군의 ‘신자유주의화’된 조직에 대한 평가는 직접적인 연구관점과 상관 없기 때문에 생략한다. [↑](#footnote-ref-39)
41. Foucault M. 1997. *Ethics: Subjectivity and Truth. Essential Works of Michel Foucault, 1954–1984*. Vol. 1. New York: New Press, p.68, Nikolas Rose, Pat O’Malley, and Mariana Valverde, “GOVERNMENTALITY”,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2006, 2: 83-104에서 재인용. [↑](#footnote-ref-40)
42. 예컨대 이러한 프로그램 분석은 자기계발하는 주체를 “정책이나 자기계발의 매뉴얼들이 자극(stimulus)하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를 가질 수 있다(전상진, 2008: 106) [↑](#footnote-ref-41)
43. 이러한 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곽중현은 ‘realist’ 통치성 접근(곽중현, 2009:p.11)을 통해서 문화기술지를 작성한다. 곽중현은 의도적으로 담론 층위와 실천의 층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리를 시도한다(곽중현, 2009:p.11). 이 논문에서도 곽중현과 분석에 있어 동일한 전략을 구사한다. [↑](#footnote-ref-42)
44. 노무현 정부 시기 이례적으로 군대 내부의 실태 조사를 위하여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을 통해 군대연구자인 권인숙 등이 참여관찰을 수행한 경우가 있다. 그 외에 종교 기관 등을 통하여 군종 장교(개신교·불교·가톨릭) 들이 국방부 내부에서 참여관찰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한 면담 및 참여관찰지가 외부에 간행되지는 않는다. [↑](#footnote-ref-43)
45. 연구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명 대신 익명의 알파벳으로 참여자 이름을 대체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출신학교와 전공, 출신 군(군별, 병과, 주특기별), 출신지역의 경우 이 논문의 연구 맥락상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과의 합의하에 표기하였다. [↑](#footnote-ref-44)
46. \*자료: 1950년대·1960년대는 병무청(1985: 507, 750), 1970년대는 병무청(1986: 799). 모든 수치는 신병식의 논문(2006)에서 인용하였다. 1959~67년의 자료에서 병역기피자의 숫자가 누락된 것은 원자료의 누락 때문이다.

    \*1950년대, 1960년대 자료는 하령인원(신체검사 및 징소집) 대 기피자 수와 비율이며, 1970년대는 징소집 기피자 수와 비율로서 집계상의 차이가 있다(신병식, 2006: 158). [↑](#footnote-ref-45)
47.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면적인 병역기피가 아닌 상위 계급(upper-class)의 ‘병무비리’ 자체는 멈추지 않았고 국가는 이에 대해 ‘도덕적 비난’은 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효까지는 용인했다(신병식, 2006: 164). 요컨대 징병제의 운용은 상호 다른 계급(class)에게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었다. [↑](#footnote-ref-46)
48. 한국의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정을 할 수 있고, 운동의 성격규정에 따라서 전개시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장 넓은 범주에서 1980년 광주 민중항쟁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 전개되었던 운동 전반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민주화’을 활용한다. 관련된 논의는 조희연 편(1995) 참조. [↑](#footnote-ref-47)
49. “군 입대 거부 등 선동유인물 발견 성대·부산대서…”(동아일보 1986년 11월 21일) [↑](#footnote-ref-48)
50. “1980년대 대학생들은 1학년 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문무대(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1주일 동안 군사훈련을 받았다. 2학년이 되면 군사분계선에 위치한 최전방 부대에서 1주일간 병영체험을 하는 ‘전방입소’ 교육이 있었다. 국방부는 필수과목인 교련을 이수하고 문무대 교육과 전방입소 교육을 마친 대학생에게 군 복무기간을 3개월 줄여줬다.”(동아일보 2008년 4월 28일, “[책갈피 속의 오늘]1986년 서울대생 2명 분신”) [↑](#footnote-ref-49)
51. 제한적으로는 1980년대 민중민주파(PD: People’s Democracy), 제헌의회파(CA: Constitutional Association)의 일부 분파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운동세력들을 호명하는 말이다. 좀 더 포괄적으로는 1980년대 재야운동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이다. 관련된 논의는 조희연(1995) 참조. [↑](#footnote-ref-50)
52. 게다가 학생운동 진영 자체가 군대를 본뜬 가부장적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내부의 군사주의는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고, 군대의 내부 맥락에 대한 비판은 잘 전개되지 않았다(권인숙, 2005a; 전희경, 2008; 김원, 2011). [↑](#footnote-ref-51)
53. 여기에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최초’로 언급하는 것은 기존의 ‘민족민주운동’과 재야운동의 변혁이론의 연장선상이 아닌 적극적 평화(군사주의에 대한 문제제기, 평화 그 자체를 지향)론을 채택한 단체이기 때문이다. 관련된 논의는 정욱식(2004), 문소정(2009) 참조. [↑](#footnote-ref-52)
54. “인지적 실천론은 사회운동이란 그 사회의 구조적 긴장과 모순이 사회의 인지적 공간(cognitive space)에서 지식관심으로 형성될 때 나타나며, 활동가는 '특정한 지식 관심과 지식생성'의 인지적 실천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는 운동지식인(movement intellectual)으로 정의하고 접근하는 사회운동론이다”(문소정, 2009). [↑](#footnote-ref-53)
55. 관련된 기사의 목록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를 통해 추려낸 것이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신문의 1920년대부터 1999년까지의 모든 기사를 문서로 서비스한다. [↑](#footnote-ref-54)
56. 2004년에 ‘군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의해 발의되었고, 2005년 6월 말에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8: 110). [↑](#footnote-ref-55)
57. 1993년 4월 18일 동아일보 "지도층자녀 병역비리 철저조사 옥석가려야" [↑](#footnote-ref-56)
58. 이를 통하여 신한국당의 이회창 후보는 압도적인 대선주자 1위에서 밀려나 대선에서 패배했고, 결국 정권교체가 성사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footnote-ref-57)
59. 이에 대한 반례로 ‘빨간 마후라’, ‘공군 신사’ 등 사회와 소통하는 이미지의 공군 이미지도 존재하나 그러한 특성이 주로 보여주는 대상은 공군 ‘병사’가 아닌 부사관(당시 하사관) 혹은 장교(주로 조종사) 등 사회인이기도 했던 직업군인들이었다. [↑](#footnote-ref-58)
60. 1980년대 학생 운동권 남성들을 체포했을 때 ‘녹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군입대를 시켜버렸던 5공화국의 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대는 사회와 ‘단절’되고 ‘격리’된 공간이었던 것이다. [↑](#footnote-ref-59)
61. 이에 대해서 신문지상의 군인에 대한 언급을 예시할 수 있다. 예컨대 군인을 ‘아이’로 처음 재현한 것은 1987년이 처음이다(매일경제 1987년 5월 6일자 박정자 칼럼, “성공적인 삶”). [↑](#footnote-ref-60)
62. 여기에 더불어 군대가 ‘군인-노동자’로 남성들을 사회에서 한 명의 노동력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지원했던 영향도 있다. 이 부분은 2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footnote-ref-61)
63. 이 지점에서 연구자는 신세대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담론 접근을 통하여 ‘발굴’된 것으로 파악한다. 마찬가지로 신세대 병사 역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발굴’된 것이다. 기존의 젊은 병사들이 복잡한 감정과 문화적 기호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군사정권기의 분위기에 의해 ‘억눌려’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굴’된 신세대라는 기표는 새로운 담론 지형을 만들었다. [↑](#footnote-ref-62)
64. 1993년 8월 1일 동아일보 “신세대 (17) 군인 ‘계급 낮아도 할 말은 하죠’”; 1993년 8월 1일 동아일보 “신병교육대 이창현 중위 “개성 있는 병사 ‘조직적응’ 잘해요””; 1994년 6월 15일 동아일보 “사병용돈 ‘온라인’ 송금 소비풍조 만연될까 걱정”; 1996년 1월 26일 한겨레 “신세대 병사 단체기합 안 통한다”; 1996년 8월 16일 매일경제 “특전사 장병 통솔지침 새로 마련 쉰세대 지휘관의 신세대 길들이기”; 1996년 9월 24일 매일경제 칼럼 박기효 “신세대 사병”; [↑](#footnote-ref-63)
65. 연구자는 1990년대 ‘신세대 병사’들의 하위문화의 특성을 3가지로 분류한다. 1)‘마초 문화’ 2)군대에서의 병폐와 병무 비리 등의 부당함에 대한 저항과 조롱 3)자신들을 이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규탄. 연구자는 2000년대의 ‘월장 테러’ 등의 사건을 ‘신세대 병사’들이 ‘예비역’이 되어 더 이상 2항에 대해서 군대에 대해서 ‘개기지’ 않게 된 상황에서 1항과 3항이 강해진 경향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이해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온라인 문화와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신세대 병사’들이 2000년대에 들어서 만들어내는 문화적 논리에 대한 분석은 본 논문이 아닌 다른 지면을 통해서 진행하기로 하겠다. 관련 논의는 이길현(2010) 참조. [↑](#footnote-ref-64)
66. 신윤호(1994)의 논의 역시 이러한 하위문화적 기제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신윤호의 논의에 등장하는 창공대 학군단원들은 기존의 규범에 대해서 적응하는 척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하위문화를 형성하면서 나름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footnote-ref-65)
67. 2000년대 초반의 입대 커뮤니티도 이러한 1990년대의 PC 통신 문화와 결부하여 파악할 수 있다. [↑](#footnote-ref-66)
68. 앞서 3장 1절에서 등장했던 5인용의 병무비리를 저질렀던 유승준에 대해서 ‘패러디’를 했던 맥락은 이러한 하위문화의 영향력 하에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footnote-ref-67)
69. 동아일보 1992년 1월 16일, "'진짜 사나이'된 군인아들"; 동아일보 1992년 4월 17일, "아들 용기 자랑스럽다"; 한겨레 1992년 8월 25일, 독자 투고 "어찌 부모형제에 군홧발 들 수 있나 시위진압에 나서는 전경 여러분에게"; 동아일보 1992년 9월 23일, "요즘세상 (14) 신병면회 '떡보따리' 사라졌다"; 동아일보 1993년 6월 16일, 독자 투고 "군에 간 두 아들"; 한겨레 1994년 4월 2일, 독자 투고 "신병훈련 퇴소식 가족 불편 1시간 30분전부터 오라고 해 추위 떨어"; 한겨레 1994년 12월 6일, 독자 투고 "군입대 아들 면회때 음식반입 허용하길"; 한겨레 1994년 12월 16일, 김선주 칼럼 "나도 병역 면제받고 싶다"; 동아일보 1995년 9월 4일, 독자 투고 "아들복무 군부대서 호우피해 안부전화 흐뭇" [↑](#footnote-ref-68)
70. 이러한 시기 군대의 사회에 대한 문호개방과 더불어 '엄마'들은 ‘해병대 캠프’ 등에 참가하면서 아이들의 생활 속속들이를 이해하려 한다(경향신문 1997년 7월 2일, "김포 '97 해병대캠프' '해병대 정신 배우자' 민간인들 구슬땀"). [↑](#footnote-ref-69)
71. 최초로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라는 언설이 앞서 언급한 3개 미디어에 등장한 것은 1990년 황석영의 한겨레신문 연재소설 『흐르지 않는 강』에서였다. “남자가 군대는 갔다 와야 제 밥 찾아먹구 살게 되어 있거든.” 같은 방식의 발화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라는 말의 현대적 의미(조직 적응력, 남성성 등)와 관련되어있는 언급은 1993년 1월 19일의 경향신문 한동우 칼럼이 처음이었다(“문민화는 절로 되는가”). 즉 우리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오래된 사회적 ‘상식’으로 구축되어있다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1990년대에야 등장하기 시작한 표현이다. 그 이전에는 그러한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징병에 대한 도전이나 군대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불가능했고, 그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발화가 등장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footnote-ref-70)
72. 이러한 방식의 ‘세대’의 책임을 묻는 발화는 최근에도 나타나곤 한다. “체벌 자체보다도 자유롭게 자란 아이들이 군에 들어가 바뀐 환경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더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경향신문, 2011년 7월 12일자, “이(李)대통령 ‘해병대, 체벌보다 적응 못한 게 큰 원인’”) [↑](#footnote-ref-71)
73. 1990년대에 군대와 관련된 유행가요가 발표된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민우의 <입영 열차 안에서>가 1990년에 발표되었고,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김현성 작사 작곡) 역시 1990년대에 히트했다. [↑](#footnote-ref-72)
74. 90년대 신세대들의 군대에 대한 감수성을 드러내는 작품이 바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이다. 영화를 통해 부조리,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의 파괴가 어떠한 양상으로 그들의 심경을 괴롭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footnote-ref-73)
75. 군에서는 이들의 사례를 모두다 할 수 있는 ‘특수하지 않은 사례’로 드러내려하지만, 그들의 학벌이나 다른 ‘스펙’들은 다른 그룹의 남자들과의 ‘구별짓기’를 명확히 드러낸다(예컨대 경향신문 2011년 11월 9일, “육군 상병, 사법시험 2차 합격… 비결이”. 이 기사에서는 그의 학습노력을 부각하려 하지만 사실 그는 명문대인 K 대학 출신이며, 강남의 고등학교 출신이다. 요컨대 그 역시 ‘엄친아’의 범주에 들어간다.). [↑](#footnote-ref-74)
76. ‘나약한’ 군인에 대해 2009년 국군의 날에 방영되었던 tvN <남녀탐구생활>에 등장한 묘사를 살펴볼 수 있다. ‘무개념’에 매일 진탕 술을 먹던 남자는 어느 날 입영 통지서를 받는다. 훈련소 앞에서 여자 친구와 '엄마'와 작별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남자는 훈련소에서 “다, 나, 까”를 배우면서 군인이 되기 시작한다. 훈련소를 마치면서 ‘군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대 생활은 전혀 다른 스테이지의 시작이다. 일만 죽어라 하는 일병, 눈을 부라리며 모든 동태를 살피고 민첩한 상병, 만사가 귀찮고 거만한 병장을 거치면서 제대하는 동안 남자의 모습의 변화는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입으로 전해지는’ 군대 경험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남자를 기다리는 ‘곰신’ 여자의 모습 또한 그러한 남자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면서 그녀들이 느끼는 남자의 변화와, 자신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시간이 가지 않는 남자와, 왜 이렇게 군인을 자주 휴가를 보내냐며 국방부에 투덜대는 여자의 시선은 군대에 대한 ‘시차’를 잘 드러내 준다. [↑](#footnote-ref-75)
77. 이 프로그램은 노무현 정부가 시작함과 동시에 방송되었고, 노무현 정부의 말기인 2007년에 막을 내렸다. [↑](#footnote-ref-76)
78. ‘싱글녀’를 군인들이 찾게 될 경우 그들이 휴가를 나가고, 못 찾게 되면 커플들이 휴가를 나가게 되는 게 프로그램의 규칙이었다. [↑](#footnote-ref-77)
79. 김민우의 <입영열차 안에서>라는 노래가 그런 정서를 보여준다.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었어/손 흔드는 사람들 속에 그댈 남겨두기 싫어/삼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대 나를 잊을까/기다리지 말라고 한 건 미안했기 때문이야/그곳의 생활들이 낯설고 힘들어/그대를 그리워하기 전에 잠들지도 모르지만/어느 날 그대 편질 받는다면/며칠 동안 나는 잠도 못 자겠지/이런 생각만으로 눈물 떨구네/내 손에 꼭 쥔 그대 사진 위로” [↑](#footnote-ref-78)
80. 권혁철, “사병의 성을 허용하라”,; “이렇게 ‘싸나이’는 태어났다”, 한겨레21 제479호 [↑](#footnote-ref-79)
81. 또 다른 한 편 '엄마'들은 매일 같이 편지를 온라인으로 보내면서 자신의 애환을 아이에게 ‘하소연’하기도 한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아이’인 병사들과 '엄마'와의 친밀성, 그리고 아이에 대한 '엄마'의 감정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 논문의 연구관심에서 벗어나서 생략하기로 한다. [↑](#footnote-ref-80)
82. 이러한 '엄마'들의 등장은 애인으로서의 ‘곰신’들과 협력하면서도 갈등하곤 했다. 예컨대 애인 때문에 '엄마'에게 전화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든가, 애인이 맘에 들지 안들 때마다 그들은 곰신 카페에서 ‘훈계성’ 혹은 ‘설득성’ 게시물을 남기곤 한다.

    “1038기 이제 막 5개월 조금 적응할만한 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군에 가기전 사귀던 여친이 곰신을 거꾸로 신고 갔어요

    아무 이유없이 아무 얘기도 없이 ~~~

    평소에 아들을 더 좋아하고 엄마엄마 하며 자주 안부전화도 하고 했는데

    내 전화 내 메시지 전부 무시하고 안 받네요

    아들놈이 전화해도 받질 않더군요

    여자의 입장으로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장래를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는건 힘든건가요?

    요즘 곰신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줄 몰라서 그러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우리 아들은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막 쏟아져요 ~~”(“이병엄마가 곰신에게~~”, <해병대 가족모임 카페> 게시물 중, 2007. 6. 13) [↑](#footnote-ref-81)
83. 통상 일선 대대급 부대나 연대급 부대에서는 부대동정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각 병사들의 가정에 발송한다. 이러한 가정통신문은 1990년대에도 존재했으나, 2003년 병영문화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육군에서 형성되면서부터 확산되어 많을 경우 월 2회 이상 발송되는 경우도 있다(Q과의 인터뷰). [↑](#footnote-ref-82)
84. 2010년부터 국군방송 TV에서 시작된 “엄마 군대 가다”라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흐름을 잘 드러낸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의 블로그를 통하여 '엄마'들을 선발하여 아들의 부대에 1박 2일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엄마'들은 아들과 1박 2일을 보내면서 부대의 특징, 훈련, 생활관 등을 관찰하고 다큐멘터리의 형식으로 편집되어 1시간 분량으로 방영된다. 프로그램 블로그는 <http://cafe.naver.com/momgoestoarmy> [↑](#footnote-ref-83)
85.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현상은 대통령 부인의 부대 방문이다. 노무현 정부까지 군부대 시찰이나 방문은 대통령이나 ‘남성’인 내각의 수반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엄마’로 재현되는 대통령 부인이 부대를 방문하여 병사들을 격려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 김윤옥 여사의 방문은 고(故) 육영수 여사 이후로는 처음이다(데일리안 2008년 9월 11일, “김윤옥 여사, 장병 안고 돌아서 ‘눈물’”). [↑](#footnote-ref-84)
86. 1988년 3월 18일 동아일보 사설 "'국민의 군대'로의 발돋움"; 1990년 2월 5일 동아일보 "군의 '홀로 서기' 시도"; 1990년 2월 16일 경향신문 사설 "군의 변화를 주목 한다"; 1990년 7월 27일 동아일보 사설 "'국민의 군'으로의 탈바꿈"; 1990년 10월 8일 동아일보 사설 "군사문화의 과감한 청산을"; 1992년 12월 27일 동아일보 "군 출신 공직등용 줄인다" [↑](#footnote-ref-85)
87. 1994년 10월 1일 경향신문 "'군 제2개혁' 긴급처방" [↑](#footnote-ref-86)
88. 1996년 7월 28일 한겨레 사설 "군인의 떼죽음과 불안한 부모들"; 1996년 10월 3일 경향신문 사설 “군기강이 이래서야” [↑](#footnote-ref-87)
89. 1996년 1월 26일 한겨레 “신세대 병사 단체기합 안 통한다”; 1996년 8월 16일 매일경제 “특전사 장병 통솔지침 새로 마련 쉰세대 지휘관의 신세대 길들이기”; 1996년 9월 26일 동아일보 "군 다시 태어나라 풀어진 군기 빛바랜 군개혁 ... 기강-사기 '휘청'" [↑](#footnote-ref-88)
90. 1998년 7월 4일 경향신문 사설 “‘작지만 강한 군대’가 되려면” [↑](#footnote-ref-89)
91. 이러한 분석은 제솝(2000)의 방식을 따른다. [↑](#footnote-ref-90)
92. “군사화된 근대성의 핵심 요소는 공산주의자 타자와 싸우는 반공주의 자아로서 한국을 구성하는 것, 훈육과 물리력으로 반공 국가의 구성원을 만드는 것, 산업화 경제를 군 복무와 결합시키는 것이다”(문승숙, 2007: 46). [↑](#footnote-ref-91)
93. “개발동원체제에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사회조직화와 재편, 즉 '동원'이 이루어진다. 국가가 사회적 요구에 구속되어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구상 ·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국가적 목표를 향해 사회를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기획자이자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국가는 사회에 대한 일종의 '기동전'적 체제라고 할 수 있다”(조희연, 2010: 33). [↑](#footnote-ref-92)
94. 한글반은 1964년에 해체된다. 이는 문맹퇴치운동의 ‘성공’과도 맞물린다. [↑](#footnote-ref-93)
95. 일반교육은 1970년대에 ‘위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병 중심의 교육이 부사관 이상 간부들의 교육으로 전환되는 맥락에서 사라진다. [↑](#footnote-ref-94)
96. 당시의 초등학교의 명칭이 ‘국민학교’라는 점은 시사적이다. [↑](#footnote-ref-95)
97. “한글을 완전히 알게 될 때부터 우리는 교관이나 분대장의 외침이 없이도 군기를 전보다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창군 동지회 회고, 황장호, 2008; 박효선, 2010: 70에서 재인용) [↑](#footnote-ref-96)
98. 1인 1기 교육을 한 편으로 ‘개인화된’ 방식의 교육이고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적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자기-학습의 주체의 학습과 별반 차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1인 1기 교육은 학습의 범주를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정해주고, 그에 대한 ‘할당’을 본인이 수행하는 방식의 교육이었다. 동시에 교육의 종료는 군이 정해놓은 시간을 채워서 ‘이수’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자기계발의 논리에서 자기-학습의 주체들은 모든 것을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진다. 따라서 기술교육은 전체 과정으로 보자면 집단(집체) 교육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footnote-ref-97)
99.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기술교육에서 “최전방 장병과 특수 임무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박효선, 2010: 120). ‘최전방 장병’과 ‘특수 임무자’에게 우선되는 것은 ‘본연’의 군복무가 되는 것이고 개개인의 차원에서 느꼈을 ‘박탈감’의 의미화가 가능하다면 이는 기존의 ‘기술교육’이 어떻게 비대칭이 되었는지를 파악하게 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본 쟁점은 논외로 하기로 한다. [↑](#footnote-ref-98)
100. “사회에 재교육 기관이 거의 없던 시절 군은 육군대학, 국방대학원 ,보병학교, 공병학교, 통신학교 등등의 방대한 자체 교육기관을 갖춘 유일한 사회집단이었다. 군은 정밀한 무기를 다루고, 최첨단의 통신과 수송수단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고도의 행정관리 체계와 기술을 보유했다. 한국사회에서 조직관리와 경영학의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한 집단도 기업보다 군이었다”(강준만, 2009: 107). [↑](#footnote-ref-99)
101. 보조적으로 ‘농수산업’을 포기했다는 측면에서 이미 한국사회가 산업화의 경로 안에 깊숙이 진입했음도 확인할 수 있다. [↑](#footnote-ref-100)
102. “군 간부들이나 국방장관은 그동안 얼마나 강도 높게, 얼마나 줄기차게 시설 개선을 요구해 왔나. 국회의원들은 군 내무반 시찰도 안 했나. 자기 눈으로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병영 안의 성범죄도 이런 허술한 체제에서 마음 놓고 벌어졌다고 봐야 한다. 병사들을 자식같이 아끼며 불편이 없나 보살피는 군대였다면 이처럼 오랫동안 성범죄를 방치했을 리가 없다. 다 큰 성인들이니 각자 알아서 대응하라는 분위기가 성범죄를 키웠다. (…중략…) 장병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지낼 수 있어야 한다. 장교들의 관사가 일반중산층 주택은커녕 빈곤층수준이라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군사정부 시절 군 관사 등의 개선을 추진한 이래 오랫동안 이를 외면했던 것 같다. 내무반과 관사의 대부분이 25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다. 우리의아들들, 아니 아들 딸들의 잠자리가 이처럼 나빠서는 안 된다.”

     (출처:한국일보(2003. 8. 10), “<장명수 칼럼> 우리 아들 딸들의 잠자리”) [↑](#footnote-ref-101)
103. 여기서 언급하는 구조개혁은 안보의 첨단화를 위한 ‘국방개혁 2020’을 뜻한다. [↑](#footnote-ref-102)
104. 만약 그게 문제였다면 김 일병의 ‘정신병력’이나 그의 우울증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한 ‘지휘 관리의 문제’만 지적되었을 것이다. [↑](#footnote-ref-103)
105. 이러한 ‘국면’에 대한 정의는 스튜어트 홀의 정의를 따른다. “‘국면’(즉 바로 눈앞에서 대면하는 투쟁의 지형)을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주어진 경제적 여건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체제를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노력들이다.”(홀, 2007: 97) [↑](#footnote-ref-104)
106. ‘군복 입은 시민’이라는 용어를 처음 언급한 것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이었던 천용택이었다(연합뉴스(1998. 3. 4), 千국방, “전면적 개혁 작업 추진”-기자간담회).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연구하면서 군과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의 맥락에서 이 용어를 언급했다. 이러한 ‘군복 입은 시민’이라는 용어는 노무현 정부 시기 국방부 정훈교육에서 등장하게 된다. 관련된 내용은 국방일보(2005. 4. 1.), “정신교육 제 14주차 기본교재: 군복 입은 민주시민” [↑](#footnote-ref-105)
107. 실제 2005년을 전후해서 군복무를 수행했던 남성들은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그 즈음부터 물리적인 ‘구타’가 사라졌다고 진술한다.

     “B: 2005년 9월 군번이니까. 내가 갔던 훈련소 그 자리가 김일병 있던 자리었어. 나를 교육했던 교관이 김일병을 가르쳤던 교관이었고. 다리 터졌던 사람들이 사단 병원에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군대를 갔더니 선임들은 후임들 개념 없다는데 상부에서는 터치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나왔지.” [↑](#footnote-ref-106)
108. 국가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의는 기관이나 법제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를 가진다. 예컨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2002)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교육기관 · 연구기관 · 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 · 배분 · 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강경종, 2006: 295에서 재인용) 교육인적정책위원회에서는 다음과 정의한다.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개발 및 효율적 관리로 지식 창출 · 활용 · 확산을 촉진하여 개인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 사회의 총체적인 노력”(교육인적정책위원회(2001))(강경종, 2006: 295에서 재인용)

     이러한 정의들을 요약하자면 국가인적자원개발은 국가(중앙·지방)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부문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아직 자본화(capitalized)되지 않은 가용한 인적 자원(human resource:질적 개념)을 계측 가능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로 끌어내는 ‘총체적인 노력’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지수를 각국가 별로 만들어내고 그를 통하여 양적인 평가가 가능해진다. 이 절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언급하는 것은 군대개혁의 맥락에서 발전주의 국가 시기의 교육 프레임에서 전환하여 인적자원으로서 군인들 역시 그 주체로 설정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footnote-ref-107)
109. 인적자본이라 함은 각 개인의 능력과 지식의 합으로 노동공급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학교교육, 계속 교육 및 경험을 통해 축적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12). [↑](#footnote-ref-108)
110. 흥미로운 것은 교육인적자원부(2006)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평가’에서 판단하는 자기계발 항목에서 2007년의 예상으로 ‘자기 계발 병사 72%’, 2010년의 예상으로 ‘자기 계발 병사 90%’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footnote-ref-109)
111. e-러닝을 도입한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군대가 자체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유치한 e-러닝 강좌가 바로 <해커스 토익> 같은 ‘사교육’의 강좌였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교육과 계약을 체결하는 흐름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강하게 밀어닥쳤던 신자유주의에서의 아웃소싱(외주) 흐름과 연결이 되어있다 [↑](#footnote-ref-110)
112. 진중도서관은 부대에 있는 도서관이고, 진중문고는 각 부대에 배치되는 책들을 말한다. [↑](#footnote-ref-111)
113. 그런데 이 흐름들은 국방부의 예산을 통해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국방부의 2006년 도서구입비는 10억이었다. 국방비 중 0.005%였다. 즉 전체 60만 장병에게 돌아가는 책은 1만 원짜리로 기준하면 1년에 0.15권 남짓이었다. [↑](#footnote-ref-112)
114. 그러한 연유는 전방부대들이 가장 문화적으로 배제되기 쉬운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들로 전방부대들에 인터넷 사랑방도 우선적으로 도입되고 플레이스테이션 등의 게임기나 노래방 시설 등도 빨리 보급되곤 했다. [↑](#footnote-ref-113)
115. 이 부분은 미군의 근무관리에서 출퇴근 개념을 도입한 것과도 관련된다. [↑](#footnote-ref-114)
116. 이러한 ‘그린 존(Green Zone)’은 “교육 훈련이 펼쳐지는 장소 이외의 공간, 즉 장병들이 주로 활동하는 내무실·화장실·식당·휴게실·매점 등을 내 집처럼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그린 존은 서열·계급에 의한 구타·가혹 행위가 없고 대신 상호 존중과 배려, 대화, 칭찬이 가득 넘치는 병영의 청정 구역인 것이다.”(국방일보(2005. 7. 15), “仁·義·禮·智가 있는 병영 休식처 ‘그린 존’을 아십니까?”) 이러한 ‘그린 존’ 운동은 육군 3군 사령부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진행되었고, 3군 사령부 예하 부대에서는 NICE 1사단, 백골존, 미인대칭, 늘 푸른 병영, 푸른 병영, EVER NINE, 번개공동체, 비룡존, 베스트 그린 28, NEW 30사단, BRIGHT TIGER 등 각급 부대가 ‘선진병영문화’라는 목표를 위해 이러한 슬로건들을 내걸었다(국방일보(2006. 2. 23)). [↑](#footnote-ref-115)
117. 2006년에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그들의 점호 전통이었던 ‘순검’을 폐지하자 항의하여 다시 복원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자율적인 내무 문화로의 가는 방향 자체는 노무현 정부 내내 유지되었다. [↑](#footnote-ref-116)
118. 그 전까지의 토요일 근무는 격주로 쉬고, 근무일에는 오전 근무를 하는 형태였다. [↑](#footnote-ref-117)
119. 쿠키뉴스(2007년 5월 1일), 35사단 장병 “부대서 자격증 공부”…10개월 만에 1800여명 취득 [↑](#footnote-ref-118)
120. 석사장교는 석사 소지자 중 우수한 자를 시험으로 선발하여 6개월간 군사훈련과 전방 체험을 거친 후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켜주는 제도로, 그 목적은 우수한 자원에게 군 복무 혜택을 준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차남인 노재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이 전재국 등이 이러한 석사장교 제도를 활용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 차남의 복무가 끝나자 곧 바로 제도가 폐지되기도 했다. [↑](#footnote-ref-119)
121. 한겨레21(1998. 6. 25), “대한민국은 빽이 최고: 또 다른 화약고 병무비리 리스트” [↑](#footnote-ref-120)
122. 연합뉴스(2002. 2. 2), “가수 유승준씨 입국 거부돼” [↑](#footnote-ref-121)
123.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오인용’(<http://www.5p.or.kr>)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연예인 지옥: 스티붕 유 편>라는 연작 패러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배포했고, 이는 전편이었던 <연예인 지옥: 무뇌충 편>(문희준 패러디)과 더불어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이러한 애니메이션은 예비역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였는데, 이러한 정서는 병역의무의 ‘평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공인’인 연예인이 깨어버리는 것에 대한 분노와 맞물린다. 현재 오인용 사이트는 회사의 파산으로 사라졌고, 당시 플래시 파일로 돌던 영상들은 웹상에서 유포되어 볼 수 있다. [↑](#footnote-ref-122)
124. 국민일보(2002. 11. 9), “과거 병역기피자도 해외여행 제한” [↑](#footnote-ref-123)
125. 동아일보(2005. 5. 4), “병역 마쳐야 국적포기 가능…국적법 개정안”; 노컷뉴스(2005. 11. 9), “병역기피 목적 국적 상실하면 불이익” 개정안 통과 [↑](#footnote-ref-124)
126. 또한 2010년에는 실제로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법무부에 적발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적 적발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담론의 차원이 더 중요하다. (연합뉴스(2010. 9. 30), “군대 안 가려다 복수국적 자격마저 박탈된 10대들”) [↑](#footnote-ref-125)
127.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연구자: 동네 친구들은 카투사 같은 거 많이 가요?

     H: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 가는 거는 못 봤어요. (많이 떨어졌구나.) 의무 소방은 간다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고. (......) 아예 군대를 빼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중국적 이런 거?) 네.

     연구자: 부모님은 어디 가라고 했어요?

     H: 부모님은 크게 관여를 안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병과. 부모님이 별로 군대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셨어요. 왜냐면 아버지도 군대를 안 가셨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간 사람들이 제대로 간 사람들이 한 사람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방위로 빠지고. 그래서 안 가고 싶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긴 한데. (......) 뭐 아픈 데를 더 부각 시켜서 안 가는 방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footnote-ref-126)
128. 군 복무에서 이제 더 이상 ‘열외’(면제 혹은 기피)가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2001년 의무소방대원, 2002년 육군 통역병 모집이 처음 시작된 것도 참조할 만한 사실이다. [↑](#footnote-ref-127)
129. “연구자: 카투사는 어떻게 알고?

     E: 제가 군대를 그냥 가고 싶진 않았고. 어떻게든 제일 쉽게 말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을 찾다보니까 카투사가 나오게 되었고.

     연구자: 카투사에 대한 정보는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님 스스로?

     E: 아뇨. 제가 다 찾았어요.“ [↑](#footnote-ref-128)
130. “연구자 : 군대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구했어?

     B: 가기 전에 정보는, “카투사? 아니면 끝나고 학사 장교?”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의무소방으로 결론적으로 가게 되었지. 정보를 내가 찾아서 들은 게 아니라 '엄마' 친구 분의 지인 한 명이 중앙 소방 학교에 있었던 거야. 2학년 2학기 들어갈 때였는데 강력하게 너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경쟁률 낮은데 쓰면 집 근처로 빼 주겠다. 의무소방 체계는 연고지 중심으로 배치되는 거니까. 그 당시 경쟁률이 서울이 14:1 경기 7:1 강원 5:1. 그 셋 중에 하나가 선택 사항. 경기도는 내무실 분위기가 안 좋다는 소문을 들었고 실제로 그랬다 하고. 떨어지면 얄짤 없는 거잖아. 빽이 있든 없든 되는 게 중요해서 강원도를 썼지.” [↑](#footnote-ref-129)
131. 여기서 ‘루트’는 정보의 루트가 아니라 입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로들을 의미한다. [↑](#footnote-ref-130)
132. 실제로 이들은 그러한 정보가 어떠한 배제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footnote-ref-131)
133. 육군에서는 특수사관을 따로 모집하고, 해군과 공군 같은 경우 학사장교(사관후보생) 전형을 통하여 이들을 특별전형을 통해 모집한다. [↑](#footnote-ref-132)
1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ROTC에 대한 명문대생들의 지원률이 높은 것은 기업에서 육군ROTC 출신에게 ‘특별채용’의 특전을 주기 때문이다. 상반기 공채에서 ‘장교공채’는 주요 기업에서 채택되는데, 상반기 공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육군ROTC 출신을 흡수하기 위해서이다. 취업시장에서 통용되는 ‘스펙’이 특별히 없더라도 상반기에 진행되는 장교공채는 이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비슷한 이유로 한국에서의 여성ROTC 지원률을 이해할 수 있다. 관련 논의는 손자희(2011) 참조. [↑](#footnote-ref-133)
135. 신윤호(1994)는 공군 ROTC들이 후보생 시기 만들어내는 노래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그 특수성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한다. 이 특별한 공군ROTC들만의 노래는 구전을 통하여 전해지며 문화적인 다른 군과, 공군 내의 다른 출신들과의 구별짓기를 위하여 활용된다. [↑](#footnote-ref-134)
136. 공군 통역장교의 거의 절대 다수가 미국이나 유럽 소재의 명문대를 나왔다. 하버드, 콜롬비아, 예일, 스탠포드, LSE,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발견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 거기에 가족력이 보태지면 갑자기 아찔해지는 경험들을 하곤 한다. 예컨대 사관후보생 117기에는 한화 그룹 김승현 회장의 첫째 아들이 복무하기도 했고 그는 하버드 정치학과 출신이다, 2010년 1월 1일로 임관한 125기의 경우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정치학과를 나온 백범 김구의 증손자가 있기도 했다. 통(번)역 장교들이야 말로 앞서 이야기했던 ‘신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 중산층 출신의 대치동 '엄마'의 아들들이 업혀가는 모양새라고 말할 수도 있다. 관련 기사는 프라임 경제(2009년 10월 23일), “‘엄친아’ 김승연 회장 장남 동관 씨, 게이츠 장관 통역 ‘화제’”; mk뉴스(2010년 5월 23일), “외신도 놀란 천안함 통역 실력 - 민군 합동조사결과 통역한 조군호 중위” [↑](#footnote-ref-135)
137. 국제협력봉사요원들은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태권도, 한국어, 컴퓨터, 자동차정비, 작물재배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국제협력봉사요원은 1년에 80∼90명 정도를 뽑으며 그 수효는 매번 달라진다. 국제협력봉사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역 혹은 공익근무요원의 신체검사 등급을 받고, 서류전형 그리고 영어, 논술, 기술면접, 면접 등의 절차로 선발한다. 이 역시 영어와 논술 때문에 여기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절대다수 학벌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명문대생들이다.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 언제나 ‘좋은 학벌’은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국제협력봉사요원은 복무기간이 30개월로 육군보다 훨씬 긴 편인데, 해외에서의 ‘글로벌 커리어’를 스펙으로 만들고 싶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유인으로 작용한다. 국제협력봉사요원들은 사실 많은 경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는 이들은 여기 역시 꼭 가고 싶어 하는 군대라고 말한다. [↑](#footnote-ref-136)
138. 연구자가 인터뷰를 수행했던 B학교의 연구 참여자들 같은 경우 대체로 공군병 정도가 육군 전투병의 대체재로 언급되곤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병은 복무기간이 길기 때문에 육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A학교의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복무기간이 길더라도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한다고 주장한다(E, G, K). [↑](#footnote-ref-137)
139. “상근예비역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중요해요. 그냥 재수생만 되는, 그러니까 고졸 출신이여만 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고졸 출신이거든요? 고졸이어야만 자기들이 원할 때 그거 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지역, 그러니까 정말 시골 이런 데 있잖아요. 농촌 이런 데는 워낙에 젊은이가 없으니까. 대졸자라도. 대학교 재학생한테도 영장이 날아와요. 오라고. 거부할 수 있어요. 상근예비역의 장점은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강제적인 입영명령이 아니라 거부할 수가 있고. 물론 걔네들은 거부 못 해요. 대학생이 아니면 거부 못해요. 알죠. 대학에 들어가니까 거부할 수 있었는데. 나는 들어가겠다고 도장 찍은 거예요. 병무청에 가서 그거는 자기가 직접 얘기해야 해요. 아니면 자동 연기되거든.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나는 3월 달에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병무청에 찾아가서 아 나 상근예비역 가겠다. 근데 그게 1년 뒤였어요. 그래서 한 학기를 학교 다니고 간 거죠.”(K) [↑](#footnote-ref-138)
140. 카투사 출신 유명인들도 많은 편이다. 최근 잘 알려진 사람만 이야기 하자면, ‘우주인’으로 선정되었던 고산, MBC 아나운서인 오상진, 김종훈 한미통상교섭본부장, <우리 결혼했어요>에 나왔던 크라운 제이, 힙합 MC Verbal Jint, KBS 아나운서인 김병찬 정도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이미지를 엮어 보자. 유창한 영어 실력에 지적인 이미지로 거칠게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남자들이 그것을 기대하면서 카투사에 지원을 한다. [↑](#footnote-ref-139)
141. 이와 관련하여 E는 2002년에 A대학의 동기들과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카투사 지원이 있는 3월 즈음에 주위의 모든 친구들은 ‘초긴장’ 상태였다고 한다. 카투사 지원에 모조리 응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투사 지원이 끝나자 선발된 친구들과 선발되지 않은 친구들이 모여서 모두 학교 앞 술집에서 카투사 이야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또한 옆의 테이블에서도 많은 남성들이 카투사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footnote-ref-140)
142. 아시아 경제(2010년 9월 9일), “카투사 입영자 수도권 출신이 70%” [↑](#footnote-ref-141)
143. 그런데 의무소방과 관련된 사람들은 그 선발의 중단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ootnote-ref-142)
144. 보통 편제상 소대는 30명 규모에 소위~중위가 관리하고, 중대는 100명 규모에 대위가 관리하고, 대대는 500명 규모에 중령이 관리한다. [↑](#footnote-ref-143)
145. 이러한 이유로 공군에서는 입영 이전에 헌병, 방공포, 급양 특기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준다. [↑](#footnote-ref-144)
146. 공군은 방대한 인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여러 가지 있고 특별하게 입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카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곰신(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여자친구) 카페나 부모들이 들어가서 부대의 동정을 살필 수 있는 카페가 더 많은 편이다. [↑](#footnote-ref-145)
147. 시험 후기의 중요성은 차후에 취업시장에서도 똑같이 강조된다. [↑](#footnote-ref-146)
148. 통역병 시험은 보통 이틀 동안 치른다. 첫날에는 영한 번역/한영 번역 시험을 치르고, 토익 비슷한 통합적인 Listening, Reading 시험을 보고, 둘째 날은 영한 한영 동시통역 시험을 치른다. 둘째 날의 시험은 그 자리에서 즉각 통역을 해야 하는 시험이고 응시자에게는 메모지 하나와 펜 하나가 지급된다. [↑](#footnote-ref-147)
149. 통역병 학원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거느리고 있는 강남의 S학원은 강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선발 시험에 맞춘 통번역 실습, 교정 위주의 수업, - 일반 영어 실력을 통번역 능력으로 신속히 변환, - 수업 시간 중 실전과 같은 통번역 발표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실전 대응력 극대화 (실전 고득점 유도, 실전 스트레스 극복, 실수 예방), - 다년 치 기출문제 풀이, - 최신 경향을 반영한 실전 모의고사 (모의고사 및 수업 지문에서 다수 적중)”(<http://www.sdpro.co.kr/popup/08_2_popup.htm>) [↑](#footnote-ref-148)
150. 사교육에 대한 교육학의 연구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는 편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학습에 있어서의 ‘의존성’이다. 쉽게 말하면 사교육으로 학습을 시작하면 대부분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어렸을 때 과외나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20살 이전까지 입시 때문에 당연히 학원을 다니게 되고, 20살이 넘어서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게 된다. 이러한 사교육 의존은 경쟁 체제 안에서의 ‘죄수의 딜레마’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다른 한 편 사교육 자체가 제공하는 ‘의존성’ 그 자체의 효과이기도 하다. 전자에 관해선 채창균(2005:531)).

     이를 군인들의 ‘자기계발’에 적용하면 달리 말하면 부대의 컴퓨터로 <해커스 토익>을 수강하던 병사들은 잠재적인 사교육의 수요자가 되었던 것이다. ‘스펙’에 대한 이야기나 ‘자기계발’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만들어낸 흐름이 사교육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노무현 정부의 군대 내부의 교육은 ‘사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자기주도학습’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자기주도학습을 위해서는 스스로 ‘사고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병사들은 그저 인터넷 화면에서의 문제풀이를 따라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footnote-ref-149)
151. “일반 훈련소 4주 있다가 중앙소방학교 4주. 훈련소가 훨씬 더 나이브하고 천국이고 중앙소방학교는 악의 소굴이야. 훈련소에서는 가르치지도 않는 군가를 중앙소방학교에서는 매번 구보할 때까지 목이 터져라 부르고. 오리걸음 시키고. 내가 군대가 어떻다라는 말과 사람들이 군대가 어떻다는 건 좀 달라(C).” [↑](#footnote-ref-150)
152. 대열을 맞춰서 함께 달리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육군에서는 ‘뜀걸음’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구보를 하면서 남성들은 인솔자의 지휘에 맞춰 구령을 넣거나(“하나, 둘, 셋, 넷,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군가를 부르기도 하고 구호를 외치거나 함성을 지르기도 한다. 구보는 초반에는 1km 정도를 뛰나 과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훈련소 기초군사훈련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4km 정도까지 뛴다. [↑](#footnote-ref-151)
153. 다른 한 편 전술학(각개 전투, 총검술 등을 배우는 시간) 훈련 시간에 그러한 동기부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자가 훈련을 받고 자대 생활을 하던 2000년대 중반 공군에서 ‘전설’로 회자되던 Y 중위가 있었다. Y 중위는 총검술을 가르치면서 매번 공군과 다른 군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하곤 했다. “우리는 무적 공군이다. 우리는 자대에서 행정업무를 주로 하고 육군이나 해병대에게 무시당하지만. 훈련소에서만큼은 다른 군에 뒤지지 않는다! 알겠나? 본 교관은 가장 정예병(장교)로 귀관들을 양성할 것이다. 총검술 하나에서 만큼은 가장 뛰어나다. 이 소리를 듣게 하겠어. 알겠나?” 이러한 방식의 동기부여는 한 편에서 ‘육체적’으로도 밀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지만, 다른 한 편에서 공군이 가지고 있는 ‘행정 업무’를 변별하면서 훈련병(후보생)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측면이기도 하다. [↑](#footnote-ref-152)
154. 이러한 논리는 2장에서 언급했던 ‘자기계발하는 군대’ 즉, 군인적자원개발이 목표로 하는 ‘학습조직’이 병영문화개선과 결부되는 것과 같은 인식이다. [↑](#footnote-ref-153)
155. 운전면허 1종. [↑](#footnote-ref-154)
156. 이를 군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의 ‘확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마치 군인들끼리 모여서 ‘더 편한’ 군대의 랭킹을 굳이 매기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footnote-ref-155)
157. 그것은 통역병의 격무와도 관련이 있는데, 통역병은 그 명칭과 달리 ‘통역’을 많이 혹은 거의 하지 않는다. 군무에 대한 법적 규정에서 통역 업무 자체는 통역 장교가 수행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통역병들은 문서 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매번 회의가 있을 때마다 문서 번역에 야근과 철야 근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특별히 ‘공부’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다. [↑](#footnote-ref-156)
158. “통역병 시험: 통역병 시험 떨어지면 재수할 수 있나요?”

     (<http://mrshining2.egloos.com/1725501>) [↑](#footnote-ref-157)
159. 2000년대 초반까지는 ‘소원수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마음의 편지’ 혹은 ‘소원수리’는 병사들이 불만 사항이나 건의 사항, 혹은 칭찬 사항 등을 상시적으로 ‘소원 수리함’ 또는 ‘마음의 편지통’에 써 넣으면 그것들을 상부에서 해결하게 되어있는 민원 창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원수리 자체는 커다란 결함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자신들의 직속상관이 그것을 직접 열람하여 상부로 ‘상신(上申)’하게 되어있었다는 점이다. 즉 자신의 직속상관이 이러한 소원수리를 폐기하는 경우나 소원수리를 문제 삼아 오히려 병사들을 처벌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가혹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직통으로 군 내부 통신망인 인트라넷을 통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바뀌었다. [↑](#footnote-ref-158)
160. “일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소방서는 어떤 출동이 없으면 일이 없는 거잖아요? 특히 의무소방들한테는 전문적인 업무 같은 거 안 시키니까 할 일이 없담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남는 시간에. 일과 중에 남는 시간에 독서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자기 공부할 책 갖고 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A). “직원이랑 우리가 같은 곳을 쓰지 않아서. 사무실에서는 일이 많아서 책을 못 본 것도 있고. 우리끼리 쓰는 의무소방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선 선임들이 영어공부하거나 후임들도 다 같이 공부하거나 책 보거나. 근데 되게 공부들 다 했어. 뭔가를 했어”(C). “소방서 생활은 굉장히 불규칙적인. 출동을 대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책상에만 앉아있지만. 어느 날은 12시간 내내 출동할 수도 있고. 출동 횟수에 비례해서 좌우되는데. 만약 밤에 대형 화제가 나서 불을 끄고 왔다. 그러면 자체로 다음 날 OFF를 주든가 하는 게 있었지. 우리 소방서는 시간 배분을 잘 해주는 편이었어. 원주 같은 경우는 하루 일하고 하루 Full-OFF 제도를 돌리는 경우도 있었지. 부대마다 관습적으로 하던 게 있고 소방서장의 재량이 있어서. 소방서장의 입장에 따라서 대우가 달랐어”(B). [↑](#footnote-ref-159)
161. 2012년까지 ‘침대형’ 생활관 도입이 완료될 예정이다. (동아일보(2008년 10월 23일), “軍, 병영생활관 2012년까지 침대형으로 교체”) [↑](#footnote-ref-160)
162. 의무소방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균등하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빨리 마련하는 편이라고 한다. 하지만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카투사의 경우 업무를 선임의 경우 떠넘기려 하고, 후임의 경우 받지 않으려 하는 와중에 언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파벌’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와중에 ‘전통적인’ 군인처럼 공동체를 강조하는 카투사 병사도 있다고 하는데, 단적인 예는 주말에 회식을 하자는 제안이었다고 한다. 후임들은 ‘신성한’ 주말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철저히 묵살했다고 한다(D).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연구자의 경험에서 볼 때 공군 장교 집단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다. 대위 이상의 직업 군인들은 꼭 주말 중에 회식을 하려하고, 단기장교 중위들은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갖은 수를 다 쓴다. [↑](#footnote-ref-161)
163.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이 지점에서도 외부의 사적 자원, 즉 '엄마'의 영향력이 발견된다. 선임들에게 무엇을 선물할지는 여전히 많은 ‘곰신’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마'의 문제이기도 하다. 과자를 많이 보낼 것인지, 맛있는 과자를 적당히 보낼 것인지 부터가 첨예하며 이 지점에서 아들과 '엄마'는 협상을 하기도 한다(H의 경우). [↑](#footnote-ref-162)
164. 공군 용어로 “이유 없이 못 살게 구는 사람”을 뜻한다. 공식적으로는 사용금지 되어 있지만, 4성 장군부터 훈련병까지 모두 쓰는 용어 중 하나다. [↑](#footnote-ref-163)
165. 이에 반해 군의 표준 일과는 제한적인 시간만을 병사들에게 제공한다(<부록 3> 참조). [↑](#footnote-ref-164)
166. 육·해·공군의 간부와의 협상 조건은 판이하게 다른데, 그것은 간부 대비 병사의 비율 때문이기도 하다. 육군은 장교·부사관과 사병의 비율이 18.2:81.8, 해군은 42.2:57.8, 공군은 44.3:55.7의 비율이다(이상목, 2003: 93). [↑](#footnote-ref-165)
167. 국방부는 2010년 7월 15일 발표를 통해 2011년 1월 1일부터 ‘병사 군복무 성과 평가’를 시행한다고 했다가 폐기한 적이 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사들은 입대 직후 ‘군생활 계획서’에 ‘병 기본훈련’과 ‘체력단련’. ‘자기계발·사회봉사’ 등 3개 항목에 자신의 목표를 적고. 직속상관은 진급 때마다 이를 평가해 객관적인 기록을 남긴다는 계획이었다. 기본훈련은 사격술. 무술 등을 1급 혹은 특급으로 한다거나. 자기계발·사회봉사 항목은 어학 고득점획득. 자격증 취득 등을 목표로 정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역 한 달 전에 종합평가를 해 탁월(40％). 우수(30％). 보통(30％)으로 등급을 나눠 기록을 남긴다.”(스포츠서울 2010년 7월 18일자, “군복무에 대한 평가를 대학교 성적표처럼”) [↑](#footnote-ref-166)
168. “사실 남자의 그것을 검사하는 이유는 또 있다. 믿기 어렵지만 군대에 여자가 한 번씩 들어올 때가 있다고 한다. 나도 첨엔 안 믿었다. 하지만 그 동안 꽤 자주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여자가 군대에 뭣 하러 들어오냐구? 자신이 남자라고 생각하는 여자이거나, 성전환 수술을 한 남자겠지 뭐!”(이성찬, 1998: 23)

     “여군은 아침과 저녁은 숙소에 가서 먹지만 점심은 우리와 함께 먹는다. 물론 여군은 배식을 기다리지 않는다. 짬장이 알아서 선임하사와 여군 것을 미리 퍼놓기 때문이다. 여군은 음식을 남기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는지 항상 반찬과 밥을 조금씩 남긴다. (......) 그래서 우리는 그간 사제에서 살아왔던 방식들이 얼마나 가식적이었고 얼마나 주위사람을 의식하면서, 특히 여자들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왔나를 처절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극단적인 군대라는 장소에서였지만…”(이성찬, 1998: 286). [↑](#footnote-ref-167)
169. “군대도 엄연히 사람이 사는 곳이었고 그곳만의 매력이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전우들과 부대꼈고, 사회에서는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벌어졌다. 내가 경험한 군대는 선배들이 말한 것처럼 무섭기만 한곳이 아니었다. 웃음이 있었고 사랑보다 진한 전우애도 있었다”(황현, 2009: 8-9). [↑](#footnote-ref-168)
170. “군대에는 두 부류의 군인이 있다. 군대에 적응한 군인과 적응하지 못한 군인이다. 적응하지 못한 군인은 또다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선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군인과 적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군인”(황현, 2009: 146). [↑](#footnote-ref-169)
171. “상병 때부터 갓 병장을 단 시기는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뀐다. 일, 이등병 때 누리지 못한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바지주머니에 손 넣어 걸어 다녀도 보고, 내무반에서 뽀글이도 먹어보고, 집합시간에 일부러 어슬렁거리며 천천히 걸어 나가보기도 한다.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 얼마나 짜릿한가?” (황현, 221). [↑](#footnote-ref-170)
172. 김이훈(2005)의 책은 아직 ‘영리한 남자’의 자기계발서로 보기에는 기존의 가치들에 더 충실해 보인다. 군인의 본분에 대한 강조, 부대원들에 대한 애정, 국가에 대한 충성 등에 대한 언급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내가 시간의 관리를 소중히 하자고 하고 자신을 계발하고 발전시키자고 해서 군인이 군대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군인이 군생활을 하는 이유는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훈련 열심히 받고 항상 긴장하는 자세로 어떤 유사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항상 준비해야 한다. 이런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소중히 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김이훈, 2005: 115). [↑](#footnote-ref-171)
173. 김이훈의 경우 96년에 대학에 입학하여 2001년부터 2003년대까지 군 복무를 했다. 이 시기는 아직 병영문화개선이 이슈가 되지 않고 군대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빈번하던 시기이다. [↑](#footnote-ref-172)
174. 자신들의 업무에서 ‘기밀’과 관련된 부분은 제하게 되지만, 퍼즐 맞추듯이 여러 게시판을 읽다보면 업무 전반의 ‘기밀’과 ‘기밀 아닌 것’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footnote-ref-173)
175. 한국에서 입지전적인 성공을 했던 기업가나 전문직들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한국에서의 직업적 성공이라는 것들이 하위 계급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차원의 자기계발(self-help)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급상승의 사다리’의 차원에서 살펴볼 때 90년대까지 이러한 개별적 ‘입신양명’전략들은 실제로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도 했다. 광범위한 중산층의 형성은 청년들로 하여금 그러한 경로에 도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다. [↑](#footnote-ref-174)
176. 5.31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히 ‘신자유주의’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쟁점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대안학교와 관련된 내용,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민주화’와 대학자율화 등과 관련한 ‘신자유주의화’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같이 볼 수 있는지의 난점이 존재한다. 관련된 논의는 김종엽(2009) 참조. [↑](#footnote-ref-175)
177. 단적인 경우가 의무소방이다. 실제로 의무소방을 ‘명문대생’들이, 혹은 최대한 양보하여 ‘영리한 남자’가 할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로와 연동하여 가장 복무를 할 필요가 있는 집단은 전문대의 소방관련학과를 다니는 남성들이다. 의무소방 복무를 마쳤을 때, 실제 소방대원 시험에 가산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무소방의 절대다수는 ‘명문대생’들이다. [↑](#footnote-ref-176)
178. 아시아 경제(2010년 9월 9일), “카투사 입영자 수도권 출신이 70%” [↑](#footnote-ref-177)
179. 한겨레(2005년 9월 15일), “의무소방원, 명문대생용 ‘제2 카투사’?” [↑](#footnote-ref-178)
180. 이와 관련된 논의는 권영길(2009)과 김경근(2005)을 참조. 요컨대 한국에서 자녀의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 자산은 그대로 자녀의 교육역량으로 반영된다. 또한 이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은 신명호(2011) 참조. [↑](#footnote-ref-179)
181. 흥미로운 것은 교육인적자원부(2006)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평가’에서 판단하는 자기계발 항목에서 2007년의 예상으로 ‘자기 계발 병사 72%’, 2010년의 예상으로 ‘자기 계발 병사 90%’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footnote-ref-180)
182. 인권의 범주는 사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범주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크게 보아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을 축으로 하고. 자유권은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명의 권리를 포괄하고. 사회권은 분배 정의와 경제적 불평등,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경제적 조건에 대한 권리를 포괄한다. 연대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평화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정부에서 규정하는 인권의 개념은 국가인권위원회 · 국방부(2008). 인권에 대한 논쟁의 지형은 조효제(2007) 참조. [↑](#footnote-ref-181)
183. 군대개혁에 대해서 ‘완전한’ 입체적 이해를 위해서 안보에 대한 논의는 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군인들의 병영생활과 관련하여 논점을 좁히는 것이 이 논문의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언급은 추후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략한다. 관련된 논의는 실버스타인(2007); 싱어(2005); 강미연(2010) 참조. 다만 논문의 쟁점과 관련된 안보에 대한 언급은 전쟁 위기에 대한 설파, 국방개혁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강군’ 이데올로기의 설파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footnote-ref-182)
184. 이 지점에서 평화체제와 인권간의 상호관련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1장 2절과 2장 1절에서 언급했던 평화운동의 역할이 결부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그 연관관계까지 설명하지는 않는다. 관련된 쟁점에 대한 논의는 정욱식(2004); 홍성태(2005); 권인숙(2000); 김안정애(2005)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footnote-ref-183)
185.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벌어지면서 안보와 ‘전투형 부대’ 등이 강조되면서 후술할 인권 차원의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자기계발과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차원에 대한 강조는(예산 지원과 상관없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매년 국군의 날 발언에서 병사들의 자기계발을 독려해 왔다. [↑](#footnote-ref-184)
186. 여기에 반해 전면적인 병영문화전반의 개선과 폭력 및 구타·가혹 행위로부터 해방된 인권이 존중되는 군대라는 측면은 집합적-도움(collective help)라는 차원에 대응한다. 즉 전반적인 병영문화개선의 제도화를 뜻한다. [↑](#footnote-ref-185)
187. 문제는 군대를 분석하기 위한 3가지 기준(인권, 교육-축적체제, 안보) 중 안보와 인권이 늘 공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 중 하나는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은 안보 위주의 정책을 약화시키고 군축-평화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방향 역시 명확하게 군대개혁과 관계 설정되지 못했다. [↑](#footnote-ref-186)
188. 참고로 군대 내부의 군기사고로 인한 자살자의 숫자는 ‘민주정부’ 시기에 연 평균 120건 정도에서 70~80건 정도로 줄어들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군대의 자살사고는 총 740건 발생했다. 이 중 ‘민주정부’ 시기의 자살사고는 연 평균 71건, 이명박 정부 시기의 자살사고는 연 평균 79건으로 집계된다. 여기에다가 2011년에 연이어서 발생했던 구타 및 가혹 행위로 인한 자살 및 사망 건수를 합치면 더 많은 연 평균 자살자와 사망자가 나타나리라 예측한다. 관련 자료는 심대평(2011); 국방부(2002). [↑](#footnote-ref-187)
189. 이 지점에서 2장에서 언급했던 ‘군경 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볼 수 있다. 군 내부의 ‘비밀주의’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사회적 개입의 장을 열 수 있었다면 이러한 일선 부대에서의 ‘과부하’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또는 ‘군경 감독관’ 제도가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병영문화개선’이 일관성 있게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라 있었다면 여러 가지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병영에서는 정책의 목표가 갑자기 바뀌거나 모두를 실현하려다가 문제들에 봉착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 [↑](#footnote-ref-188)
190.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 학습권의 부문에 있어서도 제약은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 2008년의 ‘국방부 불온서적’ 선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군대에서의 학습은 오롯이 ‘스펙’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높일 수 있는 사회과학 서적은 다시금 군사독재 시기처럼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연합뉴스 2008년 7월 31일, “군(軍), 베스트셀러도 ‘불온서적’ 지정”; 시사인 2011년 11월 15일, “[단독]2011 군(軍) ‘불온서적’ 리스트 입수”) [↑](#footnote-ref-189)
191. 이 지점에서 엄기호가 언급한 ‘찌질한 남자’의 비유는 적절하다. 예전과 같은 임노동을 통한 사회경제적 시민권을 박탈당한(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더 박탈당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찌질한’ 남성들이 남성들‘간’의 새로운 연대를 만들면서 그 박탈감을 군가산점제도 등의 논점이 나올 때 여성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통하여 해소한다는 것이다(엄기호, 2011: 161). [↑](#footnote-ref-190)
192. 국방일보 2008년 1월 25일, “자기계발 위한 병영문화개선 논의” [↑](#footnote-ref-191)
193. 국방일보 2011년 9월 29일, “병영문화개선을 기대하며”(서정현, 육군 15사단 김민기 일병 어머니) [↑](#footnote-ref-192)
194. 국방일보 2010년 10월 26일, “멈춰 버린 시간 아닌 군복무 기간 마음 쌓는 기간으로” [↑](#footnote-ref-193)
195. 국방일보 2007년 7월 12일, “기고-새로운 GOP 병영문화 창출을 위해” [↑](#footnote-ref-194)
196. 국방일보 2011년 9월 15일, “‘전투전사’ 군생활의 재발견” [↑](#footnote-ref-195)
197. 국방일보 2007년 7월 3일, “생각해 봅시다-보내고 싶은 군대, 가고 싶은 군대” [↑](#footnote-ref-196)
198. 병무청 블로그(<http://blog.daum.net/mma9090/3800>)의 기사 제목이다. [↑](#footnote-ref-197)
199. 국방일보 2011년 9월 1일 “지휘관은 부모심정으로 병사들 돌봐야” [↑](#footnote-ref-198)
200. 국방일보 2011년 9월 26일, “기고-꿈과 희망의 시작점, 육군훈련소”(유홍달 대령, 육군훈련소 지원처장) [↑](#footnote-ref-199)
201. 한편 군인들의 ‘안전’에 대한 관리 역시 사적 관리의 영역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있다. 예컨대 ‘군인 보험’이 바로 그것이다. 입원과 통원 치료, 그리고 각종 상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군인 보험’은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에서 상품으로 개발되어 호황을 누리고 있다([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01&docId=36515579&qb=6rWw7J24IOuztO2Xm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XeaqU5Y7bRsssWNgvossc—242192&sid=TuRFqW8e5E4AAAtcHkU](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01&docId=36515579&qb=6rWw7J24IOuztO2Xm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XeaqU5Y7bRsssWNgvossc—242192&sid=TuRFqW8e5E4AAAtcHkU) 참조) [↑](#footnote-ref-200)
202. 이러한 흐름은 ‘민주정부’가 벤치마킹했던 ‘제3의 길’ 노선에서 복지라는 개념을 ‘일하는 복지’와 ‘고용가능성’으로 전환시킨 것과도 유사하다. ‘제3의 길’ 노선에 대해서는 기든스(2001) 참조. [↑](#footnote-ref-201)
203. “해병대전우회, 공군전우회(보라매회), 포병전우회 등 상명하복의 조직력과 결집력을 자랑하던 부대 위주로 이뤄지던 군대 인맥에 언제부터인가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생 군사 훈련단)중앙회, 공군사관후보장교회, 학사장교총동문회 등 이른바 '엘리트 군대' 출신들의 조직까지 가세하면서 군대 인맥의 영향력이 급부상하고 있다.”(서울경제 2009년 11월 26일자, “[리빙 앤 조이] 현대사회 또 하나의 ‘스펙’ 군대인맥(軍隊人脈)”) [↑](#footnote-ref-202)
204. 또한 다른 한 편에서는 관습적인 ‘영리함’이 아닌 다른 기준의 남성들에게 주는 불이익의 문제 또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평화’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병역거부자 남성들은 이러한 군대가 고려하는 범주에서 빠져있다. 사실상 군복무의 애초 목적과 관련 없는 ‘스펙’을 쌓는 남성들이 학습에 있어서 ‘배려’를 받는다면, 이들 역시 병무 정책에서 다른 종류의 ‘배려’를 받아야만 한다. [↑](#footnote-ref-203)
205. 이는 사실 군대개혁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컨대 동형적인 문제들이 학교개혁 과정에서도 나타난다(김종엽, 2009; 이병환, 2002). ‘압축적 근대화’의 과정에서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통치전략은 장기적인 ‘단계’를 두고 전개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전환의 ‘동시성’은 개혁을 입안하고 전개하는 세력이나(행정부, 부처 관료, 위원회 등), 이를 일선에서 시행하는 세력(일선 부대의 간부)에게도 정착시키고 제도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았다. 즉 현재의 군대와 군인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한국의 특수한 역사에 의해서 주어진 변화의 급격한 속도에 따라 ‘공론장’의 부재와 개혁과제들의 임기응변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에 따라서 발생하는 딜레마인 것이다. [↑](#footnote-ref-204)
206.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7월 12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7월에 벌어졌던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논평하면서 “군에 들어가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더 큰 원인”이 있다며 ‘세대’의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그 ‘세대’ 역시 한국의 사회 구조 안에서 조형된 존재들일 것이며, 병사에게 아무런 ‘책임’이 군법상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1차적으로는 ‘관리의 책임’이다. 또한 지금의 ‘세대’가 그 문제를 풀려면 스스로의 목소리를 ‘문제화’하고 ‘정치화’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군인사법은 이를 제약한다. (연합뉴스 2011년 7월 12일, “이(李) 대통령 “병영문화 획기적으로 바꿔야””) [↑](#footnote-ref-205)
207. 1장에서 살펴보았던 여성주의 운동이 제기했던 군사주의 비판과 여성의 시민권 논의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성(젠더)이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에 대한 논의를 군대에서야 말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평화에 대한 감각을 군대에서야 말로 역설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성들 간의 생활을 통한 평등의 감각을 길러내야 할 것이다. [↑](#footnote-ref-206)
208. <http://www.euromil.org/> 참조 [↑](#footnote-ref-207)
209. 이 ‘아들의 편지와 엄마의 답장’은 인터넷에서 회자되며 대부분의 부대 게시판이나 곰신 게시판에서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글이다. 이 글을 통하여 2000년대의 ‘아들’인 군인과 '엄마'와의 친밀성과 상호 인식에 대해서 파악해볼 수 있다. [↑](#footnote-ref-208)
210. 이 '엄마'의 경우 입대한 첫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카페에 편지를 보내서 ‘우수회원’으로 최단기 승급한 경우이다. [↑](#footnote-ref-209)